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중앙동 2-3)
TEL. 02)523-6482~3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을 펴내며

지방선거는 동네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일을 스스로(自) 다스리는(治)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선거는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생활정치 매개로서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지방자치의 기능과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된 국민들의 참여 의식을 감안한다면 지방선거의 주인은 당연히 ‘주민’일 것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하고 선거과정에서의 유권자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와 후보자의 원활한 정책 소통은 동네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이자 정책선거 성패의 주요요인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희망공약을 상시 접수하고 이를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공하여 유권자의 희망공약과 후보자의 선거공약이 선순환 되는 ‘희망공약 캠페인’을 전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를 맞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희망공약은 총 811건입니다. 이 중에서 내용과 형식 요건을 갖춘 희망공약 150건을 선별하여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E-book에 담았습니다.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엮어 만든 본 모음집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 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정책선거가 보다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8. 5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본 모음집에 수록되지 않은 희망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우리동네 공약제안」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음집에 수록된 공약 제안은 우리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Part 1 사회·복지분야 유권자 희망공약

▣ 금연구역 내 금연을 위해 제안합니다	02
▣ 공공기관 통합건물 건설	02
▣ 운동기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부탁드립니다	03
▣ 어린이 영어 영화관 조성	04
▣ 발곡중학교 앞 횡단보도 및 통행로개설	05
▣ 노인과 임신부를 위한 무료택시 제공	06
▣ 우리가족 추억만들기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07
▣ 합천군 길거리 주정차 해결방안	08
▣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	08
▣ 열린주차장 공약 제안	09
▣ 복지혜택알림서비스	10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출산 장려정책	11
▣ 교통약자 전용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인증을 만들어주세요	11
▣ 용인서천마을에 X게임장 체육시설 설치 요망입니다	12
▣ 어린이집 종일반 확대	12
▣ 자녀 수에 따른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 주택 거주 방안 마련	13
▣ 장애인 맞춤 서비스	13
▣ HPV (흔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불림) 백신 접종 청소년 누구나 무료 접종	14
▣ 양주도심을 횡단하는 위험송전선의 지하화	14
▣ 양산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15
▣ 부산시 햇살동지 임대주택에 대해	15
▣ 공공자전거서비스	16
▣ 신혼 예비 부부교실	17
▣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주부 일자리 창출	18
▣ 어르신 친화적 프로그램 제공방안	19
▣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교육, 신문해계층 교육	20
▣ 거리에 차량이 없는 지역구 만들기	21
▣ 청년들을 위한 공간공유 정책	22
▣ 공동육아방 개설 및 운영	24
▣ 부모사랑휴가 제안합니다	25
▣ 길고양이 급식소 확충을 제안합니다	26

▣ 실내 문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27
▣ 임산부를 위한 공약 제안(임산부 전용 택시)	28
▣ 수원 팔달 경찰서 신설 및 치안문제	29
▣ 드림장터 활성화 방안	29
▣ 시흥IC광역버스와 연계되는 통합교통시스템을 설립을 요청합니다	30
▣ 반려동물 출입가능한 운동장 및 공원조성	31
▣ 저상버스 확대 운영해주세요	32
▣ 행복택배상자(보관함) 제안	33
▣ 노인 일자리 정책	33
▣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공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
▣ 자연이 숨쉬는 의정부를 만들어주세요	35
▣ 복합 문화예술 및 교육 단지 조성	36
▣ 마을 공동체(실버) 관련	37
▣ 반려동물 놀이터 혹은 공원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38
▣ 농어촌 면단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또는 유사한 소규모의 센터가 확대 운영될 수 있기를 건의드립니다	39
▣ 자원봉사자의 보험혜택	40
▣ 할마, 할빠를 위한 서비스	40
▣ 신혼부부를 위한 복지정책	41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이제 그만	41
▣ 대구 10味 타운을 만들어 지역의 음식 우수성을 알리고 대구를 홍보하자	42
▣ 저출산 정책 해결은 작은 불편함 해소부터	43
▣ 분리수거대 의무 설치 제안	44
▣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정비, 안내	45
▣ 빈곤 독거노인 이사서비스 지원	45
▣ 학교에서 마스크를 지급해주세요	46
▣ 저희 부여군을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보시는것이 어떻겠습니까 후보자님	46
▣ 잠원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제안합니다	47
▣ 청원구 율량동-주중동에 공공도서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49
▣ 합리적인 교통체제 만들어주세요	50

Part 2 경제 · 민생분야 유권자 희망공약

- ▣ 소통과 문화벨트로서 다산길의 연장 및 남양주시의 경쟁력 제고, 가치 향상 건 52
- ▣ 골든하버 지하철 연장 건의 54
- ▣ 공용주차장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주민 편익 증진 55
- ▣ 도민을 위한 전복 / 상생하는 문화도시 56
- ▣ 이동면 서리 상덕마을에도 따복버스를 57
- ▣ 작은 영화관 이전으로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57
- ▣ 영광군의 경제발전을 위한 공약 제안합니다 58
- ▣ 청주시 농촌 행복택시비 기존 500원 1000원으로 인상및 농촌(오지마을) 확대운영 .. 58
-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59
- ▣ 따뜻한 우리 동네를 위하여 60
- ▣ 퇴근시간 위험속에 곡예운전을하는 부평IC 계양진입구간을 안전하게 해주세요 61
- ▣ 구직자를 위한 좋은 직장 리스트와 기업 인센티브 62
- ▣ 산과들과 물길의 테마로드 63
- ▣ 차기부산시장에게 바란다 64
- ▣ 구리시의 시정공약 제안 (구리시 교통난 문제) 75
- ▣ 지자체 예산낭비(보도블록교체, 불필요한 상수도관 배관 교체 등)를 막기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 촉구안 85
- ▣ 노후주택 지원 86
- ▣ 우리동네 희망 공약 군북면 지오리(용목) 86
- ▣ 만성적 주차난 해소하고 돈 버는 win-win 공유 주차 시스템 기획 87
- ▣ 이야기가 있는 남동구 89
- ▣ 서부산 개발방향제안 90
- ▣ 귀촌, 귀농 정책의 활성화와 안전한 시골 생활을 위한 우리 동네 CCTV설치를
제안합니다 93
- ▣ 물왕저수지 개발 94
- ▣ 4인가구 전용 군립 임대 아파트 건립 95
- ▣ 스타필드 창원 유치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96
- ▣ 도촌역 신설과 섬말IC 도촌동 방면 출차도로 개설 96
- ▣ 지역별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게해 주세요 97

Part 3 교육·환경분야 유권자 희망공약

- ▣ 어린이 통학차량 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100
- ▣ 보육에 관한 제안100
- ▣ 강남구 무료 화장실 지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101
- ▣ 노후굴뚝철거102
- ▣ 학교 앞 고압선 철폐 제거 및 지하 매설102
- ▣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에 따른 불편사항103
- ▣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학교에 진공청소기 설치104
- ▣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 옆 6층 주차타워 부지 지하화 및 공원화104
- ▣ (시도 경계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대형/화물/특수차량 불법주차 근절 추진105
- ▣ 통학로 길 확장, 통학문 및 통학로 지원사업, 등산로 조성106
- ▣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 혹은 경감 요청108
- ▣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108
- ▣ 달서구에 도서관이 필요합니다109
- ▣ 동구 광주천을 청계천처럼 예쁘게 꾸며주세요109
- ▣ 쓰레기종량제 봉투 5ml 제작 및 판매요청110
- ▣ 워킹스쿨버스제도는 법적인 보호 속으로111
- ▣ 호매실 발전 제안112
- ▣ 아이 돌봄 쉼터 운영114
-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방안115
- ▣ 금연거리를 만들어주세요116
- ▣ 청양공동체 중앙공원 조성추진117
-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인천시 만들기118
- ▣ 다음세대를 위한 대구의 미래유산118
-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미세먼지 솔루션121
- ▣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분리수거 시스템 전반 개선124
- ▣ BMW(bike, metro, walk) 친화형 깨끗한구리 만들기125
- ▣ 용인중앙시장 아뜰리에를 아이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126
- ▣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126
- ▣ 환한 동네, 안전한 동네127
- ▣ 담배연기 없는 거리 시범도시 운영128
- ▣ 인천 바다 해안가 주변 쓰레기 문제 정책제안128

- ▣ 발산빛물저류지 개선을 조속히 진행해 주세요129
- ▣ 시내 대형 공기청정시설 설치 제안130
- ▣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사업131
- ▣ 노들고가차도 철거를 통한 친환경적 도시 조성131
- ▣ 칠곡 중앙초등학교 앞에 신호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주세요133
- ▣ 아름마을 주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주변 공간의 활용134
- ▣ 깨끗한 환경135
- ▣ 지속가능한 장흥을 위한 문화·예술·역사 관련 사업 및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방안135
- ▣ 청소년 교육 복지 환경 조성141
- ▣ 미세먼지절감의 키는 편리한 대중교통141
- ▣ 개봉2,3동 지역에 도서관건립을 제안 합니다142
- ▣ 여의도에 책 대출이 가능하고 열람실이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143
- ▣ 학교도서관의 내실화 및 사서교사의 확충을 제안합니다144
- ▣ 우리동네 공영주차장을 늘려 주세요145
- ▣ 용산구 보광동에 주차 타워를 건설 해주세요145
- ▣ 학교의 미세먼지 예방 대책148

Part 4 정치·행정분야 유권자 희망공약

- ▣ 예쁜 우리 동네이름 되찾기152
- ▣ 따릉이(자전거 대여서비스) 기본시간 연장 제안153
- ▣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요청153

Part 5 기타분야 유권자 희망공약

- ▣ 흡연 구역 설치 부탁드립니다156
- ▣ 창원대학교 앞 시내버스 환승센터 확장156
- ▣ 문수산 둘레길 조성으로 평화누리 길을 이어가자157

▣ 농어민 직불금제도 전,답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방안	157
▣ 춘천시에 강동구 버금가는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158
▣ 트램설치를 통한대중교통 시설확대와 관광효과	159
▣ 버스 부노선 추가 또는 쌍둥이 버스 정책제안	160
▣ 살고싶은 완주 만들기	161
▣ 새로운 방법의 경의중앙선 연착문제 해결방안	162
▣ 영등포역 앞 차량, 도보 환경 개선	164
▣ 부산시는 왜 제2의 김해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가 & 부산시 도시철도 순환선 제안	164
▣ 범물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시설개선 및 활용도 증진	167
▣ 만안구 일부지역(박달,안양2,석수동)-강남 버스노선을 신설해주세요	168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사회 · 복지 분야 유권자 희망공약



사회·복지 분야 유권자 희망공약

Part 1

제목 금연구역 내 금연을 위해 제안합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흡연하시는 분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흡연은 자유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불법이잖아요. 그분들에게 금연구역이라고 말했다가 사고날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빨리 피하거나 숨을 참고 있던 경험이 많은데요. 유동인구가 많거나 주요역 주변에서는 단속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단속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 공약제안

〈금연 구역 내 CCTV 설치〉

초기단계 : 방송으로 경고를 주고 바로 담배를 끌 수 있도록 한다.(주정차단속과 같은 방식).

정착단계 : 흡연하는 장면이 발각되면 출동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관할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출동이 어려운 여건이므로 예를 들어 지하철역 주변이라면 서울교통공사와 연계하여 단속하는 방법 등).

제목 공공기관 통합건물 건설

지역 강원도

□ 제안이유

- 민원인이 한 건물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최근 있었던 격오지 여성공무원 성관련 사고 방지를 위한 숙소 마련

□ 제안내용

-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공기관을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가능)지역에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건물을 건설하여 각 기관의 예산절약 및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가능
예) 1층 : 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경찰서 또는 소방서(상호간 정보 공유 가능)
2층 : 민원처리 및 위 부서 지원이 가능한 주민센터/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3층 : 격오지 및 필요지역 여성공무원 기숙사<공무원(일반,교육,보건소 직원 등등 공무원)>
기타 : 필요기관 추가설치

□ 효과

- 인원이 적어 예산반영이 불가하였던 지역에 몇몇개의 기관의 여성직원들을 통합하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되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공동예산투자)
- 1층에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찰서 및 소방서를 설치하여 위층의 기숙사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제목

운동기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강원도

□ 제안이유

원주시내에 공원, 아파트단지, 경로당 등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에 시민들의 위한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용하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 문제점

- 위생 및 청결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접촉성 세균감염이 우려됩니다.
- 파손 및 안전 : 운동기구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충격흡수 고무 및 스펀지 부분의 훼손 등으로 위험이 예상됩니다.
- 우천시 이용불가 : 야외에 설치되어 있다보니 우천시나 눈이 올 때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공약제안

- 정기적인 소독 및 소독점검판 게시
운동기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해주시고 언제 소독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운동기구 주변에 게시되면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운동기구에 연락처 부착

운동기구에 불편사항이 있을 때나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운동기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에도 알기 쉽도록 운동기구마다 가로등처럼 기구마다 일련번호가 있어서 담당부서에 일련번호를 말씀드리면 신속히 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운동 기구 위에 천막 설치

비나 눈이 올 때는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날씨에 관계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천막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천막이 있으면 운동기구 녹스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운동기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 영어 영화관 조성

지역 대구광역시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교육열이 높아 어릴때부터 영어 교육의 중요성 또한 강조해왔음.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교육은 단어암기 문법 등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갖게 해주지 못하는 실정임. 얼마전부터 영어 독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어린이 영어영화관을 건립. 확충한다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영어 공부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역 정부차원에서의 어린이 영어영화관 조성 정책을 제안함.

■ 주요내용

○ 무엇을?

어린이가 좋아하는 디즈니나 픽사의 만화, 우리나라 만화시리즈의 영어버전 등을 활용한 영화관을 조성함.

○ 어떻게?

구립 또는 시립도서관의 경우 시청각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이달의 영화 등을 상영하는 도서관이 많음. 이러한 도서관시설을 활용하여 한달에 1, 2회 등 정기적으로 어린이 대상 영어 영화를 상영함.

○ 언제까지?

1년간 2, 3곳의 도서관을 시범운영하고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2022년까지는 대구의 모든 도서관에서 실시.

☐ 소요예산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예산에서 크게 부가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함.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도서에는 영어원서(CD나DVD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1백만 원 전후의 도서나, 영화DVD구입비 및 인건비 등이 필요.

☐ 재원조달방안

기존 책정된 예산에 일정액을 부가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예산의 일부를 어린이 영어 영화관 조성 사업비 명목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고려.

제목 **발곡중학교 앞 횡단보도 및 통행로개설**

지역 **경기도**

발곡중학교 앞 횡단 보도 개설 및 장암동사무소 옆 치안센터 옆 공터 계단 조성길 만들기

☐ 발곡중학교 횡단보도

발곡중학교 옆 공원 아름다운 가로수길 이용 용이 거주자 횡단편의제공

(횡단보도 부재로 무단횡단 방지 및 학생들 공원 이용 시민들 장암동 상가 농협 동사무소 이용 용이)

학생 보호구역으로 자동차 속도제한이 있는 도로 하지만 횡단보도는 없는 곳.

발곡역 사거리 우회전 차량 좌회전 차량 현저히 적어서 사거리 직진 신호와 동시 신호시..

차량통해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의정부시는 주민보행권 확보에 굉장히 소극적임

☐ 장암동 사무소, 장암 치안센터 옆길 계단 조성 통행로 확보

현상황 - 장암동 동사무소 이용, 농협 이용, 이마트 이용시 과도하게 건물들을 돌아가야만 하고 동선이 불편함. 지대단차로 인한 통행 불편 해소. 거주자 보행권 확보

1. 2번 동시 시행으로 신곡동 장암동 이동 용이 보행권확보

향후 만들어질 발곡역 도서관 이용 및 공원 이용 편의

발곡중학교 학생 및 거주민 안전한 통행권 확보

이용자 많은 장암동 농협동 사무소 이용 용의

12년 발곡역 개통, 14년 발곡프라자 건축으로 지역 통행자 및 거주 환경이 엄청 변화하였으나 주변 환경이 이용로 통행로는 전혀 바뀌게 없음.

거주민 통행권이 심대히 제약 받고 있음. 새로 출마하시는 지역 후보자님께서서는 1순위는 아니더라도 2순위 정도로는 공약사항에 넣어서 4만 상주주민이 거주하는 장암지구의 발전에 힘써 주시길.

제목 **노인과 임신부를 위한 무료택시 제공**

지역 **서울특별시**

고령화 사회 진행에 따라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생률도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비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한가지 예로, 아직 노인이나 임신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 시내를 이동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조금이나마 서울 시내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료택시를 제공하는 공약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제공목적

-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할 수 있는 80세 이상 노인과 임신부에게 편안한 교통 수단을 제공하자.
- 기대효과 : 필요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이동수단 제공으로 노인과 임신부의 실질적인 복지혜택 증가할 것입니다.

■ 제공대상 : 약 10만명

- 서울특별시 거주 80세 이상 노인(약 3만명)
- 서울특별시 거주 임신부(약 7만명, 임신 개월수 무관)

■ 제공범위

- 서울시 안에서 최대 2시간 내 이동(발착지가 서울이 아니거나 2시간이 넘어서는 경우 불 인정)

■ 제공횟수 : 1인 월 4회

- 단, 임신부는 임신과 관련하여 긴급한 병원 방문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제공합니다.

▣ 제공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이용권 수령 후 택시비 지급시 택시기사에게 택시비 대신 제출합니다.
- 택시기사는 제출받은 이용권과 택시이용 영수증을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 소요예산 :

- 연간 500억원(=4회*12월*10만명*1만원) 정도

▣ 재원조달

-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무료 대중교통 폐지로 확보되는 예산으로 활용합니다.(일 50억)

제목

우리가족 추억만들기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대구광역시

요즘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살려 보고자 가족들끼리의 추억만들기에 대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근교나 타 지역으로 나가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만들면 되지만, 시간적인/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긴 하나 그게 너무 오래 되었거나 식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풍 대구과학관 같은 곳 처럼 깨끗한 시설에 자체 프로그램도 잘 되어있으면서 어른과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장소는 실제로 우리 지역내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한다 하더라도 마케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지 관심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입소문이 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직 어린이회관이나 달성공원같은 근대 문화놀이공간외에도 미래적인 교감을 할 수 있고 급변하는 시대에 어울리는 그러한 복지 공간, 복지 시설, 복지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과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드론이 택배 배달하는 날이 도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날리기 대회하는 곳에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연날리기가 좋지 않다는게 아니라 흥미를 불러 일으키기에 다소 식상한 것은 사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생겨 일에 치여 바쁜 부모님들도 어

린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장기적인 프로그램 덕분에 장기 근로자들이 생겨 하루살이 아르바이트가 아닌 장기적인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책임감과 조직력도 더불어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제목 **합천군 길거리 주정차 해결방안**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은 인구 5만도 안되는 군으로 경남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개 읍에 17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합천읍은 인구가 1만2천도 안되는데 주정차로 인한 차량 주정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합천읍 시내에는 거의 편도1차선 도로로 인하여 길가에 차량 주정차시 차량이동에 상당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합천읍 상가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신설 및 확장하여 도로에 차량이동을 원활히 하는 목적이며 향후 상가 및 주택등 주차장 신설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합천의 땅이 넓은 이점을 살려 외국사례처럼 주차장이 있는 상가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합천읍 상가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정비는 2년이내로 완료 될것으로 예상되면 15억 정도 예상됩니다.

넓은 땅의 이점을 살려 향가 상가 및 주택 건설시 밀집외곽쪽에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한 상가및 주택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제목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

지역

충청남도

■ 현황

신창면 읍내리 외국인(고려인) 집단유입으로 지역문제 발생, 초.중교 의무교육에 따른 외국인 아동센터 건립 필요

(우즈베키스탄 등의 고려인 아동 : 미취학아동 포함 150여명)

■ 필요성

해외근로자 부모들이 취업중이라 아동 방치 및 교육 무관심

학령아동(중도입국)이 한글을 몰라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탈선 및 범죄노출 우려와 아동들의 귀화에 따른 지원방안 모색

□ 건의사항

현재 진행 중인 신창면 다문화 프로젝트를 아산시에서 주관하여 추진 (신창과 둔포 지원 필요) 아동들의 한국생활 적응과 한글교육을 위한 외국인아동센터건립 지원이 꼭 필요함.

제목 **열린주차장 공약 제안**

지역 **울산광역시**

현재 노후 아파트들은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2중 주차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아파트 인근 도로까지도 주차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도로에 주차를 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점은 상당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량의 대기열로 인해 인근도로까지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주민의 민원 또한 상당한 골칫거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노후아파트 주차난 개선방안(열린주차장)

- 현재 각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안중 하나로 각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야간시간때 혹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인근주민이 활용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전연도 기준 18개 학교와 약정을 체결하고 3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학교당 최대 2000만원 정도 주차장 노면 보수 및 CCTV 설치 등 주차장 시설개선공사를 완료 후 열린주차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18개 학교기준으로 사업비도 저렴하고 인근 주민들 또한 매우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05004196>

비용 : 시/구비, 국비지원

□ 삼산동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입니다.

- 현재 삼산동 공영주차장은 마치 지옥과 같습니다. 평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주말까지 주차장 인근은 마비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방안은 마이애미에 위치한 주차장입니다. 거주자와 방문자를 위해 쇼핑, 식사, 주차를 겸해서 만들면 좋을것 같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분위기의 현대적 컨셉의 주차장을 만들어 남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치상으로 봐도 남구 공영주차장의 위치는 매우 좋습니다.

상업지역 및 디자인거리와 연계하여 1,2층 외관부는 상가로 운영하고 3,4,5층은 주차장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차장부지에 상업지역을 혼용하여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맹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상 문제는 행정상에서 풀어낼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조명의 역할을 주어 분위기와 공간을 연출하고 도시적인 미를 생각한 건축물 및 주차장을 운영한다면 타지역에서도 본받아 운영하는 모범사례가 되지않을까요?

* 마이애미 열린주차장을 검색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비용 : 상가에서 나온 임대수익료와 주차장 수익을 건물 운영비로 활성화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민자투자도 생각해보았지만 아마 뛰어들 업체가 선뜻 없을듯 하여 시/구비, 국비지원, 민간투자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복지혜택알림서비스

지역 대구광역시

□ 제안 이유

복지서비스가 누구보다 필요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의 경우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거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주요 내용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지신분들의 정보를 취합하여 해당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복지관련정책이 시행될 때 유선이나 해당정보가 담긴 문서를 배송하면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분들도 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함께 누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소요 예산

기존 주민자체센터 직원분들이나 공익분들을 활용하면 되기에 직원분들의 추가수당 혹은 공익인원 보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만 발생합니다.

□ 재원조달방법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에 특별히 따로 재원조달을 할 필요성 보다는 공익근무요원 인원 추가 등의 해당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고 있다.
- 출산 후 5세 까지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다둥이 세대의 연말정산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저출산의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아이 하나도 낳지 않거나 낳아도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는 현재 젊은 세대의 생각과는 정부의 출산 정책이 괴리가 너무 크다. 세대가 갈 수록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 자식이 장성하여 대학에 입학 할 경우 부모세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자식의 대학 학비, 결혼비용 등을 감당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모 세대의 노후 생활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이에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둘째아이 출산때 부터 혜택이 집중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실례로, 둘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 등을 보조할 수 있는 정책, 대학 기숙사 배정 우선권 부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 관련 가산 점 부여 등의 중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차공간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과 임신부 전용 주차공간이 되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도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신부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형마트 종합병원 주차공간을 보면 교통약자 주차공간이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공간에 교통약자가 주차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아이를 기르는 시민으로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공간이 멀어질 수록 아이와 주차장을 이동하는 부분에서 많은 불안요소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교통약자에는 일정기준연령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이 동승했을 때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교통약자 전용 주차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게 스티커를 발부해주시고 인증된 차량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보건소같은 공공기관에서 기관직원이 교통약자 배려석에 주차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분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로만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여성과 아동에게 유익한 정책이 많이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는 서천마을이 입주가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기관이 입주하려했던 토지가 이런저런 이유로 용도변경이 되었으나, 아직도 주인을 못찾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수지죽전역 근처에 있는 죽전파크 X게임장과 같은 X게임장을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천마을은 향아리 생활권으로 초/중/고 학교가 1개씩 있으나 학생들만의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교통도 불편하데가 개발 또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 특히 학생들만의 운동 공간을 만들어 주민편의를 확충시켜주시고, 학생들의 체육활동도 확충되었으면 합니다. 위치는 현재 서농동주민센터 건너편 테니스장 앞쪽에 있는 공간을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X게임장이 설치된다면 평일/주말에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여가시설로 활용되면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현황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가구에겐만 종일반 서비스가 제공되고,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 오후 15시까지 맞춤형 보육서비스 및 15시간 바우처가 제공되고 있음.

■ 문제점

맞벌이 가구나 홀벌이 가구나 육아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음.

맞벌이 가구는 자신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고, 홀벌이 가구는 소득을 포기하고 양육에 매진하고 있는데, 맞벌이 가구만 종일반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은 소득 불평등 및 육아 불평등을 초래하는 정책임.

홀벌이 가구의 자녀가 두명인 경우는 출생일로 부터 1년간만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속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두 명인 가구는 1년 후 맞춤형 서비스로의 전환 시 스트레스와 육아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대책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률 증대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 특성별 맞춤형, 종일반 서비스를 구분하지 말고, 모든 가구에 어린이집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목

자녀 수에 따른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 주택 거주 방안 마련

지역

대구광역시

□ 현황

현재 출산율 저하는 개인주의의 영향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 주택 가격의 폭등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 할수 있음.

주택 문제만 어느정도 해결된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결 가벼워져 출산율이 증대할 것으로 생각됨

□ 대책

자녀 수에 따라 공공임대 또는 국민임대 아파트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예를 들면 두자녀의 경우 10년 거주, 3자녀 이상의 경우 20년 거주 등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제목

장애인 맞춤 서비스

지역

대전광역시

저는 한손 장애인으로 왼손으로 모든 것을 하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여러종류의 장애유형이 많고 모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특히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왼손용 키보드는 영국제로 넘 어렵습니다. 쉽게 사용할수 있는 방법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왼손용 보조도구들이 넘 비싸서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손용 드라이, 한손용 포크, 한손용 도마칼 기타 등등 그외에도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표시는 휠체어 장애인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손으로 짐을 올리고 내리고 가방을 들고 내리려면 다리가 장애가 없어도 한손장애인에게는 장애인주차구역이 필요하답니다. 장애인들의 개인적 욕구를 파악해 맞춤으로 지원하고 계획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장애인용 할인 하이패스는 지문인식 때문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야 되는데요 기가 값이 17만원입니다. 비장애인 하이패스는 2~3만원이면 사는데 장애인할인 하이패스 기기는 넘 비쌉니다. 할인 혜택을 주는 건지 돈을 더 내는 건지..

불만이 많습니다. 비장애인은 하이패스는 그냥 지나가면 자동으로 되는데 비해 장애인 하이패스는 지문을 찍고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한손 장애인에게는 이런 경우 넘 불편합니다.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건지 약 올리는건지 분간이 안갑니다. 한손 장애인들은 세세한 부분의 제도가 필요하므로 당사자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 정책이 꼭 필요하고 제한을 줄때는 모든장애인에게 표준으로 주는게 아니라 개인별로 실태를 조사하여 그가 필요한 욕구 조사를 해서 맞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으로도 절약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제목 HPV (흔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불림) 백신 접종
청소년 누구나 무료 접종 **지역** 경기도

자궁경부암은 흔하지 않은 예방 가능한 암입니다. 그리고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HPV 예방접종을 오직 여아에만 한정하여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균은 남성에게 있다가 여성에게 옮겨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방접종은 남성에게도 다양한 남성인병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동영상 참고 <https://www.facebook.com/JTBCstandbyyou/videos/844382425734926/>)

현재 의정부에서는 보건소에서 만 11~12세 여아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기준 만 11세 여아 1,934명, 만 12세 여아 1,822명) 남아에게도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면, 2,040 * 300,000 = 612,000,000 이면 모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큰 예방을 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해주세요.

제목 양주도심을 횡단하는 위험송전선의 지하화 **지역** 경상남도

현재 양산신도시 양주동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인근 4000여 세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양산시민들에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송전선과 20m를 가까이에서 학생들은 수업을 받으면서, 시민들은 생활을 하면서 강한 전자파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지하화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핑계로, 인근 아파트에 송전법이라는 미명 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또한 아파트 입주대표들은 한전에 강 한 지하화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송전선 옆에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중에 두명의 어린아이가 뇌종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두 학생은 현재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고, 송전선과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를 시작을 하면 2000억원정도가 들어간다는 비공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못할 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50프로는 한전이 부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꼭 지하화를 추진해준다는 헛된 공약보다는.

몇년에 걸친 계획서를 만들어서 양산시민에게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몇년에 걸쳐, 돈을 모아서 몇년도에는 지하화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시장+시의원+도의원이 결합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계획서에 진실성을 확고히 해서 이행할수 있게 하였어면 합니다.

제목 양산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지역 경상남도

■ 현재상황

양산은 부산의 인접 도시로, 지하철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산시민과 부산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두 도시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부산은 다자녀(3 명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지하철비를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지하철을 쓰고 있어면서 재정도 양산이 더 좋은 현실속에서, 복지는 그 반대 상황인듯 합니다.

■ 제안

양산시도 출산장려 차원및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도 부산과 비슷한 혜택을 주는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목 부산시 햇살동지 임대주택에 대해

지역 부산광역시

■ 문제점

1. 해당구의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서 입주희망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화기기의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장, 노년층, 취약계층은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의 기회를 놓치므로 다양한 정책 홍보의 채널이 필요함. 또한 모집공고 기간내 신청자가 없을 시 주택의 소유주가 임의로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기간 후 임의로 선정, 제도의 취지를 역행
2. 모집공고를 최소 2회 이상으로 공고하며
 - (1) 해당 동주민센터 주거복지과와 연계해(lh공사의 임대주택공고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알림문자발송되고 있음) 주거취약계층 등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유도
 - (2) 해당 구에 입주자모집시 자치구의 신문공고 (해운대신문 월초 1회 발행)에 주택의 현황을 기재 알림
 - (3) 해당 동에 입주자모집시 통장회의시 주민홍보물인 동네소식지에 기재해 골목 안 곳 곳 게시로 남녀노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알림

제목

공공자전거서비스

지역

강원도

□ 제안이유

1. 원주는 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걸림. 원주는 동마다 이동거리가 짧지만 노선이 다양하지 않고 버스배차 간격이 길거나 혹은 노선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편함.
(예, 단계동-단구동-관설동-반곡동까지 서원대로를 타고 금방 갈 수 있지만 이 길로 운행되는 2-1번이나 16/16-1번의 배차간격이 30분단위로 운영되고 있음. 가장 많이 다니는 51번의 경우 15분단위로 운영이 되지만 시내쪽으로 돌아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음. 그리고 무실동, 행구동으로 운영되는 노선이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함.)
2. 수변공원 등 여러 공원이 생기고 원주천도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주변 주민들 이외 다른 시민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함. 건강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직접 달리며 새롭게 바뀌고 발전하는 원주를 느꼈으면 좋겠음.
3. 2017년 버스파업당시 너무 불편했음 물론, 부당한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해 파업을 한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많은 시민들이 버스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을 목격했고 교통수단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내용

'공공자전거서비스'는 서울, 경기 및 일부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서비스 설치가 늘고있다고 합니다. 원주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개통되기 어렵다고 생각함. 그리고 택시는 잠깐 이용하기엔 요금이 비쌉니다. 그에 비해 공공자전거는 60분에 1000원 30분 초과시 1000원이라는 저렴한 요금이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음) 자전거 대여에 연령을 제한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티머니카드와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택시요금이 부담되고 버스에 발이 묶인 원주시민을 위해 공공자전거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제목 **신혼 예비 부부교실**

지역 **서울특별시**

□ 개요

우리나라는 세자녀 갖기 운동 등 인구 감소대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야 하며 이혼을 막기 위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세계 3위로 1일 평균 840쌍이 결혼하며, 이중 398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행복한 가정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가 나서야 하며, 광역, 기초단체가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건전한 가정을 만들어 봅시다.

□ 현황 및 문제점

여성들의 경제 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가 도태되는 경향이 큼니다. 그리고 이를 방지할 대안이 없습니다. 가정문화차이 예절차이 경제적 차이 성격 차이 이런 것에서부터 발단이 되는데 이를 극복하지 못하니 이혼율이 세계3위라니 경악을 금치 못 합니다. 이를 극복할 대안책을 찾아 나섭시다.

□ 개선방안

이혼한 가정을 반쪽짜리 가정 즉, 한부모 가정이라고도 합니다. 백만 가정이 추산되는데 이런 가정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고 광역, 기초단체가 나서서 막아야합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불행의 싹을 자르는 방법은 신혼예비 부부교실을 국가가 지원하고 광역, 기초가 나서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여성비전센터나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 다문화가정, 예비 신부부는 6개월 과정 교육과정 제도로 운영 합니다.
- 내국인 일반 예비 신부부 3개월 과정 교육과 제도를 운영합니다.
- 건전한 앞날을 위해 미리 연습하는 예비부부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잉꼬부부처럼 사는 방법을 가르쳐서 이혼에 대비하고 건전한 가정을 가꾸어 가도록 뒷바라지 하도록 합니다.

■ 기대효과

- 신혼 예비 부부교실을 정부 광역 기초단체가 나서 제도를 만들어 주고이끌면 이혼율이 대폭 줄 것이다. 또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잘 가꾸어갑니다.
-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지게 됩니다.
- 가정이 파탄나지 않는 튼튼한 가정의 초석을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건강한 가정이 대한민국에 많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신혼예비교실을 운영을 높이 평가 받고 파탄에서 미리 예방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할 것입니다.

제목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주부 일자리 창출

지역

서울특별시

■ 제안배경

-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지역사회
- 유일한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의 중심인 경로당(마을회관)은 청소, 말벗, 외출동행 등 곁에서 도움이 절실한 노인분들이지만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까운 곳에서의 지원이 아쉬운 상황
- 지역내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기 힘든 주부들이 많으며, 그중에서도 다자녀 가정의 주부는 아이들 교육비 마련에 고심이 많음
- 따라서 파스한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일자리가 절실한 다자녀가정의 주부를 연계한 모색 필요

■ 제안내용

- 목적 :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다자녀가정 주부 일자리 창출
- 개요 : 각 경로당(마을회관)에 노인을 돌보는 돌보미를 배치하여 주부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사회 대비 제안

- 구성 인력 : 일자리가 절실한 계층(지역 내 다자녀가정 및 저소득가정 주부)
- 시행방법 :
 - 관내 경로당(마을회관) 실태 조사(어르신들의 이용률, 불편한 점, 필요한 점 등)
 - 동네 개별자체적으로 도우미나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동작업장 운영을 하는 경로당은 제외 대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으며 경로당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률이 저조 및 운영개선이 필요한 경로당을 선별
 - 해당 경로당이 있는 동네별 경로당 노인돌보미 희망자 모집 및 선정(다자녀가정·저소득층 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 주로 낮시간대(오전 10시~오후5시 정도)에 경로당 청소, 말벗, 외출동행, 불편 및 안전관련 해당 지자체 건의 등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지원하는 업무 진행
 - 몇 곳의 시범적운영으로 노인분들의 만족도를 토대로 점차 관내로 확대

기대효과

- 도움이 절실한 노인분들과 일자리가 절실한 다자녀·저소득층 주부들이 서로 윈-윈 효과(주부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사회 대비를 동시 만족)
- 노인분들을 잘 알고 세심한 주부들은 현재 노인분들의 삶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층으로 매치가 됨.

제목 **어르신 친화적 프로그램 제공방안**

지역 **대구광역시**

제안개요

가족이 있는 노인들은 가끔 여행의 기회가 있으나 혼자 사는 노인들은 여행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답답한 방 안에서만 지내거나 동네 이외에는 나들이 기회가 없는 노인들에게 지자체에서 단체 효도 관광을 시켜드리면 노인들이 많이 기뻐하고 또 정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다고 생각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식사대접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며 가벼운 소풍이나 여행 등을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실제로 독거노인들이 꽃구경이나 관광 등을 많이 희망하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은 모시

고 여행갈 사람이 없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없는 실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안전을 위한 보험과 예산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1.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효도여행 프로그램을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하되 각종 단체의 예산과 인력을 협조 받아 진행하되 또한 일부 중고생들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운영합니다.
2. 노인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당일 여행 또는 1박2일 등의 여행 등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 기대효과

1. 외로운 노인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학생들에게는 효도하는 경험과 의미있는 자원봉사를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효도의 도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목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교육, 신문해계층 교육

지역 광주광역시

■ 제안이유

노인문제 중 가장 1위는 치매극복이며, 치매는 예방이 최선인데, 치매걸린 후 극복에 엄청난 자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치매의 근본원인은 문맹으로 자아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문해교육(문자해득+생활기능교육)이야말로 치매 발병률을 대폭 줄이고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로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 등도 해소 할 수 있기에 제안드립니다.

■ 주요내용

문해교원 교원연수를 받은 인재들을 활용하여 각 노인정에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으로 문해교육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방법

매 주 2~3번 2시간씩 경로당에 찾아가서 교육 / 시골은 농번기때 바쁘므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계획

□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비 : 책상, 책, 공책, 필기도구, 수업관련 보조자료 등

□ 강사운영비

시간당 3만원 (기관별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 의견 조율필요)

□ 재원조달방법

각 구청 주민자치, 평생교육, 보건복지과 / 시 치매센터 / 보건소 / 시 평생교육센터 연합으로 지원

□ 확대방안

신문해계층(다문화, 새터민 등)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 **거리에 차량이 없는 지역구 만들기**

지역 **경상남도**

마산회원구는 지역이 평지이고 아파트가 많으며, 새로운 개발지역으로서 미래의 중심지역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기에 도로 및 거리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공용 주차장 및 주택허가시 더욱 강화된 의무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거리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징계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1. 차량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로 주정차비용 및 이에대한 분담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는 의식교육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원구 면허 소지자들은 차량운행및 거리에 대한 행정적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1년간의 제도기간을 통하여 교육을 철저히 하고 향 후 주택 및 아파트 건축시 반드시 차량 주차공간 할당 의무를 두어 의무공간이 넘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별도 공용 주차장을 활용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현실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명확한 주차 라인을 만들어 시행

하고 쓸데없이 도로폭을 확장하지 말고 차량 이동공간 확보만 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도로 폭이 넓으니 차량을 막무가내로 주차하는 현상이 발생)

4. 창원의 자전거 주차공간 처럼 자동차 주차공간도 무인화 하여 이를 자동으로 통제하도록 시행 해야 합니다. 무인화 관리방법은 일본만 하더라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다른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아도 분명히 가능할 것입니다.

제목 **청년들을 위한 공간공유 정책**

지역 **대구광역시**

▣ 현황 및 문제점

- 대구 지역 청년들끼리 모여 간단한 회의를 하거나, 취업 준비로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을 하려 해도 모임 공간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공공기관의 빈 공간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아직도 미비하고 그런 공간들이 대구 지역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대구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과 정주여건 부실, 문화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역외로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실업률 증가 및 낮은 고용률 등 날로 심각해지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에서 청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공간공유 정책’ 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역 청년인재 역외유출 방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대구에서 지역 청년들이 편하게 모여 다양한 취업스터디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개방된 공간을 담은 공유지도를 제작한다면 청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공유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개선방안

- "청년들을 위한 공간공유 정책"이란 대구 지역 내 공공기관들의 여유공간을 파악하여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공유하고 대여 가능한 공공시설들을 지도로 제작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대구 지역의 청년들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가까운 공간자원을 공유하여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구지역 만에 청년커뮤니티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 예를 들면 청년들의 각종 회의, 모의면접 및 프리젠테이션 공간, 동아리 활동 등 청년만의 모임공간이 필요할 때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공간공유 지도를 통해 청

년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유희공간을 개방해나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16개 주민센터와 도서관, 관내 복지관, 대학교 등에 공공기관 공간공유 지도를 비치하고, 아울러 시청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PDF 파일로 업로드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 홍보를 강화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보다 활성화 될 것입니다.

- 일단 시범적으로 대구시의 공공시설과 기타 유희공간 개방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책자형 리플릿으로 1천부를 제작합니다. 청년들이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과 구청을 비롯한 25개 공공기관의 50개 공간의 이미지와 수용인원, 전화번호, 주소, 면적, 대관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수록해 놓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시설 이외에 지역 내 민간 자원시설도 전수 조사 뒤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청년들의 편의와 더불어 주민들의 편의도 더해질 것입니다. 또한 주민센터·복지관·도서관·청소년문화센터 등을 확대 개방해 운영하면서, 다양한 청년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작된 공간공유 지도는 수정하고 보완하며, 계속해서 개방 시설을 추가해나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관심과 반응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다면 시청 홈페이지에서 예약시스템을 만들어 장소를 빌릴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선택하고 이용시간을 예약하면 해당기관에서 대관 여부를 알려주게 되고 민간시설은 전화로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유희공간을 선정하여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상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일자리카페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청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반적인 취업 준비방법을 알려주는 ‘취업상담’, 입사지원서와 면접·이미지컨설팅 등 핵심사항을 알려주는 ‘취업클리닉’ 부터 ‘진로·직무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취업특강’, ‘모의면접’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대효과

- 먼저 대구지역 공공기관들의 유희공간들을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청년에게 항상 열려있는, 청년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대구시가 청년들의 도시로 새롭게 발돋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인재 역외유출 방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대구지역 청년들이 편하게 모여 다양한 구직활동과 취업스터디 모임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며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또한 대구시는 청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청년들이 창업, 프로젝트 활동, 스터디모임 등 활발한 구직활동을 대구시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취업이

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를 공유하고 새로운 청년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 톡톡 튀는 청년정책 하나로 손쉽게 대중매체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SNS입소문으로 이어지면서 대구시에서 준비한 청년정책의 홍보효과는 두 배 세 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구지역 청년들의 관심과 애정은 물론 청년을 잇는 관계망에서 도심 재생을 위한 공유경제 실천으로 대구지역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목 **공동육아방 개설 및 운영**

지역 **서울특별시**

▣ 정책 제안 개요

노원구는 서울시 내에서 출산율 1,2위를 다투는 구입니다. 그럼에도 출산 및 육아에 대한 혜택과 지원이 그리 다양한 편은 아닙니다. 노원구의 출산율을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기와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인근 지역인 중랑구에서는 총 9 곳의 공동육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도 올해 초 한 곳, 2019년 한 곳 개설을 목표로 공동육아방을 준비하고 있지만, 노원구의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엔 두 곳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거창하게 새로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각 동의 주민센터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당선 후 1년 이내)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 공릉동에 각각 한 곳씩만이라도 공동육아방을 개설한다면 구 내의 부모들과 영유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책의 목표

공동육아방 개설 및 운영은 육아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노원구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구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인가?

저출산 문제는 구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만큼 공동육아방 개설 및 운영을 비롯한 육아, 출산 관련 정책들의 우선순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는?

각 동별 공공시설 내 유휴 공간을 확인하고, 공간을 확정된 후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을 마쳐야 합니다. 이용 대상 영유아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완구도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육아방 운영 방식을 봉사자를 활용할 것인지 상시 직원을 배치할 것인지 결정한 후 채용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채용 절차를 거쳐 직원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 정책 완성의 기한은?

건물을 짓지 않고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다면 인테리어 및 필요 물품 구입, 직원 채용(봉사자 모집)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공동육아방 한 곳당 개설까지 최대 1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책을 위해 드는 재원은 얼마이며, 자원 조달방안은?

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초 개설 예정인 상계 공동육아방에는 약 7억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각 공동육아방의 규모 조정한다면 소요 예산은 공동육아방 한 곳당 6억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자원 조달은 구 자체 예산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예산 등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제목 **부모사랑휴가 제안합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 제안이유

서울시의 70세 이상의 인구는 14%이상으로 점차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검진, 병원진료 및 노인 우울증 등 문제가 많아지면서 부모 또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하나 자녀들(미혼, 기혼 모두)이 항상 개인휴가를 쓰면서 부모님을 돌보는 어려움(본인 자녀들을 돌본다던지, 회사 업무가 많아 휴가를 쓰는게 눈치가 보이는 등 여러이유)

❑ 제안내용

만70세 이상 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있는 직장인은 부모의 병원진료, 건강검진 등에 동행하기 / 지방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기 / 부모님과 여행가기 등 부모님을 다방면으로 돌볼 수 있는 부모사랑휴가 도입을 제안함

▣ 정책의 효과

부모님의 병원진료시 모시고 가는 자녀나 부모님의 심적 부담(자식에게 피해를 줄수있다는 걱정 등)이 줄어들며 적절한 진료를 통해 건강을 지킬수 있음.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어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노인우울증을 예방하고 가족간 소외감해소 가능, 자녀도 부모님께 더 관심을 갖을 수 있음

▣ 휴가일수

자녀돌봄휴가와 비슷하게 책정하여 연 2일정도 부모사랑휴가사용시 증빙할수 있는 간단한 서류(병원 동행시 병원진료 영수증, 여행시 항공권이나, 부모님과 함께 찍은 여행사진 등)를 제출

제목 길고양이 급식소 확충을 제안합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 제안이유

이제 봄입니다. 겨울 내내 집 안에서 추위를 피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집 밖을 나서듯 길고양이들도 이런 따뜻한 계절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길에서 보이는 고양이들의 숫자도 늘고 아기고양이를 키워야하는 어미고양이들은 먹을 걸 찾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뒤질 것 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과 불쾌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불쾌함을 무섭도록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작은 생명들을 때리고, 차고, 죽이면서 말입니다. 때로는 이 생명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같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끔찍한 불행의 씨앗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길고양이 급식소' 입니다. 급식소의 이점은 여러가지입니다.

배고픈 길고양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거나 쓰레기 봉투를 찢는 일이 줄어 이와 관련된 민원 역시 줄어들겁니다. 환경 미화의 효과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줌으로서 오히려 그들의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길고양이의 개체 수가 늘어남을 방지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TNR)' 을 시도하기 쉬워집니다. 길고양이들은 보통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심하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위한 포획이 어렵습니다. 포획이 어렵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력과 예산은 낭비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급식소라는 한 장소에 길고양이들이 몰려들면 포획은 한결 쉬워집니다.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길고양이들을 정기적으로 케어해주는 '길고양이 쉼터' 까지 바라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일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에 당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의 확충을 제안합니다. 구청과 주민센터 근처에서 시작하는 것이 관리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소의 긍정적 사례로는 '강동구' 의 정책이 있습니다. 구청 내에 동물복지팀을 따로 꾸려 관리하는 걸로 압니다. '서대문구' 역시 사례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온라인에서 길고양이 관련 지역 카페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곳에 게시는 캣맘, 캣대디들과 함께하면 더 빠른 일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소요예산

인터넷에서 참고한 자료이기 때문에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 자치구별 길고양이 예산을 확인해보니 강동구에서 진행되는 길고양이 사료, 급식소 예산이 2500여만원입니다.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은 소요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재원조달방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사료가 큰 비중을 차지할텐데 사료업체, 혹은 고양이 보호 협회와 후원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식소 관리나 사료 공급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 끝으로

동물복지는 생명의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에서, 구에서 나서서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이들을 낯설어하던 시민, 구민들 역시 자연스럽게 그 행보를 따라갈 것입니다. 이미 척박한 땅을 일구고 있는 개개인이 많습니다.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자란 제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실내 문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지역 경상남도

❑ 공약 제안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등 실내 문화공간 확충 .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 시민입니다. 서울에서 살다 거제로 이사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잘 볼 수 없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반해 무척 애정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여름과 겨울같이 야외활동이 힘든 시기에 갈만한 곳이 적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만..

거제 역시 타지방과 다르게 지역 특성상 아이를 키우는 집이 많은데, 아이들과 함께 실내에서 보낼 수 있는 곳이 적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거제에 규모있는 박물관이나 과학관 또는 미술관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거제는 조선업과 관광업이 주수입원일터인데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등 실내 문화시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거제의 명소가 된다면 관광사업이 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타지역이 아니라 거제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부디 이 공약을 실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임산부를 위한 공약 제안(임산부 전용 택시)**

지역 **충청남도**

■ 제안이유

천안은 교통이 대도시처럼 짜임새 있게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길을 돌아서 가는 경우도 많고 배차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하철 또한 비슷합니다. 버스보다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 천안에 여러 아파트들이 들어와 교통이 더욱 혼잡해지고 주차 또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임신 하었을 때 교통에 대한 부분이 가장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차로 운전을 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주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를 위한 택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임산부 택시를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느곳이나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는 기사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임산부에게 폭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보건소에서 인증을 받은 택시들이 안전하게 임산부들을 배려해준다면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임산부들 또한 마음 편히 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임산부들에게 진료비 혜택으로 50만원을 지원해주죠. 거기에 더해 교통까지도 그 금액안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0만원 내에서 임산부택시를 이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교통혜택을 늘려 임신기간동안 5~10만원정도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

겠습니다. 재원은 국가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기 꺼려하는 시국에 조금이라도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원 팔달 경찰서 신설 및 치안문제

지역 경기도

수원 팔달 경찰서 신설에 관한 제안입니다.

현재 수원은 4개의 구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수원시 4개의 구 중 유일하게 관할 경찰서가 없는 곳은 팔달구입니다. 현재 팔달구는 수원 서부, 중부, 남부 경찰서가 팔달구 지역을 나누어 치안담당 및 순찰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지동에서 살인토막사건이 일어났고 치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이후 2015년에 경찰서 신설에 관한 인터넷 뉴스기사가 나오고 2017년 범죄다발 지역 팔달구 경찰서 신설에 관한 뉴스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2018년 2월 5일 뉴스기사로 2021년 수원 팔달경찰서가 준공이 된다는 기사가 하나 보도되었습니다.

지동 1000평 매입 및 예산 650억과 시비 100억을 사용해 신설된다고 알려져있는데요.

팔달 경찰서 신설이 너무 늦게 지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원시 팔달구 지역은 좁은 골목길 및 사각지대가 많아 성추행 및 범죄 노출에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역중 하나입니다. 2012년 2014년 공중파 뉴스에 보도 될 만큼 굵직하고 큰사건, 사고가 수원시 팔달구 지역에서 일어났는데요. 여러 신문 및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팔달경찰서 신설이 너무 지연되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를 증설하여 치안강화 및 범죄방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드림장터 활성화 방안

지역 경기도

■ 제안이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소외계층이나 필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안 쓰는 물건을 싸게 팔자는 게 취지를 둬.

□ 주요내용

- 무엇을 : 옷, 장난감, 가구, 서적, 기타 물건 등
- 어떻게 : 한달에 한번 정도 동백호수근린공원, 시청광장, 용인중앙공원과 같은 공공기관 혹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천막을 쳐서 물건을 내 놓고 판매자가 싸게 판매 하는 방식
(기부를 원하는 자:지역 동주민센터에 물건을 기부한 후 마일리지나 포인트, 혹은 봉사점수 받아가기)
(물건을 원하는 자는 동주민센터에서 문의 후 물건 받아가기)
- 언제까지 : 동주민센터에 사전접수를 하는 데 그 건수가 50개 이상일 경우 드림장터를 개최(우천시 연기)/혹 인터넷 카페에서 공공 활성화 하는 방식도 좋음
- 소요예산 : 약 1000만원 이내(현수막, 자원봉사자 간식비, 차비, 설치비용, 공원임대비용 등)
- 재원조달방안 : 시에서 보조, 동백희망연대, 각 사업체 자진 기부 방식 등
감사합니다.

제목

시흥IC광역버스와 연계되는 통합교통시스템을 설립을
요청합니다

지역

경기도

□ 제안내용

시흥IC에는 현재 광역버스 5개노선이 정차하고 있으며, 또한 시흥IC와 바로 인접하는 곳에는 은계보금자리지구와 맞나는 지역으로써 그동안 대중교통의 볼모지였던 시흥교통에 조만간에 대야역 및 신천역이 들어서고 있음에도 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에 시흥IC와 연계될 수 있는 일반버스 및 마을버스의 증대 및 회차지점등을 요청하며, 이교통계획 수립은 단지 은계보금자리지구뿐 아니라 비은계보금자리지구 거주하는 북시흥쪽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신천동일대를 아우리는 교통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시흥IC연계되는 광역승하차장 및 연계노선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주요내용

시흥IC광역승차장과 비슷한 형태의 모델을 뽑으라면 죽전휴게소와 동천역사이의 환승시스템으로 운을 때보고자 합니다. 고속버스에서 하차해서 일반버스 및 광역버스 또는 지하철

로 환승이 가능한 죽전휴게소의 환승시스템은 2016년에 시작이 되면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현재 시흥IC 승하차장에는 5개의 광역버스노선들이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직선거리로 가까운 광명역을 가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연계되는 대중교통사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곳 시흥IC광역승하차장을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한 바입니다.

모든 회선과 버스노선을 내 집앞에 정거장에 오게 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며, 또한 시흥시에 속해있는 시흥교통만으로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흥IC광역주차장쪽에 보다 시설을 확충하고, 소위 북시흥쪽 주민들 계수동, 대야동, 은행동, 신천동 주민을 위시해서 광역버스 및 대야역과 연결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을 시흥IC라는 천혜의 지형과 올6월에 개통되는 소사-원시선내 대야역과의 연계되는 교통시스템은 시흥시의 부족한 대중교통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곳은 자족시설이 바로 인접하는 곳이기에 이러한 광역버스 시스템의 종합적인 교통체계는 자족시설입지면에도 한단계 우수한 접근성으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광역버스회선을 증설하고 잘 꾸며놓은 시흥IC광역버스 승하차장 시스템은 비단 시흥시민 뿐만 아니라 1.5~2Km내외에 있는 옥길, 범박쪽의 시민들에게도 북시흥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것이며, 시흥시의 전체적인 도시개발구상에 중추적인 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재원마련

통합적이고 다각화된 광역버스 시스템 및 연대되는 버스회선들로 인해서 이지역의 선호도는 올라갈 것이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게 될 것이며, 소위 대야역 일대는 시흥시의 지방세 납부가 많은 차세대 거리로 시흥시에서는 인지될것이라 봅니다.

2016년 죽전휴게소와 동천역사이의 환승인원을 2000명을 예상하면서 그 계획을 설립했지만, 이곳 시흥IC와 대야역간의 거리가 더 가까우며, 또한 환승될 수 있는 광역버스 및 연계될수 있는 일반버스들을 감안해 볼 시 북시흥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출입가능한 운동장 및 공원조성**

지역 **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전체 국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반려인구가 늘어간다고 하는데, 요즘 사회전반적으로 애견관련 법제정이나 사회적인 관심

이 많은 상황입니다.그런면에서 반련인구들을 배려한 사업도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의정부의 경우 이런 시설이 미비합니다.제대로된 시설이나 공원의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들의 경우 애견들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 전용 잔디 운동장이 있고, 조성 할 계획을 가진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의정부의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예로 경기도2청사의 잔디운동장의 경우 많은 반려인들의 의견과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하며 제대로된 운동장으로서의 활용 및 쓰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동물들을 꺼려하는 일반일분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며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2청사주변은 광장조성사업으로 한창 공사중인데요.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것 같습니다.가능하다면 기존의 잔디운동장을 다시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해주거나 새로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혹은 사용빈도가 적은 공터들을 활용하는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기간이나 소요되는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검토를 해야하는 부분이라, 언제 까지 마련되면 좋을지는 선뜻 말하기가 어렵네요.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저상버스 확대 운영해주세요

지역 경기도

서울과는 달리 저상버스가 경기도에는 많이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거의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많은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영중입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중요한 수단이자 교통약자인 노인, 어린이들이 탑승이 수월한 버스로 안양시 동안구 뿐만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저상버스를 확대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출퇴근시 이용할때 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승차시 입구의 계단이 가팔라 옆의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기도 하며 노인분들은 무릎을 짚고 힘들에 올라오시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키가 작아 점프하듯이 올라타기도 합니다. 하차시에도 높은 계단때문에 특히 비가오는 날은 넘어질까봐 몇배는 더 조심하면서 내립니다. 버스는 대중들이 가장 자주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상버스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제일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수단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수 있는 버스입니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저상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나아가 일반노선 및 마을버스에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면 계단이 없고, 낮은 차체로 접근성이 수월하게되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 기타 지체장애인, 노인, 아동들의 이동시에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을것입니다. 저상버스를 꼭 확대운영해주세요!!!

요즘 다산신도시 택배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전 빌라에 살지만 가끔 택배를 어떻게 인수할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지요. 집 근처 편의점에 맡겨달라고 하지만 큰박스는 편의점에서 안받아줘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앞 세탁소에 부탁해서 찾아가곤 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조금씩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집근처 기관 및 은행 그리고 공공의 성격이 강한 곳을 선정해서 택배보관함을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합니다. 보관함은 번호기로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보관함 비밀번호는 택배기사와 서로 문자나 톡을 주고 받음 될 듯 합니다. 동별로 10개 정도 설치하고 택배를 받기 어려운 주민으로부터 신청받습니다. 사실 택배받기 어려운 주민들은 한정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민 전체 대상은 아니므로 꼭 필요한 주민에게 혜택이 갈 것이므로 소요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택배기사들의 고통도 덜어주고 해당 보관함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아쉬운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택배거래를 할 수 있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을 듯 합니다. 아울러 기관 및 은행 그리고 보관함을 제공해주는 곳과의 친밀도가 형성되어 더욱 더 화목한 지역사회가 될 듯 합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니다. 현재 노인 수에 비해 일자리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닐까요? 다른 지역에서 진행중이라고 들긴 했습니다만 택배 배달을 정부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택배부스를 설치하고 택배기사님들이 택배를 부스에 배달하면 어르신들이 집으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 어르신들의 체력 문제 : 동네 어르신이 단지 내를 배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활동량이 적은 어르신들에게는 운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배달하면서 이웃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는 좋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분실과 파손에 대한 책임 전가 : 이 문제는 양심의 문제이고, 아파트마다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으며 배달 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좋은 효과만 불러올 수는 없겠죠. 시행하면서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에 원래 예산을 지원하던 곳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받거나, 택배사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지원을 받아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치는 제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네요.

현재 경비원들이 택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으며(업무과중), 택배기사님들의 수고를 덜어 줄 수 있고, 어르신들의 경제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공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인천광역시

국가 보훈 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보훈대상자의 연령으로 인한 차별대우의 개선으로 인천시가 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통해 영예롭고 안정된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요청의견

1. 보훈명예수당 : 65세 이상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하되 예산의범위안에서 년도 별 물가 상승률을 참고하여 상향조정하여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자만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라, 전 연령으로 확대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국가보훈대상자가 세대주로 있는 가정에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 및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3.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
부산 및 경기도에서 많은 곳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항상 국가유공자에 정책이 장애인 및 다자녀에게도 미치지 못한 현실입니다. 서로 “넌 되는데, 난 안되는데” 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이유

의정부의 녹지 환경을 확대해주세요. 의정부는 시민이 일상 생활 속에 누릴 수 있는 근린 공원이 부족합니다. 자전거 도로 근처 시민공원은 노인들이 술 마시는 공간이 되버렸고, 효과 고 앞 상록공원은 애완견의 배변으로 공원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공원 조성을 통해 의정부 시민의 생활 만족도 증진을 도와주세요.

□ 주요내용

의정부에 근린 공원을 만들어주세요. 의정부에는 공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산책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주말이 되면 산책하기 위해 북서울 꿈의 숲, 서울숲으로 소풍을 가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두 공원이 지역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의정부의 녹지가 충분하지 않아 이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의 근린 공원을 단순하게 만들어주세요.

공원은 운동, 산책, 휴식의 목적 등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종합 공간 임에도, 의정부에 있는 공원들은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나마도 좁은 공간에 운동 기구, 농구 코트 등이 있어 기타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의 공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쉼터로써 푸른 잔디와 벤치, 산책로 중심의 단순한 공원이 필요합니다.

근린 공원을 1년 내에 만들어주세요.

최근 의정부는 민락 2지구의 발전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녹양동, 호원동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인구의 순유입은 지속되어 도시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시민의 생활 만족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급히 녹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소요예산

공원의 수, 넓이에 따라 예산은 달라지겠지만, 도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나무, 부지 확보, 각종 시설물들을 구입하는 비용은 최소 3천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 재원조달방안

의정부 시민의 상당수는 녹지 부족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 공동

의 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의정부의 인구는 40만을 넘고, 노인 보다는 중장년, 청년 층이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높은 사회 참여율과 공동목적의 투자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수의 주목을 이끌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공단체와 기업의 관심도 이끌 수 있어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적을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의정부 내에 근린 공원을 조성하여 생활 만족도 증진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복합 문화예술 및 교육 단지 조성**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어르신과 아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비해 교육 및 문화 시설 단지가 별로 없습니다. 창동에 조성되어 있는 공간과 앞으로 노원과 도봉이 함께 도시재생으로 만들어 질 곳 또한 도봉에서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도봉역 근처 예전 성대야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하면 어떨까 합니다. 복합 문화단지라 함은 문화와 교육, 복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시니어와 함께 하고, 경로당 문화를 문화센터 수준으로 올리고, 공원을 조성하고, 지역의 축제나 행사를 한 곳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공간도 함께 조성되어 유아에서 부터 시니어에 이르는 말그대로의 종합 복지타운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 공간조성은 : 전체적으로 원형의 형태로 만들어서 반 원은 한글을 모티브로한 조형물을 공간으로 만들어 사용 배치하여 아이들의 공간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며, 중앙에는 공원과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나머지 반 원은 시니어들을 위해 공간을 조성하여 시니어들의 교육과 운동시설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봉구는 손재주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업사이클링 산업이 인기입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사업을 조성하여 시니어 일자리 창출도 생각해 봅니다.

오랫동안 도봉구에서 자라고 현재도 살고 있으며, 현재는 용산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게 된 것도 도봉구에 사는 저의 지인들과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해서 사회적경제쪽 일을 하게 되었으

나 알아갈수록 하면 힘들어지는 것이 사회적경제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봉구가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아직도 간절하고 도봉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만약 이 제안이 선정이 된다면 세부계획 자료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예산과 도봉구 예산으로 잡으면 될 것이고, 현재 창동과 노원을 연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집약적으로 복합 문화, 예술, 복지, 교육을 한꺼번에 자리한 곳은 어느 구에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제안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마을 공동체(실버) 관련

지역

경상북도

□ 제안이유

독거노인가구 증가와 그 분들의 기본 의식주 및 의료시설 이용시 불편발생 및 지원 부족.

1. 해결방안 : 기존 마을회관을 기준으로한 의식주 공동체 결성.

2. 세부운영방안

가) 공동급식 업체를 활용 식사시간에 급식배달.(현:일부 기업의 경우 배달급식 업체에서 식사 배달)

나) 주기적으로 보건소/사회복지사/간병인등을 활용하여 공동체 이용자들의 건강 체크 및 지원.

3. 자금조달방안

가) 공동체이용자들의 일부금액 분담.

나) 현 마을회관 운영경비 중 일부를 공동체 운영경비로 전환.

다) 자원봉사자 모집.

라) 개인 및 기업후원금.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에만 해도 몇집 건너 한집은 개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해전부터 알게 되었는데 속초의 유기동물보호소는 타지역의 보호소보다 유기동물 입양과 그 관련일에 힘쓰시고 있더군요.

또 속초에서도 벌써 수차례 반려견, 반려동물 축제를 진행해온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게된게 2011년부터니 꽤 되었네요)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살기 좋은 속초에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개는 리드줄을 하고 산책을 해야 하지만, 리드줄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뛰어놀기도 해야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법은 실외에서 개의 목줄을 풀면 아니된다 합니다 몇몇 곳을 제외하구요 (반려견놀이터, 공원 등) 물론 실외에서 개의 목줄(리드줄)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개와 사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니까요. 그렇기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돈을 써서라도 반려동물공원이나 놀이터, 펜션 등을 찾아가 개를 풀어놓고 뛰어놀게 합니다.

하지만 속초엔 그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애견카페에서 뛰어놀면 되지않냐 하신다면.. 그건 제 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겁니다) 반려동물관련하여 시에서 여러차례 행사도 하는데... 반려동물 놀이터가 하나 없다는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이건 마치 나지도 않는 특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것과 다름없어 보이네요..

반려동물관련 행사를 위해,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거창하게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도 좋고, 아주 넓지 않아도 좋습니다. 흙과 풀이 있는, 개가 뛰어놀만큼의 크기의 땅에 개가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펜스만 둘러주셔도 정말 감사할겁니다. 개도 사람도 안전하게 마음놓고 놀수있는 그런공간 하나만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동물관련법때문에 반려인과 비반려인간의 불화가 큰 요즘 아닙니까...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해서도, 비반려인을 위해서도 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것처럼 큰 공간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거창한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구요.. 서로간에 안전을 위한 안전펜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계획된 것인지 모르지만 타지역에선 여기저기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놀이터 등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속초도.. 이번 기회에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하나 조성해주시면 안될까요..?

반려동물로 인해 서로 다투지 않고, 눈치 안보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속초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경북 청송군 현서면에서 평생을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계십니다. 저희 친정 동네에는 현재 60대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중 절반가량이 무릎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작년에 두분 다 무릎연골이 닳아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촌의 모습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 활성화 되어 운영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 청송군 지역에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이라고 해서 꼭 청송에만 운영되도록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는 막대한 자금이나 자원이 필요하겠지요. 건강 관련 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설립, 운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만큼 훌륭한 시설이나 굉장한 사업은 아니더라도 소규모의 운동시설이나 운동트레이닝 정도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농사일 하시고 어깨나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시지만 늘 참으시지요.

참다가 통증이 심해지시면 의원을 찾아 진통제만 받아드시고 좀 더 심하면 통증 주사나 연골 주사만 맞으십니다. 버티시다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무릎수술을 받으셨지만 한동안 제대로 못걸으셨더니 허벅지 근육이 쑥~ 빠진 상태라 걷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근력운동을 좀 하셨으면 그정도는 아니셨을텐데..

마땅히 물리치료나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농촌지역에 작은 규모이나마 교육과 운동(재활치료)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젊었을 때 열심히 농사일하고 이른나이에 무릎수술을 받으셔야 하는...그런 슬픈 일은 줄어들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농어촌 면단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또는 유사한 소규모의 센터가 확대 운영될수있기를 건의드립니다.

제목 자원봉사자의 보험혜택

지역 인천광역시

전 현재 모기관에서 9개월째 정기적인 봉사(주 5일 또는 주6일 일정 시간)를 하고있습니다. 전에도 복지관이나 다른 시설등에서 비정기적으로 봉사를 했었습니다.이런봉사를 하다 문제는 다칠때입니다.가볍게는 대일밴드 붙일정도로 경미할때는 문제가 안되지만,엑스레이나 MRI까지 찍어야할때등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할때 그 치료비에대해 말이 전혀 없네요. 내 일같이 열심히 하다 다쳤는데..이젠 여기 봉사도 예전처럼 열심히 하게 되지 않게되고,이젠 그만해야되나 싶고..

같이 일하는 봉사자들도 제가 본보기가 되서인지 ..봉사하다 다쳐도 치료비조차 받지못하니 몹사리며 일해야한다고들 말합니다.

선진국처럼 봉사가 일상화가 되려면..봉사자가 즐거워야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내서 받게되는 보험말고..봉사하다 받을수있는 산재보험같은것도 있으면 합니다.

제가 봉사하는 센터만 없는걸까요.

제목 할마, 할빠를 위한 서비스

지역 인천광역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황혼육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아이를 맡아 키우는 조부모도 가끔 힐링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 조부모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싶다..

아이 돌보는 조부모님을 위한 문화체험 또는 관광등을 단체 또는 개별로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등 맞벌이 가구 또는 일반 가구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은 많이 하지만 조부모를 위한 서비스는 찾아 볼 수가 없다.

황혼육아는 늘어나지만 정작.. 지원되는 서비스가 찾아보기 힘들고.. 저출산율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으면서 믿고 맡길 누군가가 있다면 아이를 낳는 사람도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황혼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그 얘기가 입소문을 타거나 지원되는 정책을 보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제 생각을 예로 들자면.. 조부모에게 일정 월급 또는 바우처를 지원하여 의료기계 또는 병원비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다..

지난해 결혼하면서 느낀점이 많아 공약을 제안합니다.

- 다른지역은 구청 강당등을 대여해서 의미있는 결혼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에서는 그러한 정책이 없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구청에서 결혼을 한다면 나름의 의미도 있고, 절약해서 결혼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따로 재원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주말에 강당을 일정금액을 받아서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부탁드립니다.
-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정책 및 육아지원 정책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 및 육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따복하우스 처럼 인천에서도(구의 정책보다는)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문제에 관해서는 남동구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육아시설 및 서비스가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희생자 비율통계표를 보면 여성의 %를 언급하기도 민망할만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프프로그램에서 여성들의 안전을 다룬적이 있습니다.'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제목으로 나간 이 영상은 여성들이 겪고있는 범죄, 그리고 언젠가 나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마치 평범한 곳에 머물다 갑작스레 이상하고 괴이한곳에 가게된 '앨리스'에 빗대어 표현한것아데 이 방송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성희롱,성추행부터 시작해서 트라우마까지 남을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아마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과 어린이들은 '나도 당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과, 또,1번쯤은 '그런일'을 겪어본적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이런사회에 우리 아이들을, 딸들을, 엄마와 언니들을 방치해둘순없습니다.

오로지 여성만이 운전할수 있고, 여성만이 탑승할수있는 '여성전용택시'. 평소 여성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시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데,그 중에서도 '택시범죄'는 가장 흔하게 일어나면서도, 예방책이 최우선인데요, 그로인해 '여성전용택시' 방안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이 방안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크게 활용될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운영방안

1. 운전자는 3~60대 현재 무직이며 운전면허소지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아직 초반이기에 최종합격자수는 20명이고 운전실무, 국영사 이 3가지 과목을 간단히 보고 면접까지 보고 결정합니다.)
2. 운전자분들은 재직 중에 공무원과 똑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일할 수 있는 기한은 2년, 다시 응시가 가능한 시간은 3년 후 입니다.)
3. 운전자마다 개인 call 번호를 부여.
4. 택시마다 '지문인식기'를 부착해 심야에 전화를 받고나가면 지문을찍으니 심야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함. (심야운행시 요금은 약 3,000 원이 더 부과되고 운전자는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방안은 여성들의 '안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만,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도움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소요예산은 인력비,재원소요비,수당비등을 합해 17(총 지역 수)×20(지역당 운전자수)=340, 340명×150(운전자들 기본급)=510,000,000 정도이고 택시는 중고차매매에서 값싸게 구입하면 될 것입니다.

□ 자원조달방안

쓸데없이 쓰이는 예산 줄이고, 기업들 수익률에 따라 세금 더 걷고, 현재 남북한에 오가는 분위기를 보면 통일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되면 자연스레 국방비예산이 줄어들 것이고 그 예산이 쓰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위에도 썼듯(물론 대략적으로 가늠하여 추정한 것이지만) 인건비는 지역마다 20명밖에 되지 않으니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직인여성들 그리고 아주머니들도 2년이나마 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일하면서 수익도 생기니, 이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제목

대구 10畝 타운을 만들어 지역의 음식 우수성을 알리고
대구를 홍보하자

지역

대구광역시

□ 제안이유

대구에는 십미라고 대구만의 특색있고 맛을 가진 파로국밥, 납작만두, 찜갈비, 무침회 등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메뉴들이 있다. 그러나 회타운처럼 한곳에서 대구음식을 보고, 느끼고, 먹어볼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외식업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음식을 한곳에서 맛볼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대구를 알리고 지역 외식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위치

대구시에는 서구 서대구 ktx역사 건립을 위해 금년 착공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역사내 또는 서대구ktx 역사주변에 공공사업 진출물을 건립하다면 상호 시너지효과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다.

□ 건립재원

서대구ktx역사건립시에 대구시에서 설계에 반영한다면 충분할 것이고 또한 역사와 연계한 공공청사건립은 아주 작은 비용으로 가능할 것이다.

□ 운영방법 및 효과

대구십미업소 중에서 입점을 시키고 임대료를 저렴한 공급한다면 대구음식의 우수성 널리 알리고 대구홍보에 효과 극대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목 저출산 정책 해결은 작은 불편함 해소부터

지역 서울특별시

□ 제안이유

맞벌이부부가 많고 아이를 돌봐주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아져 돌봄교실 등 국가와 학교에 아이를 돌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음.

전적으로 아이는 부모가 길러야 함. 그러나 직장생활과 육아를 양립해야하는 부모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때문에 직장에 빠지거나, 노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게 됨.

아이를 상시 돌보아 줄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부족함. 상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은 점차적으로 늘리고 불시의 상황에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불시의 상황이 생길것을 우려하여 출산을 얹하려고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부부에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으면 좋겠음.

□ 주요내용

영유아 ~ 초등학생까지 월 1회 (최대 연 12회)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간은 (1회 시간은 1시간 ~ 8시간 이내)

▣ 자원조달방안

시간당 12000원씩 부모가 돌봄기관에 전달. 아이간식 및 식사는 부모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로 준비 후 전달. 월1회 최대 연 12회의 횟수가 제한적으로 있으므로 피치못할 불시의 상황에만 아이를 맡길 수 있음.

시간당 12000원씩 부모가 돌봄기관에 전달하므로 돌봄교사의 급여와 운영비를 충당하여 센터의 운영이 원활할 수 있게되고 부모는 비용을 지불하여도 믿고 아이를 잠시동안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곤란한 상황에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것임.

예를 들어 애견을 돌볼 수 없을 때 애견을 맡아줄 수 있는 애견호텔에 맡기는 애견가들이 많음. 우리아이들을 불시의 상황에서 맡아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부모들이 더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도 그 외의 불시의 상황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확보됨으로 노부모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을듯.

제목 분리수거대 의무 설치 제안

지역 대구광역시

20대들이나 직장인들이 원룸촌에 많이 살고있습니다. 저 또한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함께 사는 건물은 쓰레기 관리를 잘하는거 같은데 제가 살고있는 곳은 주인 없이 입주자들만 있는 건물입니다. 상식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쓰레기를 버리고 페트병이나 종이는 따로 모아서 버리고 해야하는데 원룸촌은 무법천지인거같습니다.

먹고 버린 치킨박스라던가 음식물이나 깨진 유리병이나 페트병 등이 나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책감없이 불법투기를 하고있고 건물주는 쓰레기 배출에 대해 관리가 소홀합니다.. 혹여나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미화원 분들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극한 직업이 환경미화원분들이 아닐까요?

그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사설업체가 사서 넓은 공터를 대여하여 그 곳에 쓰레기를 몇십톤이나 쌓고 잠수타고 그 땅 주인은 속수무책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보면서 든 생각은 아마 저 쓰레기의 절반은 원룸촌에서 내보내는 쓰레기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주인이 그저 월세만 받아 챙기고 전혀 원룸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원룸 건물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의무적으로 분리수거대를 설치 하도록 의무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에 불법 쓰레기 투기해서 걸리면 당사자도 벌금을 내고 해당 건물 주인 또한 책임을 부여하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고 정도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 공용자전거 피프틴으로 인한 자전거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덕양구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적습니다.

차도의 경우에는 자전거가 제일 오른쪽 차선의 끝으로 다녀야하지만 자전거의 속도는 이에 적합하지 않으며 자전거 겸용 인도의 경우에는 자전거가 통행 가능한 곳이라는 인식도 적어 보행자와의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도 불법주차와 장애물로 인해 통행이 어렵고 도로가 갈라져 있거나 뒤틀려 있는 경우도 많으며 도로 사이에 자전거 횡단보도가 적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국로(화정~원당)는 자전거도로가 마련은 되어있으나 차량의 주차가 빈번하고 갈라져있거나 심하게 울퉁불퉁하기도 합니다(특히 차도로 인해 끊겨있는 부분)

이에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정비가 필요하며 자전거 이용 가능 도로에 대한 안내나 표지판 등이 증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이유

- 고령화로 1인가구(독거노인) 증가추세. 대부분 주거형태는 반지하, 쪽방, 원룸으로 주거형태도 취약함.
- 은평구는 특히, 빈곤 독거여성노인이 많음. 대부분 폐지수집과 정부지원으로 생계유지함.
- 치매노인인 경우도 많고, 주거상태 열악함.
- 은평구지역의 동네별 재개발로 이러한 노인들이 부득하게 이주, 이사시 그에 대한 지원과 돌봄 필요. (이사업체, 이사집정리, 이사회 생활 등등)
- 재개발지역이 독거노인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음.

□ 주요내용

- 지역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으로 이사업체) 육성하여 복지서비스로 제공
- 독거노인 이사서비스 전과정 지원 (찾아가는 동복지체계와 연계)
- 도배, 장판, 침구 등 지원

☐ 소요예산

1가구당 300만원 내외

☐ 재원조달

- 중앙정부지원(찾동)+ 지자체+ 사회적기업육성지원기금 + 기업후원(이사업체, 직방, 다방)금 등등

제목 학교에서 마스크를 지급해주세요

지역 광주광역시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계속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다고만 합니다. 봄에는 매우 나쁨이 일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마스크를 지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마시면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평생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꽃가루까지 날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자제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건강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마스크를 지급해주세요.

제목 저희 부여군을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보시는것이 어떻겠습니까 후보자님

지역 충청남도

안녕하십니까 후보자님? 저는 부여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또한 부여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부여군이 보다 더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규암면에 있는 전통대에 다니고 있기에 부여읍내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는 합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어르신들도 자전거를 애용하시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읍내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불편함이 상당합니다. 당장 자전거를 거치할 거치대를 찾아보기가 힘들며, 도로가 협소하여 자전거를 타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자전거를 거치할 곳이 없어 가로수 등에 자전거를 주차하면 통행객의 이동에도 방해가 되며 외관상으로도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자전거 배치대를 만들면서 공기주입기 등도 같이 배치해 주신다면 지역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 도시 외관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전거는 지역민들의 편의를 넘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저희 부여군은 세계가 인정한 관광도시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저희 군을 방문해 주십니다.

저희 부여군, 자전거를 이용한 친환경 관광도시는 어떻겠습니까 후보자님?

저희 부여군은 주요 관광지들이 몰려있는 양상을 보여 자전거로 관광하기에 매우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여 읍내의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외국인, 내국인 관광객들이 저렴하고 쉽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군 차원의 자전거 대여소를 만든다면 지역 경제 수입에도 이바지 될 것이며 보다 더 특별한 관광명소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와 함께하는 백제 고도 여행은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후보자님? 이미 신라의 고도였던 경주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역 관광산업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경주시에 절대 뒤지지 않는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도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만 조성해 주신다면 군 차원에서 상당한 이미지적,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로 인해 더욱 세계 속에서 굴기하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혀 말씀드리자면 저희 도시에는 4대강 자전거길 중 하나인 금강 자전거길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금강 자전거길과 부여읍내를 잇는 자전거길이 없어 금강 자전거길에서 차도를 이용하여 부여 읍내로 진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금강 자전거길과 주요 관광지들이 몰려있는 부여 읍내까지 자전거 도로를 연장한다면 부여의 접근성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부여군 구석구석에 자전거길을 만들고,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고, 자전거 대여소를 만드는 것은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할 지도 모릅니다. 만일 군의 금전적 사정이 좋지 않다면 적어도 부여 읍내라도 자전거 길을 확충해주시고, 주요 관광지를 기점으로라도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는데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전거에 대한 투자는 지역민의 편익은 물론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저희 군을 부디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잠원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 제안 공약

잠원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제안합니다.

▣ 배경

10년 이상 잠원역을 이용하는 주민입니다. 잠원역 인근 지역은 대규모 생활거주구간입니다. 동시에 여성, 노인, 미취학 아동의 인구수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초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잠원동엔 13,87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잠원역 인근 세대 수는 7천 세대 이상입니다. 여성 비율은 남성대비 0.1073만큼 높습니다. 이는 서초구 전체에서 3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노인 인구와 미취학 아동 인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KOSIS의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 전체에서도 4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5세 미만 미취학 아동 인구수는 2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반포3동 주민이 포함될 경우 더욱 증가합니다. 물론 버스 노선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입니다. 또한 노약자층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규모 생활권 전철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없다는 것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 기대 효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 개인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국가를 선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필요성에 의해 합의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 국가라는 논리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시민 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으로 대변되는 3대 기본권을 충족시키려 노력한다면 시민은 국가에 대해 정직한 납세 활동, 긍정적인 집단 의식 형성 등으로 응답합니다. 이는 양질의 국가 브랜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과 국가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잠원동은 서초구 내에서도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잠원동 주민들은 서초구 내에서도 시세 기준 시세, 구세 합계 7번째로 많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데이터 생산이 중단되어 더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잦은 재개발이 완료된 지금도 그 입지는 공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포역에 반쪽짜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재원으로 잠원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주세요.

▣ 재원 조달 방안과 현실성

재원이 부족한 지역구가 아니기에 크게 어려운 사업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재원이 영 부족하다면, 지역주민과 건설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후자는 재개발 예정지에 입찰하는 시공사의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래미안 신반포팰리스를 효시로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이 예정 및 진행 중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들의 의사는 확고합니다. 가령 한신 4지구의 경우 GS건설은 잠원역 연결통로

개통과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 등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도시계획 부분을 심사영역에 고려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현대 사회에서 국가관의 중요성은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개인의 이해관계, 득실판단의 여부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족과 지역 공동체가 제공하는 정체성, 정서적 유대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 문화적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고향이 주는 향수를 잊지 못하는 것은 이를 잘 반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으로 응답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자부심을 지키려는 굳건한 행보에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구 울량동-주중동에 공공도서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역

충청북도

안녕하세요 23살 남학생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청주시 청원구에는 청주청원도서관이 사천동에 위치해있습니다. 근데 왜 가까운 울량동에 도서관 설치를 제안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울량동-주중동 근방에 최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울량2지구, 3지구에 많은 아파트들과 빌라들이 증축되었고 많은 학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살펴보면 울량초등학교, 주중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울량중학교, 주성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로는 신흥고등학교, 청주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천동에 위치해있는 도서관은 주중동/주성동/내덕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치상 멀다고 판단되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근거를 기반으로 울량동-주중동에 공공도서관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은 청주시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참고해서 제안하려했지만 나와있는 정보로는 부족해서, 만약 수렴된다면 청주시 청원구청의 행정지원과, 건축과등의 과에서 맡은 부서에 맞게 책정해서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살다 춘천에 거주한 지 5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춘천의 교통 체제의 불편을 겪고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서울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신호대기를 하면 움직이는 차량들이 많아서 그런가보다 하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춘천은 상대적으로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호대기로 기다리고 있을 때, 아무 차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를 위한 신호인지 할 때가 많고, 불법을 부르는 신호 체계로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작은 4거리조차도 모두 직좌 신호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지나면서 불편을 겪는 곳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우두동 두미르 아파트는 비보호 좌회전인데도, 좌회전 신호가 있어서 반대 차량의 쓸모 없는 신호 대기에 걸립니다.
- 교육청 4거리에서 춘천 들레길 방향으로 출입하는 차량이 거의 없는데 여기도 직좌 신호로 불편을 줍니다.
- 우두동 우두4거리에서 여우고개 가는 길에 새로 생긴 2개의 신호등도 직좌가 불편합니다.
- 춘천도시첨단 정보산업단지 앞 소양2교에서 오는 좌회전 신호는 골목길까지 신호를 받게됩니다.
- 장학초교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나려면 30초면 될 거리가 신호 때문에 5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 호반장례식장 4거리, 칠전동 라데나 골프장과 의암댐은 직진 신호 중에 서로 비보호 좌회전으로 새벽 6시 전에는 되도록 점멸등으로 등등 더 있지만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개선해야 하는 교통 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통량을 고려한 합리적인 직좌 신호 체계
 2. 자동임시신호변동 시스템(주로 직진 차량이 많은 곳에서 좌회전 차량이 생기면 좌회전으로 켜졌다가 다시 직진 신호로 바뀌는 것-미국, 서울에서도 경험)
 3. 횡단보도에 시간 표시가 되듯 차량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변하는 시간 표시(태국, 말레이시아에서 경험)
- 선진적으로 춘천에서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쓸모없는 신호 대기로 배기가스 유출로 대기질 오염, 유류 낭비, 시간 지체, 운전 피로도 증가 등등 신호 체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수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경제 · 민생 분야 유권자 희망공약



경제 · 민생 분야 유권자 희망공약

Part 2

제목

소통과 문화벨트로서 다산길의 연장 및 남양주시의 경쟁력 제고, 가치 향상 건

지역

경기도

□ 개요

현재 남양주시에는 다양한 다산길(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안면에 위치한 다산유적지(생가)뿐만 아니라, 남양주 곳곳에 다산의 의미와 명칭사용으로 산업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산신도시 조성으로 남양주가 또 한번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산길을 다산신도시까지 연장을 통한 다산신도시의 의미와 지역경제 및 관광, 여가의 발전축으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다산길 1코스(한강나루길, 한강 삼패지구~운길산역)를 다산신도시내 조성공원인 다산원(茶山園)까지 연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결은 단순한길의 연결에서 그치지 않고, 특징적인 구조물(상징물)을 통하여 소통과 문화벨트 및 관광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아시다시피 남양주는 중심도시가 없는 다핵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 소소한 일상과 생활은 거주지역내에서(마석, 덕소, 진접, 별내, 호평, 평내, 도농, 지금 등) 이루어지고, 경제활동 및 중요 소비는 서울 및 구리시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양주의 산업, 경제적인 기업체 입주가 미미하여 출, 퇴근이 서울로 집중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중요 소비부분 및 문화, 관광부분에 있어서는 서울 및 구리시로 집중되는 것을 남양주시로 돌리는 것이야 말로 남양주시가 지자체로서 경쟁력을 올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남양주인구의 증가는 진접, 별내, 다산 등 왕숙천을 접하며, 구리시를 정점으로 둥그렇게 둘러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구리시로 쓸릴 수밖에 없는 지리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왕숙천변을 보더라도 구리시에는 롯데*마트, 아울렛, 극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롯데*백화점, 극장, 구리시장, 남양시장, 토평지구, 한강시민공원(토평지구) 등 다산신도시 건너편으로 유인

하고 있는 수많은 인프라가 존재합니다. 왕숙천변 남양주시 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과 신도시만 있을 뿐입니다. 남양주시는 언제까지 땅덩이가 넓다는 이유로 지역경제권활성화에 손을 놓고 구리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방치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양정역 세권 개발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별내, 다산등 신도시와 신도시 시민들을 구리시로 내가지 않고 남양주로 들어오게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경기 북부테크노벨리가 확정되었으나 남양주시의 참여도가 미미한 상황에서, 경기 북부테크노벨리 추진시 구리시의 의견과 입장을 밝힌 뉴스기사(전자신문 11월16일 발췌)입니다. “문화네트워크사업은 구리시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유산인 아차산과 동구릉 그리고 전통시장등을 잇는 역사, 문화중심의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용, 복합문화콘텐츠사업으로, 시민들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경기 북부테크노벨리.....중략.....갈매지구와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진건 뉴스테이(예정)를 비롯, 진관산업단지와 양정역세권 등이 있어 배후수요가 충분하고 전문인력 확보도 용이하다. 구리시가 보는 구리시를 둘러 싸고 있는 남양주시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 개선방안

최근의 추세인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웰빙문화에 힘입어 소통과 관광, 문화벨트로서 수많은 둘레길 등이 각자 자체 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도 다산길이라고 하여 다산길 1코스부터 13코스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민조차 이러한 다산길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알리고, 홍보해야 하며 보여줘야 합니다. 다산 신도시는 진건지구, 지금지구를 아우르며 내부공원 조성과 산책로, 자전거길이 유기적으로 이어 질 예정입니다. 심지어 다산8경이라고 하는 내부공원에는 다산마당, 여유당, 다산원 등등 다산과 관련된 의미를 새기는 공원이 산재해 조성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도로가 아닌 보행과 자전거길로의 외부소통은 진건지구의 왕숙천변 진출, 지금지구의 단절된 형태(도로, 습지 등을 거쳐 어렵게 왕숙천 접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어쨌든 왕숙천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남양주시쪽 한강공원(삼패지구) 및 다산 유적지까지 이르는 다산길로는 원천적으로 막혀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상기한 현황 및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다산길을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최남단 우측에 조성된 다산원공원부터 한강공원(삼패지구)으로 끝난 다산길 1코스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연결은 다산 원공원-유수지-도로를 가로지르는 구름다리(육교)-홍릉천 하류-한강공원(삼패지구) 다산길 1코스로 이어져야 합니다.

상기 연결구간은 거리도 짧고, 다산신도시조성과 맞물려 있으며,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구름다리설치로 토지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로우리라 판단됩니다.

■ 기대효과

상기한 다산신도시와다산길 1코스를 통한 한강시민공원(삼패지구)를 잇는 소통의 길이 열린다면, 거기에 다산길을 알리고 남양주는 다산의 도시란 것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로서 구름다리(육교)가 놓인다면 그 효과와 의미는 막대한 시너지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 여가, 소통, 관광벨트로서의 진접, 별내, 다산(진건, 지금) 시민들의 남양주 한강시민공원 접근 및 다산길 1코스와 덕소, 팔당, 조안, 화도를 거치며 남양주시에 접해있는 한강변 여가, 관광 경쟁력을 높입니다.
- 다산의 도시란 의미 제고로서 다산 신도시에서 다산 유적지까지 연결합니다.
- 상징적인 조형물로서 구름다리 조성으로 다산길 홍보, 다산의 도시 홍보, 남양주 이미지 및 관심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 도보나, 자전거로 접근 가능한 소통의 길이 열리므로, 현재 한강공원(삼패지구) 접근 및 삼패사거리 일대에 있어 주말의 막대한 자동차 교통난 해소가 기대됩니다.
- 홍릉천 하류로 다산길이 이어지므로, 향후 홍릉천 상류인 금곡동까지 이어지게 추가로 다산길 조성이 가능합니다.(왕릉으로 인해 제약이 많은 금곡동 주민들의 한강 접근 통로 확보)
- 남양주 내각지역 별로 나뉘어 있는 다산길을 환형으로 이어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기반입니다.(진정한 의미의 남양주 둘레길로서 "다산길" 완성)
- 왕숙천변을 통한 남양주시 신도시 시민들의 구리시, 구리시 생활권 편입 효과를 억제합니다.

제목 골든하버 지하철 연장 건의

지역 인천광역시

골든하버 지하철 연장 건의합니다.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항이 개항 예정이고 송도9공구의 매각이 예정되었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각종 개발 계획과 연계되어야만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므로 시급합니다.

골든하버 지하철 연장은 경제성이 없어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므로, 경제성이 없는 현재 역사 위치를 옮기면 충분히 경제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골든하버가 본격 개발되기 전에 인천지하철 1호선의 골든하버 연장 우선순위라도 끌어올릴 수 있으면 해당지역의 개발 및 주변지역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송도국제도시에서 골든하버 3KM 연장하는 재원은 기존 계획대로하면 5천억 정도이나, 역사를 옮겨 2KM로 줄이면 4천억 정도 예상됩니다.

도시철도는 국비60% 지방비40%의 부담이 있으므로, 인천시의 부담은 160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인구 9만의 청라 7호선(4개역) 연장도되는데, 크루스터미널 및 국제여객터미널 이 용인구 및 송도8공구주민(6~8만 추정)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안 될 리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cafe.naver.com/202006/2823>

제목

공용주차장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주민 편익 증진

지역

충청남도

□ 제안이유

- 아산시 탕정면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입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업원이 약 20,000여명과, 삼성디스플레이 2단지 신축공사로 인한 근로자가 향후 10여년 동안 1일 약 15,000여명이 상주하고, 인근 선문대학교 교직원이 약 11,000여명이 상주하는 산업과 대학이 있는 곳으로 유동인구가 약 70,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곳. 또한, 관광명소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지중해마을이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중. 그러나, 제대로된 공용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아 각 작은 골목마다 온통 주차로 인근 상점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많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건립의 필요성이 시급함.

□ 주요내용

- 위와 같이 산업, 교육,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공용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나, 주차장을 위한 토지를 구입하여 조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탕정면사무소 옆에 조성된 공원(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28-2, 4,781.6평방미터)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많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지하주차장 조성 시 단순 지하1층이 아닌 지하 2~3층의 규모로 조성할 경우 주차대수가 약 200~350여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 조성 후 지상에는 공원으로 복원하는 것임
- 아울러, 조성 후 운영은 저렴한 주차비용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됨

기대효과

-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이 주차할 곳이 없어 저녁에는 각종 모임 등을 인근 천안시에서 하고 있으며, 근로자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 공용주차장 건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지중해마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불편해 하는 주차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시 찾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됨
- 아산시에서 가장 발전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발전가능성이 가장 많은 탕정면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외부에서 이주해 온 아산시민들에게도 살기 좋은 정주여건 제공으로 아산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

예산조달방안

- 건립비용으로 초기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대략 2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과 삼성디스플레이가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50억원을 부담할 경우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초기 많은 비용이 투입되나 그 동안 탕정면에 소재한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탕정면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의 미비한 수준에 그침에 따라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공용주차장 건립으로 탕정면 전체 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제목 도민을 위한 전복 / 상생하는 문화도시

지역 전라북도

문화시설 도민혜택 적용

- 여행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경기전, 한옥마을, 남부시장 일대 번창하고 있으며 전북 내 동물원, 박물관, 빙상경기장, 청연루, 향교, 덕진공원 등 갈곳이 즐비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이용실태가 문화도시란 이름이 무색할만큼 저조하며 시민들은 나들이를 하더라도 특별한 날 아니면 굳이 이용이 적은 실태입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당 시설이 수익이 적으며, 혹 이용만족도 면에서 타 시도에 적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 시설들의 금액을 도민들에 한해 금액을 줄여준다면 도민 생활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
- 전북으로 이사 이전 강원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었는데 강원도는 입주 신청과 동시에 박

물관 이용권, 미시령터널 할인권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유명 목욕탕의 경우에도 이용금액 간판에 써있음)에 도민 할인혜택을 적용하며 도민을 격려 및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도 내 시설이용간 도민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면 각종 문화시설이나 센터 이용간 도민 이용률을 더욱 높일것으로 보이며 도민을 위한 멋진 공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이동면 서리 상덕마을에도 따복버스를

지역 경기도

1. 우리 상덕마을에 인접한 역북지구와 아곡지구(남쪽)를 잇는 321지방도로 노선은 민관 교통대책회의에서 버스 신설·증차를 협의 중에 있으나,
2. 역북지구는 지구 내 순환으로 논의 중이고, 아곡지구는 강남 및 동탄행 광역버스만 논의 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상덕마을을 지나는 노선 추가는 올해에도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우리 상덕마을은 93, 93-1 도합 왕복 6회 운행이 전부로써 통학 및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2시간을 넘어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4. 93, 93-1번 버스가 용인대학교와 용인시청역을 경유하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이용객이 60~70명을 넘지 못하는 원인을 다시 분석하여 배차간격 및 노선 조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만약 주민 일부가 노선 변경에 반발하거나 준공영제 노선에 투입되는 시 보조금(현재 연 4천만원)의 증액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가 시행중인 따복버스 사업 지원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또한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우리는 용인시관계공무원·시도의원님·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인 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노약자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관·정 공동으로 93, 93-1 버스노선 개선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고 경기도 따복버스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작은 영화관 이전으로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경상남도

현재 보물섬영화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수 입니다. 그러나 위치가 너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영화 관람 후 별다른 소비행위가 없어 아쉽습니다. 도시의 경우 영화 관람 전 쇼핑, 외

식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활동을 병행합니다. 꼭 영화 관람만이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소비활동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 현상입니다.

그러나 외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가게가 없습니다.

영화관을 이전해야 합니다. 장소가 없다고 하겠지만

1. 노후화된 시장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구조상 문제가 없다면 시장 옥상에 영화관 설치)
2. 읍 중심가 상가와 연계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전하여 영화관람과 지역내 소비활동이 함께 촉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 영광군의 경제발전을 위한 공약 제안합니다

지역 전라남도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 또는 국내 관광객 유치에 많은 심혈을 기울일 때라 생각합니다. 영광 백수해안도로, 원불교,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불갑사 그리고 상사화, 굴비의 고향 법성포, 천일염전 등 아름다운 명소와 다채로운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영광군에서 관광객들이 쉽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영광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읍/면 사무소나 터미널 또는 영광군 내 상점들과 제휴를 맺어 상품권을 판매할수 있고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면 그 상품권을 군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도록 하게되면 조금 더 나은 관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알릴수 있는 상품권 디자인을 공모하여 관광객들에게 영광을 적극 홍보할수 있는 기회일겁니다. 그렇게되면 군과 자영업하는 군민들이 서로 상부상조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은 한해 4~5억원을 제시하여 상품권 인쇄와 디자인에 사용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관광객 유치에 매진해야할 때입니다.

제목 청주시 농촌 행복택시비 기존 500원 1000원으로 인상및 농촌(오지마을) 확대운영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는 읍, 면이 많은 오지마을(산골)이 많아 버스이용이 불편하고(도로여건, 기상악화, 폭설등)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각 마을에 노인과 장애인 많이 거주하고 있는바 행복택시 요금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읍, 면. 마을전체로 확대이용하고 요금을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

돼 1일 이용횟수 제한없이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몸으로 언제나 상시 읍,면 소재지의 병원이나 마트,재래시장을 편한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선거공약에 채택될수 부탁드립니다.

□ 개요

- 가. 지역과 거래하는 업체를 규모(매출액, 등)별로 분류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함
- 나. 분류된 업체별로 채용계획(주로 소규모)등을 요청하여 정리함
 - 특성상 소규모일 경우가 많으나, 맞춤형으로 미취업자 구민과 연결할 경우 취업확률은 높음
- 다. 자생단체(통장협의회 등)등을 통하여 구에 거주하는 미취업자 명단을 확보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함
- 라. “나” 와 “다” 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희망근로” 나 “공공 근로” 등의 1회성 일자리가 아닌 구민에게 정규직에 가까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
- 마. 구민을 많이 고용한 업체에 대해 더 많은 구 발주사업을 하게 할 수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가. 지금까지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1회성인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음
 - (예 : 청년인턴제, 희망근로, 공공근로, 일시사역 등)
- 나. 구와 거래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신규인원 채용에 많은 문제가 있음
 - 특성상 3D 업종이라 지원자가 많지 않고 규모가 영세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공고는 불가능한 사항임
 - 구에서 그 틈새를 이용하여 위에 제시한 방법으로 업체와 미취업자(해당분야에 경력 이 있는 실직자)를 연결시킬 수 있음

□ 개선방안

- 가. 업무분담의 (예시)

- 계약부서 : 계약업체의 규모를 파악하여 데이터화함
- 사업부서 : 발주업체별로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파악하여 데이터화 함
- 주민자치담당부서 : 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체와 미취업자를 연결시킴

기대효과

1. 정규직에 가까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 복지증진
2. 주민수입 증대로 인한 세수확대

제목 따뜻한 우리 동네를 위하여

지역 충청남도

지원동기

천안에서 20년 넘게 살아 오면서 보다 더 좋은 동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천안 진행 사항을 보면 사람이 가지도 않는 곳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비싼 조형 육교를 만들고 단가를 부풀려서 신고당하거나 버스 단합부터 시작해서 안좋은 사건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공약 제안이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라면서 씁니다.

기획안

상황 : 천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여러 회사 및 반도체, 자동차 관련 회사가 많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문화 생활을 즐기거나 필요한 공간은 한 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개발 구역이 두정동 먹자 골목과 고속 버스터미널 야우리 먹자 골목만 발달되었습니다.

유동성은 크지만 시설을 따지자면 쇼핑지역, 술, 노래방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홍대, 명동, 이태원을 포함하여 여러 특색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끼리가 있는 것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학생들의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행안

도심 속에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약속 장소로 모이는 데이트 장소, 취업 공간을 위한 교류의 장, 스터디 장소 등을 위한 공간기도 합니다. 그곳을 가는 방법은 자전거 렌탈(따릉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에 대한 장소는 고속버스터미널 야우리에서 천안 역 방면으로 가는 구간이었으면 합니다. 그곳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취소되면서 건물부터 상권이 죽 었기에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퇴근시간 위험속에 곡예운전을하는 부평IC 계양진입구간을 안전하게 해주세요	지역	인천광역시
-----------	---	-----------	--------------

퇴근시간대인 6~8시 사이 부평IC에서 계양구에 진입하는 차선은 항상 전쟁터를 방불케합니다. 위험을 나열해보자면

1. 경인고속도로에서 부평IC 부근 압체운전족이 억지로 끼어들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3차선이 완전 통제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2. 부평IC에서 계양방면으로 좌회전시 (서울-)인천)방면 부평IC 사람들과 차선이 겹치면서 홈플러스 사거리부근 우회전 차들과 얽혀서 항상 사고및 교통혼잡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3. 위에 언급한 홈플러스 사거리 우회전구간은 인천방향으로 고속도로 나오는 사람들은 직진. 서울방면 나오는차량들은 우회전을 해서 항상 매일매일이 등골이 오싹할정도로 무섭습니다.

■ 해결방안

1. 압체족 단속을위한 단속 및 예산이 부족하다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정확한 구간에 압체족 단속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해줬으면 합니다.
2. 부평IC에서 계양으로 빠지는 부근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혹은 교통경찰관이나 지역 모범 운전기사에게 특혜를 주어 교통정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3.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천대고가방면 횡단보도위치를 변경하거나 신호체계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혼잡한시간 통행량이 적은 횡단보도로 인해 항상 정체현상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횡단보도를 10~20m 아래로 내리면 교통정체현상이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4. 인천방면 경인고속도로 빠져나오는 차량들에한해 서울외곽 중동IC처럼 출퇴근시 신호체계를 주어 교통혼잡을 피해줬으면 합니다.

■ 예상제원

1. 압체족 단속관련 제원은 약간의 포상금 및 특혜를주어 공익캠페인을 전개한다면 교통사

고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생각한다면 큰 예산이 안들어갈꺼라 생각합니다. (예: 압
체족1건 공익당 3차년 주유상품권 1일(20건) x 24(토,일제외)= 1,440,000원 X1년 =
17,280,000원 소요)

2. 인천방면 부평IC 구간에 신호등을 설치운영합니다. (신호등 비용은 잘모르겠지만 적은예
산에 큰효과를 누릴꺼라생각됩니다)
3. 홈플러스 사거리 천대고가방면 횡단보도
 - 신호를 개선한다면 추가비용 필요없을꺼라 생각합니다.
 - 횡단보도 이전설치시 이전안내관련 현수막 설치 비용만 들어갈꺼라 생각합니다.

화합과 소통을 바라는 요즘시대. 우리이웃 우리모두가 체감할수있는 불편을 해소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분들! 꼭 한번 여기구간을 이용해보시고 이 위
협속에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구직자를 위한 좋은 직장 리스트와 기업 인센티브

지역

경기도

저는 여러 곳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해보면서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단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있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불이익 때문에 제대로
된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구직자들은 정해진 노동시간(8시간)만큼 일하거나
노동시간 이상 일할 경우 제대로된 수당을 지급하는 정상적인 회사에서 일하길 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정상적인 회사 리스트를 분당구에서 분당구청 홈페이지, 시
내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해 분기별로 발표했으면 합니다.

■ 무엇을

'공짜로 일시키지 않는 분당구 좋은 직장 리스트'를 분기별로 작성하고 알립니다.

■ 어떻게

홍보 온라인: 분당구청 홈페이지, 성남시청 홈페이지, 그외 구 관련 sns에서 팝업 배너를 통
해 본 캠페인을 알립니다.

오프라인 : 현수막 등을 통해 광고를 낸 후 분당구 소재 기업에서 재직자에게 근로수당을 제
대로 부여하는 정상적인 직장 추천을 받습니다.

■ 선정과정

1. 재직자에게 근무시간준수, 연장근로 지급 등을 하는 직장을 추천을 받기
2. 추후 고용노동부 등과의 연계를 통해 회사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의 감사를 하고 좋은 직장으로 선정합니다. (직장에 찾아가거나 사업주와 면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사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통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혜택

1. 분당구, 성남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좋은 기업리스트로 등록된 것을 알립니다.
2. 구직사이트 지역 카페 등 선정 홍보를 통해 본 행사가 널리알려지면서 기업의 인재유치 효과도 노립니다.
3. 상위 3개 기업은 상금. 이런 일회성 상금외에도 법인세 감면이라던지 사업주에게 큰 이익이 될만한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합니다.

소요예산 : 서현, 판교 등 분당구 직장이 많은 곳에 광고용 현수막 등록, = 약 100만원
추천수, 근로수당 적용을 받는 사원 수 등을 근거로 3등 기업 시상, (200만, 100만, 70만)
= 370만원

총계 : 약 470만 원, 1/4분기 별

재원조달방안 : 구 재정에 충원합니다.

제목 산과들과 물길의 테마로드

지역 경기도

제안이유 : 시흥을 하나로

시흥에는 유명한 소래산과 물왕저수지 갯골생태공원 월곶 오이도등 유명한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이에 이를 하나로 묶는 테마로드의 조성은 시흥을 하나로 묶을수있는 멋진 사업이 될것입니다.

소래산에서 소래저수지 (현재호수공원사업중)~은행천 (조성사업중)~물왕저수지~연꽃테마파크~갯골생태공원~월곶~오이도를 잇는 산과 들과 물길이 어우러지는 테마로드 조성은 시흥의 자부심을 한껏 끌어올릴것입니다. 소래산축제, 은계호수공원축제 (설립희망), 물왕예술제, 갯골축제, 월곶, 오이도축제등 각양각색의 시흥의 대표축제들이 한눈에 들어올것입니다. 소래산에서 은계호수공원 은행천까지의 자전거길이 시공되고 있기에 큰예산없이 조

금씩만 손을 본다면 멋진 테마로드가 만들어질것입니다. 특히 조성중인 은계호수공원의 주변으로 왕벚꽃나무들이 식재되기에 벚꽃의 개화시기에 맞춰 은계호수공원 (현,소래저수지) 축제가 만들어진다면 더멋진 사업이 될것입니다. 소래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연과 더불어 오이도까지 한번에 즐길수있는 멋진 상상을 해봅니다.

제목 차기부산시장에게 바란다

지역 부산광역시

1. 부산에는 올림픽/영화제/엑스포등 뜬구름 잡는 사업보다는 도로/산업단지/공공택지지구 같은 인프라 공급이 더 중요하다.

부산에 국가산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산단 공급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에 내가 블로그 글에 수도없이 적어놓은 글과 그외 참고하기 좋은글을 뒤에 링크를 적어놓을 터이니 링크를 클릭하여 글을 읽어보시기를 참고바란다. 대체적으로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역경제가 쇠퇴가 되는 이유가 일자리 문제와 주거문제 이다.

지금 울산/창원 집값이 많이 침체되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아파트 가격은 서울강북 지역들과 맞먹거나 더 비싼반면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은 수도권보다 더 낮다.

한편 부산의 경우 부산항이 가까이 있어서 물류비 감소가 매우 뛰어나고 인력들이 풍부하여 산업단지 수요는 넘치는 반면 지가가 비싸고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수도권 기업들이나 해외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싶어도 못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는 크게 감소하였다.

산업단지 공급 부족으로 일자리 수는 감소한 반면 구직자들이 넘치니 부산의 평균임금은 전국최하위가 될 수 밖에 없고 임금은 낮은 반면 부동산가격과 물가는 계속오르니 젊은 층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갈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은 일자리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자원이 적은 나라는 인적자원을 활용해 제조업을 통한 수출로 벌어들인 자본이 부동산/서비스업/관광등 내수업으로 흐르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때동안 부산시의 정책을 보면 영화제/올림픽이나 엑스포같은 대형행사/대형쇼핑몰 및 호텔건설/ 관광업을 위주로 정책만 육성하여 부동산 가격만 올라서 서울에서 내려온 투기꾼들이나 지역유지들만 배부르게 하였고 그나마 서비스업으로 창출된 일자리도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생존형 자영업자들만 생성하였다.

또한 대형쇼핑몰의 건설이나 재개발등 부동산시장 육성은 그나마 남아있던 부산의 생존형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몰고 지역자본은 수도권이나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만 만들었다.

예로들면 롯데그룹의 경우 백화점/마트/아울렛등 대형 쇼핑몰로 부산에서만 10조 가까운 총매출을 벌어들였지만 본사와 법인은 수도권에 있어서 부산에 내는 세금은 거의 없다. 롯데 외에도 다이소/이케아/교보문고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사례에 해당된다. 또한 동부산관광단지, 엘시티 같은 사업들은 부산 부동산시장에 해운대를 중심으로 서울투기자본이 들어온 계기가 되어 집값만 올리고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었다.

반면 신발/합판/고무 산업등 경공업으로 유지된 지역 먹거리는 중앙정부의 부산성장억제 정책으로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고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산단용지 부지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차세대 지역주력산업 역시 발굴해내지 못하였다.

부산시의 정책이 잘못된 이유는 지역주력산업을 국내 제조업위주의 전체 경제구조를 파악하지 못한채 금융, 관광, 서비스업으로만 집중하였던 것과 제조업의 일자리파급효과를 간과한것이 가장 크다. 이로 인해 98년 imf 이후로 지금까지 엑스포유치라던지 부산에 촬영하는 영화, 드라마 등에 보조금을 지원했던 부산시의 지역경제 육성정책은 밀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현상만 보였다 글쓴이가 지금 같이 적어놓은 링크들은 글쓴이가 과거 부산에 산업단지 공급이 필요한 이유와 그에 관한 정책제안을 블로그에 적은 글들과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누군가가 적어놓은 (조방에서 벅스코까지-부산 경제의 과거 · 현재 · 미래) 글을 올린다. 특히 네이버지식백과에 올려진 이글은 부산지역의 경제구조를 파악하기 매우 좋은 글로 꼭 시장후보들이 읽어보기를 바란다.

(네이버향토백과사전 : 조방에서 벅스코까지부산 경제의 과거 · 현재 · 미래)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2827162&cid=55772&categoryId=55808>

(부산가락/강동동 김해칠산서부/부원/활천동 일대에 국가산단을 건립하여야 한다)

<https://m.blog.naver.com/979997/221202042514>

(부산 도심에 디지털국가산단/제2혁신도시 건설제안)

<https://m.blog.naver.com/979997/221202068438>

글쓴이가 생각하는 부산경제 해결책은 부산과 김해의 그린벨트 낙동강 평야를 풀어서 대구 모 국가산단을 건설하고 엘코텔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대저신도시, 북항재개발등에 판교나 구로같은 디지털국가산단(업무용지)와 대전유성 같은 과학연구산업단지를 건설하여 it를 비

못하여 여러분야 최첨단 산업을 유지하고 육성해서 부산의 주력산업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곽 산단에서 근무하는 부산도심거주자들을 위한 교통체계를 부산시는 갖추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충렬대로의 경우 부산에서 창원, 김해 외곽 공단 출퇴근 근로자들이 어쩔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녀서 정체현상이 심한 도로였는데 부산시는 도로정체 해결방법을 강남, 종로등 도심 업무지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정체가 심한 서울과 같은 교통구조로 인식하여 이번에 충렬대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였다가 지금 부산에서 김해나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다.

또한 김해경전철/노포북정경전철 역시 부산~김해, 양산 정체원인은 서울과 달리 반대로 외곽으로 출퇴근하는 부산도심 거주자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서울과 같은 문제로만 봐서 혈세를 낭비하여 경전철을 짓고 수익보존금으로만 수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도심 업무지구 출퇴근 시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상관이 없고 자기 선택권이 있지만 외곽 근교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선택권이 없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회사 통근버스를 타야한다. 이미 현재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 부담률은 수도권 도시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버스환승보조금은 부산시 세금지출액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므로 더 이상 많은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부산의 교통체질을 부산도심에서 외곽으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들 중심으로 바꾸고 도로신설에 집중하여야 한다.

또 창원과 울산 등의 경우 집값이 조선업 불경기로 아무리 많이 내렸다고 하여도 현재도 서울강북 아파트값 보다 대체적으로 비싸고 이로 인해 양산, 정관, 장유로 탈출하는 젊은이들 역시 많고 부산 역시 전국최저 낮은 임금인데 반해 지난 몇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1위를 기록할 정도로 집값 상승이 심하여 김해/양산 신도시로 떠나는 젊은층들 역시 적지않은데 과거에 부산시가 LH와 함께 추진하였다가 무산되었던 대저신도시를 다시 건설하고 옐코 델타시티나 명지신도시 확장 및 판교나 구로처럼 첨단산업업무지구를 함께 건설하여 자족도시로 건설하는 반면 창원과 울산의 높은 집값으로 탈출하는 젊은이들까지 흡수하는 신도시를 건설하여야 한다.

2. MRG(최소 수익보존금)이 없는 민자 형태로 SOC 투자에 집중하자.

부산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위치에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서울거주자 들이지만 낙하산공천을 받고 부산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지만 지역현안은 물론 지역사정도 제대로 모른채 무관심하며 오로지 중앙정치 일에만 관심있다. 그러다보니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1994년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부족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무관심/무능력으로 8년이 넘는 티스폰공사로 겨우 개통하였지만 금정JC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부산

과 같은 비수도권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능력이 없는 정당독재 지역에는 공사기간/시설등의 측면에서 보면 민자건설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복지, 교육비용 지출이 커지면서 대형 SOC사업을 진행할 여력 역시 없어진것도 민자건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요즘 부동산 호황기로 은행들이 돈이 넘치면서 해외 민자도로에도 투자를 하고 있을정도로 건설사나 은행들의 자금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현재 민자도로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 중 하나는 MRG 최소순익보조금 때문인데 요즘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새로 건설되는 민자도로를 보면 MRG가 없는 도로들이 많이 건설되었다 해외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MRG없는 민자투자유치를 통해서 도로, 산단, 택지지구 건설을 통해 부산의 현재 인구유출 골든타임을 해결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등 금융기관을 통해 민자도로나 산단등 투자안에 관해서 따로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통행료수익으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법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3. 세종시에 부산시 출장사무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 공무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부산시 서울출장소는 여의도로 이전하여 각 정당이나 의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예산 확보에 힘을 써야 한다.

또한 it기업들이 많은 구로와 판교에 투자유치단 출장사무소를 설치하여 북항재개발, 에코델타시티, 대저신도시, 명지신도시네 업무지구에 it기업들을 유치할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

그리고 홍콩, 암스테르담, 도쿄, 뉴욕, 실리콘밸리등에도 해외 기업 및 민자SOC 유치단 이나 기업유치 출장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세종시 출장소에는 중앙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대전의 연구단지나 충청도의 많은 제조기업들을 유치하는 기업유치기능도 함께 신설해야한다. 또한 부산시 본청공무원들 역시 상당수를 민자투자라던지 기업, 일자리 유치 영업분야와 기업과 근로자, 구직자들을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민원해결단으로 구성하여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부산시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하여야 한다.

4. 객지 부산인들을 위한 혜택

부산시의 그때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 경제는 바닥을 쳤으며 그 피해는 오로지 지역청년들에게 맞겨져 그들은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힘든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이들의 최소 주거난 극복을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부산출신 젊은층이 주소등록지는 부산으로 하는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의 공공기숙사를 서울 강북권 대학가나 종로등 서울도심으로도 진입이 편하고 강남으로도 진입이 편리한데다가 서울보다 토지비용이 저렴하여 경기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원룸촌이나 청년주택등이 많은 구리, 성남, 과천 지역에 해당지자체와 협력하여 우수지나 빈 국유지에 건설하여 이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고 부산기업들의 인력 채용공고를 항시 이들이 볼 수있게 하여 부산출신 젊은이들을 다시 부산으로 유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5. 기술교육 및 기술지원센터 및 아이디어뱅크 건립

시립 기술교육원 및 시립 직업학교 건설로 요즘 구직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인 미스매치를 직업교육을 통해 해결하고 문과전공자들이 인력난이 심한 이과계열에 취직하기 위해 전문대등에 위탁교육 지원과 수학 및 과학과목 재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평생 직업교육으로 은퇴자들이나 전업주부들의 사회재진입을 돕고 부산에 인력이 부족한 해양산업 관련 폴리텍이나 그외 경쟁률이 매우 치열한 폴리텍을 추가 건설하여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을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여야 한다.

또한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과학기술원처럼 부산에도 과학기술원을 건립하거나 현재 광주쪽에는 한전이 공대를 새롭게 설치하면서 광주과학기술원이 반발이 심한데 기존의 광주과학기술원을 부산에 유치하거나 한전공대 부산유치 혹은 한국수력발전공사의 공대를 고리원전이 있고 동남권 원자력 의료원이 있는 기장일대 유치하거나 수협에서 조선, 수산등 해양산업 관련 공대를 건설하여 유치하는것 역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밖에 상공회의소나 부산지역대학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산학협력하는 정책방안을 구상한다던지 시에서 따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하여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고 부산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롯데에서 거의 부실하게 보여주기식으로만 운영하는 현재 부산창조경제센터를 대신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뱅크도 시에서 설립하고 구글에 스마트캠퍼스등 구글이나 소프트뱅크등 외국it회사들이 운영하는 벤처지원센터도 부산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6.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 제안

부산에 거주하는 외곽 공단 근로자들을 위하여 현재 시의 교통 정책을 도로신설 위주로 개편하고 카풀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산업단지 통근 셔틀버스 지원 및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택시 동반탑승 허용 및 같은 지역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어플로 모아서 택시 동반탑승을 지원하거나 수도권 it기업에서 현재 운행중인 콜버스를 부산 외곽공단 통근용 셔틀버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전문대나 대학원, 직업학원, 학원 위탁교육이나 시립직업교육원을 통한 근로자 교육 및 재교육 역시 지원한다.

또한 부산지역 기업들의 마케팅, 회계세무 분야를 지원해주는 아웃소싱 형태의 공기업을 시가 운영하고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사회복지요원들의 경우 병무청에서 모집하여 요양원등 다른 민간업체로 파견시키면서 직원관리나 월급등은 병무청에서 주는 제도의 원리를 이용, 부산시가 인력지원 공기업을 설립후 향토업체에게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7. 지방법인화 및 지방분권

아까 맨 처음에 글을 적었듯이 부산의 경우 롯데가 쇼핑매장 매출로 부산에서만 10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여도 법인은 수도권에 있어서 세금조차 거의 내지 않고 있으며 롯데의 대주주들은 일본롯데나 일본인들이라서 부산의 자본은 일본으로도 까지 유출이 되고 있으며 롯데뿐만 아니라 다이소, 교보문고, 이케아등 서울 법인의 대형 프렌차이즈 쇼핑몰이 부산에 진출하면서 부산지역 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 자본은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모든 쇼핑몰 업체들은 현지 법인화를 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하며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월세를 받아 도로등 인프라 건설에 진출한 외지 건설사들 역시 현지 법인화를 의무화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자본이 유출을 억제하고 세수확보 하는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또 지방의원, 지역구의원, 지역단체장 등을 보면 특히 정당독재 정치구조를 갖고 있는 영호남 지역은 서울 거주 정치입문 희망자들이 공천을 받고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지역현안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중앙정치에만 관심있다보니 공단이나 도로건설등 soc 공급도 수요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인하여 공급되어 지역간 빈부격차가 이어지는등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방정당 공천선거 의무화와 각 당 에 당선이 불리한 지역 비례의원화 기준 정립 및 낙하산을 막기위해 지역에서 실제로 몇년이상 거주하고 가족들까지 다 거주하고 있는 후보들만이 지역구에 활동할수 있도록 지역 정치 학자와 시민단체등과 함께 범을 논의하여 구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지방분권 개헌을 하면 호남이나 강원과 같은 재정열악 지역 들은 수도권과 함께 중앙정부가 현 행정체계를 유지하여도 부산울산경남이나 충청권등 자발적으로 재정자립이 가능한 지역들은 미국의 연방제와 같은 강한 권한의 광역 지방정부를 신설할수 있도록 마강래 교수등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에대한 해결법을 찾고 타 지역들과 함께 연대하여야 한다.

8. 30년 묵은 부산의 숙원 신공항 문제

우선 김해신공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토지비용 문제와 소음문제이다.

하지만 김해신공항에서 가덕신공항으로 정책이 우회될 경우 신공항 사업이 지연되는건 아닌가 우려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우선 그때동안 신공항에 관해 그때동안 적어놓은 글들을 링크를 올려놓으니 링크를 클릭하여 같이 읽어보시길 바란다.

그외 우선 대구는 군위, 의성등에 자체적으로 공군기지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각자도생의 원칙으로 대구쪽에서 신공항을 공군기지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서 대구쪽 가덕신공항 반발을 막고 가덕신공항은 과거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밀고 실제로 부산시에서 검

토를 하고 투자단들도 확인한 MRG 없는 민자투자유치를 통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에어아시아나 아랍에미리트 항공등 해외 항공사 자본을 이용하여 부산 거점 국적 항공사 유치 역시 검토를 해 볼수 있을것 같다

김해공항 가덕이전 관련 정책제안

<https://m.blog.naver.com/979997/221177674152>

김해신공항 원주민 이주보상비 및 소음문제 해결방안

<https://m.blog.naver.com/979997/221202053954>

김해신공항배후도시(에어시티)신도시/공단건설제안

<https://m.blog.naver.com/979997/220965704514>

대구와 부산이 협력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 정책제시

<https://m.blog.naver.com/979997/220951820958>

(가덕신공항 같은 부산 지역현안들을 MRG없는 민자투자유치를 통해서 해결하자)

저는 생각하는 부산지역의 문제는 도로나 택지지구 그리고 산업단지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김해평야에 국가산단을 건립하거나 가야동 철도기지나 부산북항에 테크노벨리(첨단 업무 산업단지) 대저신도시등 여러 사업을 제안하고 민원까지 넣었다.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부산의 산업용지 부족은 부산이 신발이나 고무같은 경공업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주력산업을 변화시키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부산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인 이유 역시 산단용지 부족으로 주력산업을 사양산업으로만 머물러있고 사람이 많아 구직자는 많은데 기업 수는 사람수에 많지 않으니 임금이나 복지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타지역으로 젊은층들이 유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영화제나 대형쇼핑몰건설 및 초고층 빌딩 건설등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부동산 가격만 올랐으나 택지지구 같은 신규주택공급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낮은데다가 경기불황으로 자본이 지역부동산 투기시장으로 쏠리면서 결국 임금이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대다수의 부산시민들이 집값 상승 문제로 양산이나 김해등 외곽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 역시 만만치가 않다.

또한 부산의 교통난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제조업이 강서나 김해, 창원, 양산등 부산근교 지역들로 이전을 하니 부산에서 이 지역들의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출퇴근하는 자가용 운전자들로 인하여 만덕터널/동서고가로등 동서연결축 시내도로가 정체를 겪고 있고 이에따라 어쩔수없이 자가용을 몰고 출퇴근할수 밖에 없는 수많은 외곽지역 출퇴근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이문제로 인하여 양산/장유등 외곽 신도시로 떠나는 인구나 부산에 정착하여 구직활동을 하려다 포기하는 젊은층도 많을 것이다.그래서 산업단지 공급및 판교나 구로같은 디지털 국가산단 형태의 업무단지 공급으로 주력산업을 변화시키고 주택 및 도로공급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취지로 아래의 사업들을 글로 적어서 사업을 제안합니다. (해당 사업 제안 글 링크는 맨 아래 따로 서술)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이상한 형태의 민자금융사업이 인기몰이 중임.

부산의 민자사업 최대 문제였던 MRG최소순의보조금의 문제가 없고 30년후등 수익금을 얻으면 국고로 다시 반환시키는 순수 민자사업 SOC가 활발함.

이번에 개통한 구리포천고속도로/옥산오창고속도로 역시 비슷한 사례이며

3조4000억원 건설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이나 3조원의 건설규모인 평택익산고속도로 역시 민자사업자 경쟁이 매우 치열하였으며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3조4000억원 건설비가 들어가는 GTX사업에 현대건설이나 농협등 다른 기업들과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그룹전체가 사활을 걸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연금공단등 국내 자본 금융사및 건설사들이 펀드를 조성하여 영국 외곽 도로 확장등 해외 민자사업에도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

그럼, 기업들이 MRG 최소순의보조금이 없어도 민자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부동산 투기 시장 활성화로 은행의 가계대출이 증가하여 은행들의 영업이익이 크고 경기불황으로 예금자본 역시 증가하는것도 한 몫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성장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기업들이 관심을 돌리는 것 역시 원인이 되기도 함.

그러므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가덕도신공항이나 김해평야 산업단지 개발, 가야차량기지나 북항재개발 등에 판교나 구로같은 디지털국가산단 건립, 동서고가로나 번영로의 지하 대심도로 확장 및 해운대 상습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제3장산터널, 대저신도시 비롯한 기장, 강서 지역에 택지구개발등을 재정에 무리가 없는 MRG 최소순의보조금 없는 민자투자유치를 통해서 해결하는것이 옳다고 보여짐.

또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나 부울복선전철의 중앙정부 예산 편성 삭감으로 인한 개통 지연, 티스폰공사나 이번에 새로 개통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금정나들목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산과 같이 비수도권 지역에 중앙정부가 관심을 두지 않고 일당독재등 정치적인 문제로 지역현안을 모르는 서울에 거주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고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지역현안에 관심없고 중앙정치에만 관심있어서 국비 사업으로는 지역개발이 힘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역건설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할때 MRG 최소순익보조금 없는 민자투자유치가 부산지역에는 답인것 같음.

또한 제가 과거 글에서 부산의 지하철 노선들을 보면 하나로 통합시키지 않고 사송노포경전철이나 엄궁선등 조그마한 노선들을 분리시켜서 사업비만 증가하게 한다고 비판하고 장림동,감만동,연산동,초읍등 도시철도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순환철도 역시 블로그 글을 통해 제안하였는데 링크를 클릭하여 글을 읽어보며 참고하기를.

(부산지역에 제안하는 인프라 사업)

부산 도심에 디지털국가산단/제2혁신도시 건설제안
<https://m.blog.naver.com/979997/221202068438>

부산가락/강동동 김해철산서부/부원/활천동 일대에 국가산단을 건립하여야 한다
<https://m.blog.naver.com/979997/221202042514>

부산북항 및 동항 지구를 부산SW국가산단으로 건설제안
<https://m.blog.naver.com/979997/220971792084>

부산시는 왜 제2의 김해경전철 사업을 하는가 & 부산시내 도시철도 음영지역을 한번에 해소가능한 부산시 도시철도 순환선 제안
<https://m.blog.naver.com/979997/220966776659>

김해신공항배후도시(에어시티)신도시/공단건설제안
<https://m.blog.naver.com/979997/220965704514>

내가 생각하는 부산지역 광역간선도로 대책
<https://m.blog.naver.com/979997/220482644257>

(부산/울산/경남 광역상수도 문제해결법 제안)

(첫번째 제안)

우선 남강댐을 확장하지 않고 건설 계획중인 지리산댐을 기존계획대로 홍수조절용으로 만드는 대신 대수로로 남강댐/지리산댐과 부산/창원/울산등을 연결하고 중간지점 부근 사람이 살지 않은 산악지역에 골프장처럼 산을 깎아서 포천 산정호수처럼 인공호수(인공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고 이 물들을 부산/창원/울산등 동남권 대도시로 물을 공급 즉 댐을 확장하거나 신설해서 자연파괴/원주민 강제이주등 피해를 보지 않고 상류에서 대수로로 물을 끌어다가 중간 산악지역 사람이 적게 살고 자연파괴가 적을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인공호수를 만들어 물을 저장하고 이 물들을 하류 대도시에 공급

(두번째제안)

남강댐이나 홍수조절용으로 만들어진 지리산댐 물을 대수로로 바로 부산/울산/창원등에 회동지/사연호등 인공호수 상수원에 바로 공급

(세번째제안)

남강댐이나 홍수조절용으로 만들어진 지리산댐에 인공 독을 높게 지어서 물의 저장용량 늘리거나 사연호나 회동지 등 동남권 대도시 상수원 저수지에 독을 높게 지어서 물의 저장용량을 늘린후 남강댐/지리산댐등 상류지역 물을 대수로로 끌어와서 이곳에 저장

(네번째제안)

현재 부산기장에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꾸는 담수화 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물을 부산/울산/경남 공업용수로 공급해서 용수 절약

그외 소수력발전을 통해 지리산댐과 남강댐 물을 중간 인공저수지에서 끌어오고 동남권 대도시로 물을 끌어와서 공급할시 소수력발전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아님 중간지점에 인공저수지 대신 산에 땅을 파서 지하댐을 건설하여 물의 증발을 막는등 여러가지 신기술 토목공학 도입 제안

(그외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지방분권정책 제안)

1. 부산,대구,울산,전주,광주등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서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면서도 거주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족동반이주비율이 높은 영호남 대도시 지역들을 위주로 산업단지/ 판교나 구로같은 디지털국가산단 혹은 연구단지/공공택지지구 공급 및 도로등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여 분권 개발하여야 한다. 그외 함안군을 포함한 창원광역시 승격/부산,김해,진해용원,양산을 통합한 부산특별시 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지역 동남권 전체로 확대 동남권자유경제구역청 신설/ 부

산, 창원, 울산 3개의 도시가 인구감소중인데도 불구하고 3개 도시 그린벨트를 겹쳐놓아서 수도권 그린벨트 면적보다 더 넓은 부울경 그린벨트 전체해제 요구 및 수도권 분산 정책을 기존 인프라가 있는 동남권 중심으로 분산(예시 대기업 본사이전등) 수도권/동남권 대도시 분산형 국토개발 정책등 건의

2. 전남, 전북, 경북, 강원 같은 재정열악지역들은 수도권과 함께 중앙정부가 현 행정체계를 유지하여도 부산울산경남이나 충청권, 대구, 광주등 영호남 대도시들은 인근 양산, 김해, 경산, 칠곡, 장성등 주변 위성도시들을 흡수하여 홍콩과 같이 연방제 행정체계 운영 혹은 제주특별자치도 형태의 분권 광역도시 지향 아니면 재정자립이 충분한 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통합 지자체를 설립하여 연방제식 운영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형태의 분권 지자체 구상
3. 지방에 프렌차이즈나 대형마트 지역자본을 잠식하는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진출시 지역 법인화 의무제도와 지역자본 유출방지, 은행이나 금융권 역시 지방에 따로 지역법인화를 의무화하여 지방에서 나오는 자본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법인 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지역법인화가 된 금융기관에 예금의무화를 시행하여 지역자본 유출방지
4. 그린벨트 해제나 민자 산단이나 도로등 민자SOC투자는 중앙정부의 허락이 없어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구상
5. MRG 최소순익보조금 없는 민자투자유치를 통하여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등의 인프라 공급 활성화
6. 현재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내수 축소와 생산인구감소인데 생산인구감소는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무인화와 인공지능 기술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됨 다만 문제는 내수 축소인데 이 문제를 아까말한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전주등 영호남 광역대도시들을 위주로 수도권과 다른 내수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분권개발 대구에서 시작한 교촌치킨, 이디야커피, 호식이두마리치킨, 부산에서 시작한 보람상조, 비락우유, 부산우유, 설빙, 고봉민 김밥등 유통업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거주인프라가 뛰어난 영호남 대도시들의 자체 내수시장은 지역개발과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수도권 못지 않은 내수 시장 육성가능 또한 현재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 제조업기업들이 싼 지가로 인해 이전하여 인력난을 겪고있고 정부역시 구리세종고속도로나 평택익산고속도로등 도로 건설로 수도권 거주범위를 넓혀 이 기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런 방향이 아닌 영호남대도시에 기업이전을 유도하는 개발을 하여 실제 수도권 주민들이 부담없고 불편없이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는 여건 개선 저출산 문제 역시 자본과 사람, 기업들을 남부권 대도시들로 분산하면 수도권 역시 지가 및 물가안정으로 생활여건들이 개선되고 출산율 문제역시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됨.
7. 남부권 대도시들의 경우 서울거주 정치입문자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고 낙하산으로 내려

와서 지역현안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중앙정치에만 관심있다보니 지역현안 해결은 타지역에 비해 어렵고 낙후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단체장,지역의회의원 등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가족들과 함께 10년 가까이 거주하고 지역구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지역민들이 지역구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에서의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

(부산 도심에 있는 철도차량기지를 삼량진으로 이전제안)

도심의 흉물이 된 철도차량기지가 도심에 있고 동네가 단절되어서 주민들의 민원 급증/ 부산같은 경우는 향후 도심확장을 위한 용지가 부족하여 철도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확보가능 동해남부선 차량기지는 울산에 건설중인 예정이니 가야기지와 범천동차량기지가 관리해야 할 구간은 경전선/경부선 구간만 남았음 삼량진은 경전선과 경부선 부산신항선이 모이는 영남권 철도중심지 삼량진에 차량기지 이전 및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 확장이전가능 의왕처럼 철도차량기지와 관련된 철도산업단지 유치 / 영남권 포화된 철도차량기지를 확장이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삼량진임
기존 차량기지와 거리가 멀지 않아서 가야차량기지 근무자들이 집에서 출퇴근 가능

(그 외 부산시 시정 정책제안)

부산 지하철역을 활용한 빅데이터클라우드 센터 구상

<https://m.blog.naver.com/979997/220926349140>

부산 서비스 및 제조업 육성방안 (2014년 논문)

<https://m.blog.naver.com/979997/220484199244>

핵 폐기물을 부산으로 옮기는 대신 한국원자력연구원도 부산으로 옮기자

<https://m.blog.naver.com/979997/220926347285>

손자손녀 베이비시터 지원정책 구상

<https://m.blog.naver.com/979997/220926350030>

제목

구리시의 시정공약 제안 (구리시 교통난 문제)

지역

경기도

만원버스 문제관련

1. 아침 출근시간대 보면 구리 삼육고 앞 삼거리에서 금강고속 차량들 여러대가 빈차인 상태로 동서울터미널로 넘어가고 퇴근시간대는 금강고속 차량들이 구리 본사차고지로 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추정으로는 동서울터미널 노후화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구리 본사차고지에 주차를 하는 차량들인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여 네이버나 다음지도로 경기고속 수택동차고지를 보니 수택동차고지 역시 동서울터미널 행선지가 붙여진 시외버스들이 주차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빈 차 상태로 동서울터미널에서 구리차고지 다니는 버스들을 활용하여 출퇴근시간 강변역에서 구리시간 출퇴근전용노선으로 운영이 가능할지 그리고 향후 올해말 9호선이 강동구 보훈병원 역까지 연장되면 구리암사대교를 넘어서 5호선 고덕역과 9호선 보훈병원 행 출퇴근형 노선 신설이 가능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 1-1번의 노선의 경우 저상버스나 2층버스를 경기도나 타 지자체에 요청하여 운행으로 출퇴근 만원버스의 혼잡함을 덜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출퇴근 시간대 배차가 의정부 쪽으로만 몰려 있어서 오히려 출퇴근 시간대 배차가 평소 배차보다 못한 경우가 많던데 청학리나 다산신도시까지 노선 단축 및 분할하거나 의정부~청학리~퇴계원~갈매신도시~구리포천고속도로~강변역 구간은 급행버스나 광역버스로 신설하고 다산신도시~인창동~교문사거리~강변역간 노선은 시내버스 노선으로 분할하고 의정부~청학리~퇴계원~구리시 구간 노선은 분할신설하거나 기존10-5번 노선과 통합신설하는 방안 역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3. 구리시 홍보 sns를 보던간 갈매동에 지식산업건물을 짓는다고 하여 예정부지를 보았는데 자족시설 부지와 자동차관련시설 부지가 붙어있던데 해당 부지를 공영차고지와 정비소, 충전소등 버스 공영차고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부탁드리고, 그외 지적도를 보니 인창동 한진아파트 쪽이나 북부간선도로 인창동 부근에 3개의 학교 예정부지가 있던데 우선은 마을버스 만이라도 공영차고지를 신설하여 향후 올해 말 개통하는 9호선 보훈병원역이나 강변역까지 강동구나 광진구와 합의로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부탁드립니다.
4. 8호선 별내연장공사 완공시기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구리시 버스가 구리암사대교를 통해서 강동구 9호선 보훈병원 역까지 운행하여 강변역 행 출퇴근 시민들을 분산시키는 방안입니다. 구리암사대교에서 올해 말 개통하는 9호선 보훈병원역 까지 5~6km 밖에 되지 않으며 이미 강동구에는 하남시 마을버스가 5호선 상일동역이나 둔촌동역까지 운행하고 있으므로 구리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강동구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구리암사대교~보훈병원구간은 명일동이나 고덕동 일대를 경유하여 가는 루트로 충분히 강동구 안에서도 수요 확보가 쉽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서울구로구나 서울금천구 마을버스들이 경기도 광명시로 진입을 하듯이 강동구 마을버스 업체들이 구리시의 보조금을 부분지원 받아서 구리시에서 9호선 보훈병원 역까지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5. 현재 서울시에서 경기도 버스들의 강변역 진입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동서울터미널

일대 도로혼잡인데 강변역에서 회차할시 광진01처럼 광남고를 경유해서 테크노마트쪽 정류장으로 승하차 하는 방안도 향후 노선 신설이나 증차 혹은 구리시 마을버스의 강변역 진출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 그외 도로, 철도 분야

1.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낮게나와 무산된 6호선 연장하는 사업을 농수산물시장이 아닌 경의중앙선과 8호선이 같이 환승하는 구리역으로 단선 연장하는 방안 (혹은 교문사거리와 구리역2개에 역을 신설하여 인창동주민들뿐만 아니라 교문동, 딸기원 주민들도 혜택을 받고, 돌다리 전통시장에 역 출입구를 신설하는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2. 재정에 무리가 없는 mrg 최소순익보조금 없는 민자투자유치로 북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확장및 토평삼거리 입체교차로화 그리고 인창동 주민들의 숙원인 북부간선도로와 출입구인 인창1로 방음터널 설치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구리암사대교에서 수서IC까지 양재대로 구간을 대심도 터널형식의 간선도로로 건설하여 포화상태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차량을 분산시키는 민자도로 투자유치 방안과 용마터널에서 과거 청계고가고 처럼 사가정로와 청계천일대를 대심도지하터널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리역 광장과 유수지를 활용하여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여객열차를 정차시키는 방안과 경의중앙선 연착의 문제점인 중앙선 선로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덕소~구리토평~광나루~강변역 구간을 SR수서고속철 처럼 지하 터널형태로 건설하여 여객열차를 분산시키는 방안과 과거 서울3기 지하철 계획에서 계획된 서울10호선(구리토평~안산/ 현재 여의도~안산구간은 민자사업자가 결정되었음) 역시 구리시에서 MRG없는 민자투자유치 형태로 건설 검토 타당성조사 및 향후 구리시 장기도시계획 수립에 부탁드립니다.
3. 현재 경춘고속도로는 양양까지 연장되면서 주말에 매우심각한 상습정체를 겪고 있는데 현재 건설중인 화도 ~ 양평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 연장선)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경상도 방면으로 가는 차들까지 같이 합류되면서 더욱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설계구간을 양평~송파마천 구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경로를 현재 한강변 따라서 이어진 6번국도를 내륙으로 우회 형태로 변경하여 (강변북로 토평~ 북부간선도로 이패IC~덕소~예봉산터널~양수리~양평IC)로 변경하여 경춘고속도로 정체로 인한 올림픽대로의 정체를 완화시키고 6번국도 정체로 인한 강변북로의 정체구간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구리~서울 강변북로 구간 확장과 토평삼거리 입체교차로화를 민자도로건설사에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4. 구리시외버스정류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많은노선이 다니지만 간이정류장이라서

구리시민들역시 인지도가 낮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상당하고 외지인들한테는 구리의 관문이나 마찬가지로인데 간이 매점형태로 되어 있어서 낙후된 곳이라는 오해를 심어줄수 있음. 롯데백화점과 구리역 바로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 여성전용노면주차장 (과거 LG백화점 당시 셔틀버스가 정차하던곳) 부지나 현재 지하에 8호선, 경의중앙선 환승통로가 건설 중인 구리역공원 부지에 신설버스터미널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구리역과 연계하여 오산역 복합환승센터 형식으로 버스터미널을 건설하면 인지도가 높아짐에따라 구리, 남양주시민들이 더 많이 둘다리에서 시외버스를 탈 것이고 그에따라 둘다리상권 역시 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구리, 남양주 시외버사이용객들이 동서울이나 서울터미널로 가지 않고 구리에 바로 탑승할수 있어서 편리해지고 구리를 방문하는 외지인들 역시 이미지가 개선될수 있으며 시외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사라질것으로 예상됨.

▣ 구리/다산신도시 대중교통 대책 제안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구리시 인창동을 경유하여 강변역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 하여야 한다 현재 구리 뿐만 아니라 남양주 도농동/퇴계원 역시 잠실가는 좌석버스를 타서 강남으로 출퇴근 하는거보다 시내버스를 타고 강변역으로 가는게 훨씬 빠릅니다 이는 나중에 입주하는 다산신도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우선 이들 지역이 강변역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메리트가 가장 큰 이유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광역버스는 우선 거리 자체가 최단거리 일반도로로 다니는 시내버스와 달리 거리가 구리시 외곽으로 돌아가는 형태라 (서울외곽 고속도로/강변북로) 진접/마석과 다르게 고속도로에서 다니는 광역버스나 일반도로 최단거리로 다니는 시내버스나 시간차이가 비슷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강변역 가는 시내버스가 더 빠릅니다) 서울 강북도심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5호선 광나루역이나 2호선 강변역을 통해 출근하는 것이 한강을 건너고 5호선 역을 들리지 않는 잠실행 좌석버스보다 훨씬 이익이고 7호선을 통해 강남 청담/논현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 역시 상봉역에서 7호선 타는 거보다 광나루역이나 강변역에서 군자나 건대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해서 가는 것이 거리도 짧고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하지만 퇴계원/인창동 쪽은 강변역 가는 버스가 부족해서 출퇴근 시간대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구리 인창동(배탈고개)일대의 경우는 사실상 한개의 버스노선이 강변역 가는 유일한 버스노선인데, 이 버스노선이 의정부시 소속이며 의정부 구간에도 수요가 있다보니 출퇴근 시간대 의정부 구간에만 배차를 집중시키고 퇴계원~인창동~강변역 구간은 출퇴근시간에도 8분/10분 배차를 하니 운전기사들이 오른쪽 뺨미러가 안보일정도로 사람을 꽉꽉 채우는 가축수송을 하고 있으며 일부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잠실행 좌석버스 혹은 청량리행 일반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창동의 경우 퇴계원/청학리에서

서서 오면서 아예 승객탑승을 거부하거나 뒷문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사람들이 많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인창동 사람들이 돌다리로 가서 강변역 가는 버스를 타는데 이 노선들 역시 도농동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대 많이 타는 노선이라 미어터지고 다산신도시 입주후에는 도농동에서 강변역으로 가는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출퇴근난이 예상되며 특히 이번에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후 출근시간대 정체가 더 심해진 강변북로 구리~서울구간과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톨게이트 구간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강변역 가는 시내버스를 타기를 원할것이고 민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시나 남양주시 그리고 버스회사까지도 8호선 연장만 되면 모든 출퇴근난이 해결되고 다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강변역 가는 버스노선을 배차를 증차하지않거나 노선을 신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8호선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사람으로써 제 생각은 8호선이 생겨도 경의중앙선 처럼 민원만 더 많아질것 같습니다.

우선 8호선은 현재 노선이 짧아서 차량칸 수가 9호선 처럼 작고 평시 배차간격이 8분이라서 서울도시철도중 간격이 긴 편인데 이게 경기도까지 연장이 된다면 3호선 일산구간이나 7호선 부천구간처럼 짝수로 운행하게 될것이며 그럼 대충 구리/남양주지역의 평시 8호선 배차간격이 16분이 예상되는데 거리가 길어지면 서울 구간도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그럼 구리/남양주 구간도 아무리 못해도 경의중앙선 처럼 평시 20분 이상 배차간격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현재도 가장 미어터지는 구간이 천호~잠실인데 하남에 미사신도시가 들어서면 이구간은 구리남양주 지역뿐만 아니라 하남사람들도 같이 이용하므로 더 혼잡하게 됩니다. 게다가 송파도 가든파이프/위례신도시/재건축 등으로 인구가 늘고 8호선이 판교나 별내북부까지 연장되는 반면 차량을 증차하거나 차량기지를 신설하지 않는다면 혼잡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서울과 가까운 별내/퇴계원 사람들이 경춘선을 이용하는 대신 석계역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인창동 사람들이 중앙선 대신 강변역 가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생기므로 다산/도농/구리/퇴계원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배차간격및 혼잡등을 이유로 강변역 시내버스를 선호하게 될것이며 이것이 8호선이 생겨도 다산신도시와 인창동에서 강변역 가는 버스를 신설해야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선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현재 출근시간대만 다니는 96-1번을 정식노선으로 신설시켜서 (다산신도시~빙그레~구리농수산물시장~배탈고개~구리시청~광나루역~강변역) 노선을 만들어서 다산신도시/인창동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그외 (다산신도시~농수산물시장

~구리역~왕숙천제방길~구리여고~별말삼거리~장자호수공원(8호선 토평역)~광나루역~강변역) 구간의 노선을 만들어서 다산신도시에서 구리 도심 혹은 중앙선 전철역 수요와 인창동/토평동에서 강변역 가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노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구리시민들이 이번에 다산신도시로 많이 입주하므로 구리도심~다산신도시간 수요가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산신도시~빙그레~돌다리~구리시청~구리암사대교~명일역~길동사거리~올림픽공원역(내년 9호선 개통)~가락시장역~수서역srt) 노선 신설을 제한합니다.

원래 ktx에서 광명역에서 사당역가는 셔틀버스를 만들때 srt에서 수서에서 구리까지 가는 버스를 만든다고 하였고 이게 기사화까지 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현재는 수서역에서 하남시가는 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제안하는 노선이 현실화 되면 강동/송파 지역에서도 수서역 이용이 편해지고 내년엔 개통하는 9호선 올림픽공원 역 이용이 구리남양주 시민뿐만 아니라 강동구 주민들도 편해지기 때문에 강동구와 협력하고 서울시를 설득하면 충분히 노선신설이 가능할 것 같고 거리도 의외로 짧으므로(제 생각에는 청량리 가는 버스와 서울거리 구간이 짧을것 같습니다) 충분히 서울시와 협상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또한 srt 운영사나 국토부에 제안해서 손 잡는것 역시 노선신설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일것 같습니다. 아니면 판교에서 수서역 까지 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좌석버스 밖에 없고 서울에서 판교 테크노벨리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현재 구리 남양주 시내버스 업체를 독점하고 있는 kd운송그룹대신 성남의 다른 시내버스업체가 (판교~수서역~올림픽공원~명일역~구리~다산신도시) 노선을 운행하면 충분히 수요가 보장되므로 성남의 다른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노선운영 제안을 해보는 것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또한 구리나 남양주나 경기고속 계열사들이 시내/광역버스 노선을 독점하고 있어서 이 회사에서 노선운영을 거부하면 노선신설이 어려운데 정작 가평에 본사를 둔 진흥고속이나 구리교문사거리에 본사를 둔 금강고속은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 시내버스/좌석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회사들에게도 노선운영을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구리/남양주 두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영차고지를 다산신도시 부근에 신설하거나 구리시 자체적으로 사노동 시립묘지 부근에 공영차고지를 신설하면 다산/구리/별내/갈매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증차시킬수 있고 경기고속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노선운영을 할 수 있으며 청학리/수택동/도농동/갈매동/구리농수산물시장이 종점인 버스노선들 혹은 구리마을버스들은 가스충전소가 없어서 서울 시내차고지에서 정비나 가스충전을 해야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을 줄일수 있으며 이렇게 될경우

노선신설이나 증차가 쉬어지므로 사노동이나 다산신도시 부근에 공영차고지를 신설하는것을 제안합니다.

그외 남양주시에서 노원구와 협력을 맺어서 남양주 마을버스들이 당고개역이나 태릉입구역까지 운행하고 하남시에서 강동구와 협력을 맺어서 하남 마을버스들이 상일동역이나 둔촌동역까지 다니듯이 구리시 역시 광진구와 협력을 맺어서 구리 마을버스들이 강변역 까지 운행할 수 있거나 (어차피 광장동에서 강변역 까지 가는 광진구민들도 많고 출퇴근때는 이 구간도 어느노선이든 미어터지니)

강동구와 합의를 통해서 구리시 마을버스들이 구리암사대교를 지나 올해 개통하는 9호선 보훈병원 역이나 5호선 고덕역 까지라도 운행을 한다거나 노원구와 협력을 맺어서 수택동,인창동에서 북부간선도로를 통해 태릉입구역 까지 가는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어서 강변,광나루역을 통해 출퇴근하는 종로,을지로등 서울 도심 출퇴근 시민들을 6호선 태릉입구역이나 1호선 석계역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것 역시 좋을것 같습니다.

▣ 새로운 방법의 경의중앙선 연착문제 해결방안

○ 현황 및 문제점

경의중앙선 연착 및 배차문제에 관해서 보도한 언론보도 링크를 올려놓으니 링크를 클릭하여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3736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37&aid=000017692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585438>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266472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266679

현재 남양주의 경우 9000가구 가까운 세대의 다산신도시가 입주하고 그외 구리/남양주에서만 올해 2만가구 넘게 입주되는 반면 4/8호선 연장사업은 공사가 계속 늦추어져서 교통대란이 예상되며 반대편 고양/파주/김포등 경의중앙선 이용을 하여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일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항공대/연세대/서강대/홍익대/한양대/서울시립대/경희대/외대/국방대등 대학통근생들의 경의중앙선의 배차 및 연착문제에 관해 분노가 커지고있고 이에관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신설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되었습니다.

■ 개선방안

경의중앙선 구리역 바로 코 옆에 1만3천평 가가이의 우수지와 공원(구리광장)이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는 구리롯데백화점/돌다리전통시장/한양대구리병원등 엄청난 변화가 임니다 또한 현재 8호선 별내선 연장공사가 진행중인데 경의중앙선 구리역과 환승되는 환승센터 역시 공사중인데 8호선 구리역을 통해 5호선(천호역)/2호선(잠실역)/9호선(석촌역)/3호선(가락시장역)/4호선(별내북부역)/경춘선(별내역)/분당선(복정역)과 쉽게 30분안에 환승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중인 6호선 구리연장이 실현화되면 8호선을 통해 구리농수산물시장 역에서 6호선 환승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좋습니다

구리역 바로 코 옆에 1만3천평의 빈 국유지를 활용하여 선로와 승강장을 증가시켜 민자역사 형태로 개발시키고 중앙선/경강선/영동선/동해선등 여객열차의 종점을 구리역 까지 종점화 시키고 구리~용산 선로 22KM구간은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의 전용선로로만 활용시켜서 경의중앙선 배차 및 연착문제를 해결하고 중랑구에서 제안하는 분당선/1호선 망우역 연장은 선로포화로 인해 반려하는 대신 망우터미널 이전사업을 동대구역 민자역사 버스 환승센터 형태로 구리역 민자역사에 이전시켜서 중랑구 역시 지역숙원이었던 망우터미널부지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는게 어떠할까 제안합니다.

또한 기존 경춘선을 용산까지 연장하는 대신 경춘선 itx 는 경춘선 금곡역에서 남양주시 일패동 중앙선 선로까지 3km를 단선으로 건설하여 구리역으로 종점화하고 향후 속초까지 경춘선 여객열차를 연장하는 동서고속철 완공시 속초~구리 구간 여객열차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경춘선을 용산까지 연장하는 대신 경춘선 itx 는 경춘선 금곡역에서 남양주시 일패동 중앙선 선로까지 3km를 단선으로 건설하여 구리역으로 종점화하고 향후 속초까지 경춘선 여객열차를 연장하는 동서고속철 완공시 속초~구리 구간 여객열차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춘선 금곡역에서 남양주시 일패동 중앙선 선로까지 3km 구간에 선로를 놓음과 동시에 성북역(광운대역)의 시멘트공장을 비롯한 화물열차 산업기지를 금곡~일패 선로 일대에 이전하여 화물열차의 망우~용산 선로 진입을 막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사업비는 성북화물기지가 망우역 빈 선로부지 땅을 매각한 이후 보금자리지구등 건설개발로 인한 수익 차익으로 충분히 건설할수 있습니다. 그외 왕십리역~용산역 구간 화물열차는 향후 개통되는 경강선/판교월곶선을 통해 우회시켜서 수도권 동~서를 횡단하는 화물열차들을 우회시키는 방법과 현재 고양~의정부간 교외선을 남양주 경의중앙선 양정역이나 도농역까지 단선으로 연장시켜서 화물열차들이 서울도심 진입대신 교외선 우회를 통해 교외선~대곡소사선~수인선/경인선으로 우회하여 경의중앙선 망우~용산~수색선로를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의 전용선로로만 활용시켜서 경의중앙선 배차 및 연착문제를 해결하고 경춘선 용산연장 해달라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경의중앙선 여객열차의 종점을 구리역 까지 종점화하고 시키고 경춘선 여객열차역시 경춘선 금곡역에서 남양주시 일패동 중앙선 선로까지 3km을 단선연결 시켜서 구리역으로 종점화하고 이곳에 성북(광운대)역으로 향하는 화물기지들을 이전시키고 그외 화물열차들은 경강선/월곶판교선/교외선연장등으로 우회시켜서 구리~수색 구간 경의중앙선 선로를 경의중앙선 열차전용선로로 지정시키고 경춘선을 용산까지 연장하는방안

□ 기대효과

경의중앙선 배차 및 연착문제 해결로 구리/남양주/파주/고양/춘천/가평/양평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 및 서울지역 대학 통학생들 불편함해결
중앙선 망우~용산 선로포화문제 해결
중랑구 지역민의 숙원이었던 망우터미널 이전 및 재개발 문제와 남양주시 춘천시의 숙원문제였던 경춘선 용산연장 실현화

□ 그 외

현재 신세계에서 인근 갈매와 하남에 1조원 규모의 물류센터 신축을 시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물류센터 건립이 어려운데 이곳을 물류센터와 마트/백화점등 쇼핑몰/ 오피스텔/업무지구 환승터미널등이 결합된 민자역사 건설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아님 이곳이 현재 짓고있는 8호선 구리역과 가깝고 경의중앙선을 통해 신촌/용산/회기등 도심 대학가나 중심 상업지구를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신혼부부등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건설하여 민자역사와 함께 개발시키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롯데백화점 구리점이 근처에 있으므로 롯데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안과 인근 다산신도시에 쇼핑몰 건립을 하려고 땅을 구입한 현대아울렛(현대백화점)측에도 민자역사 사업제안 부탁드립니다.

((정책제안) 사노동 테크노벨리에 신세계 물류단지 유치제안)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2942941>

갈매지구에 맨처음 건설하려다가 실패한 신세계물류단지 조성이 하남 풍산지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힘든다는 관련 뉴스기사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사업비가 1조원이 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고용창출과 인프라시설 건립을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갈매지구와 마찬가지로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바는 사노동 테크노벨리에 신세계 물류단지를 유치하는 대신 신세계에 갈매ic 건설등 구리시의 현안 문제를 무상으로 해결하

면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사노동에는 호식이두마리치킨/한진택배/쿠팡등 중견 물류업체들의 물류창고들이 입점해 있으며 갈매ic가 없어도 사노ic를 통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운송트럭들이 통행한다면 갈매동이나 인창동등 구리 시가지의 안전이나 교통난등 문제도 전혀 구속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세계 측이 구상하고 있는 물류단지는 단순 노동직 중심의 물류창고가 아니라 많은 업무가 무인화 시설로 대체되어 양질의 사무직 일자리가 생성가능하고 이를 활용하여 청년/경력단절여성/은퇴자등 지역민 고용과 지역법인화를 통해 구리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유도하고 신세계가 지역 인프라를 약속한 만큼 이를 계기로 갈매동에 파출서/소방서/도서관등 인프라시설 구축이나 물류단지에 체육센터나 평생학습시설을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갈매ic나 공영차고지/ 8호선 사노역등 인프라시설 사업비를 무상으로 얻는 방안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서에 따라 적겠습니다.

1. 현재 사노동 테크노밸리 일대에 신세계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대신 원래 신세계가 갈매지구에 들어오려고 했던 자족시설을 기존 사노동에 구상하였던 업무단지로 조성하여 2022년 착공예정인 테크노밸리를 일찍 완공시키는 방안
2. 현재 구리롯데마트는 전국 롯데마트 매점중 전국3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도 시설노후화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난등으로 주변 동구동 주민들이나 농산물시장 상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산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남양주 다산동 쪽에도 제대로 된 대형마트가 부족하여 구리롯데마트로 인해 겪는 구리시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경기도와 달리 일요일날 2주마다 한번씩 대형마트들이 강제휴무를 하는데 이런날이 겹치면 노원/중랑 쪽에서도 차량들이 북부간선도로를 타고 구리롯데마트로 넘어와서 불편은 가중됩니다. 사노동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때 마트나 스타필드같은 쇼핑몰을 같이 건설하거나 구리역 옆에 우수지를 같이 활용하여 여객열차가 정차하는 민자역사와 함께 쇼핑몰을 건설하는 방안제시 검토부탁드립니다 (구리역을 여객열차가 정차하는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경강선/중앙선 여객열차를 종점화시켜서 망우~용산 선로포화문제를 해결하면 갈매지구에 경유하는 경춘선이 용산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경의중앙선의 배차 및 연착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니 이 부분과 함께 검토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존 경춘선을 용산까지 연장하는 대신 경춘선 itx 는 경춘선 금곡역에서 남양주시 일패동 중앙선 선로까지 3km를 단선으로 건설하여 구리역으로 종점화하고 향후 속초까지 경춘선을 연장하는 동서고속철 완공시 속초~구리 구간 여객열차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춘선 금곡역에서 남양주시 일패동 중앙선 선로까지 3km 구간에 선로를 놓음과 동시에 성북역(광운대역)의 시멘트공장을 비롯한 화물열차 산업기지를 금곡~일패 선로 일대에 이전하여 화물열차의 망우~용산 선로 진입

을 막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사업비는 성북화물기지의 땅을 매각한 이후 보금 자리지구등 건설로 인한 수익 차이으로 충분히 건설할수 있습니다)

3. 사노동 테크노벨리에 신세계 물류단지를 유치하는 대신 원래 사노동에 구상하였던 업무 단지를 구리역 민자역사와 함께 신세계가 무상으로 건립하여 구리도시공사에 기부채납 하는 방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갈매동 자족시설은 전문대 같은 학교 유치를 시도 하여 (갈매동 = 교육/ 구리역 = 업무시설 및 민자역사 / 사노동 = 물류단지 및 대형쇼 핑시설) 형태의 자족도시 구상 실제로 갈매동 대학유치 역시 춘천의 한림대가 캠퍼스 부 지난을 이유로 인근 춘천시청 부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강원도 지 역언론에 보도되었고 지방의 젊은층 인구감소로 수도권에 분캠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전 문대나 대학도 많이 있으므로 의지만 있다면 실현가능한 일인것 같으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외 구리시 문제에 관해서 사진과 함께 저의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글을 적어놓았 으니 링크를 클릭하여 글을 읽어보시기를 참고바랍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후 출근시간대 정체가 더 심해진 외곽순환고속도로/강변북로

<https://m.blog.naver.com/979997/221131847780>

96-1번(농수산물시장-배달고개-강변역)노선 신설을 촉구합니다

<https://m.blog.naver.com/979997/220726865448>

제목

지자체 예산낭비(보도블록교체, 불필요한 상수도관 배관 교체 등)를 막기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 촉구안

지역

경기도

□ 공약제안 배경

현재 지자체는 당해년도 예산을 당내연도 내에 모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내실있는 예산집행이 아닌 형식적 집행, 즉 집행을 위한 집행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의 교체 등)

또한, 지자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고비용의 토목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절감 방안을 생각하지 않은채 타성에 젖어 매년 해왔던대로 습관처럼 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20년이상 된 낡은 상수도관 교체사업인데, 충분히 상수도관 질소세척기법(국내 S기업에서 관련 특허기술보유) 이라는 통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우수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관레라는 명분하에 고비용의 수도배관교체 공사 등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10억원이상의 수도배관공사 예산을 1억원이하로 줄여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무조건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감한 9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지자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증설이나 청년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지원예산 등으로 전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좀 더 제도화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자체마다 있는 토목공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게끔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상수도배관 등의 교체 등 예산낭비적 토목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토목공사 등에 관한 조례등을 개정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노후주택 지원

지역 경기도

공약제안 :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수도권으로의 진출이 용이하여 의정부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구요.

의정부는 재계발된 지역과 노후된 지역의 격차가 무척 큼니다. 노후된 지역에 빈집이 늘어나고, 노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래된 집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요즘 자신의 취향대로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은 비용으로 집을 구할 수 있어서 좋고, 지역경제적으로는 노후주택으로 인한 지역 공실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정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를 많이 만드는 것만큼 처치 곤란한 노후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활기 넘치는 의정부를 기대합니다.

제목 우리동네 희망 공약 군북면 지오리(용목)

지역 충청북도

1. 대청호 상류 서화천변 경관조성(유지 6만평)
 - 일본 마을 4만평, 제주도 마을 5만평, 유채꽃 심어 유채꽃 축제하고 있음
2. 서화천 용목 습지 공원을 친환경 체험 공원으로 조성(4만평=체험학습지)

3. 잠수교 다리 30m 설치 건

(40년 전 배로 건너가 농사 지어오다, 서서히 배는 없어지고 농기계, 농사짓는 차량 건너 가지 못하고 사람도 못 건너감)

4. 옥천군 경관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잔디밭 활용 방안(2,000평)

5. 소득 및 친환경 경관조성(관리동 뒤편 2,500평)

- 대전시 동구 청장님은 최근 옥천신문 인터뷰에서 옥천군은 이동 인구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체험,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장함
- 옥천군 및 군북면 서화천변은 대전시의 앞마당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함

제목

만성적 주차난 해소하고 돈 버는 win-win 공유 주차 시스템 기획

지역

경기도

"주차난 해소하고, 돈까지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제안이유

전국 공영주차장 확대만으로는 만성적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는 현실!

빅데이터와 IoT, ICT(정보통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4차 산업 혁명에 걸맞는 혁신적인 공유 경제 시스템을 마련 성남시의 주차난 해법에 나서자.

■ 주요내용

〈무엇을〉

주차난 해소하고 돈 버는 win-win 공유 주차 시스템 개발

〈어떻게〉

- 공유카셰어링 앱처럼, 공유 파킹 스팟 셰어링 앱을 개발한다.
- 해당 앱에는 오너(owner)와 유저(user)가 있다.
- 오너는 공영주차장(실내, 실외 포함) 및 사업장(영세주차장, 마트, 백화점, 가게 등), 개인(주택, 빌라, 아파트 등) 등이 포함된다.
- 유저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이다.
- 오너는 빈 주차 공간·시간을 오픈한 소유자다.
- 유저는 주변 주차장 검색, 원하는 시간대 검색 등을 이용해 원하는 주차장 정보를 확인하

고 즉석에서 예약 및 결제를 진행한다.

- 결제 금액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앱 이용으로 인해 일어난 수익금 일부는 공영주차장 확대 또는 기존 공영주차장 시설에 IoT 기술을 도입하여 자동으로 빈주차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이용되길 희망함)
- 오너(개인)는 자신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제외하고 남은 시간대에 앱에 빈주차장 자리라고 열어둘 수 있음(단, 입차 시간 표기 필수) 그 사이에 유저가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수익금은 개인의 통장으로 ♪♫
- 단, 오너(공영주차장 및 영세 주차장, 사업장)의 경우 주차 빈 공간의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 빈자리 수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및 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 오너(개인+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에 정액권을 끊고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은 개인 오너로 인정해준다.(기대효과; 월 6만원이던 금액에서 월 3만원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서로에게 좋을듯)
- 톡 시스템 도입; 오너와 유저 또는 유저와 유저 사이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용자의 입출차 리스트는 항상 공유되어야 하며, 오너와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유저에게는 톡(위젯)으로 상황에 대한 알림을 받아야 한다.(예를 들어, 1시간 뒤에 오너 차량 들어올 예정입니다. 혹은 유저 차량 **가****이 30분 연장했습니다 등등) 또한 현재 사용자와 예약 사용자 간의 실시간 톡 기능 필요하다.
- 파킹 메이트 시스템도 도입되면 좋을듯, 서로 출퇴근 시간이 달라서 파킹 메이트(짝꿍)을 만들 수 있다면 편리할 듯!

<재원조달방안>

- 이 기술 구현을 위해 성남시를 포함한 전국 중소기업 및 창업·스타트업, 학교, 팀지원 가능 등에 공모전을 실시하고, 현재 세어링 분야의 선두주자인 기업의 자문을 구해 실제 앱으로 개발해내고 관리·운영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우뚝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 해당 기술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역시 시민 및 기업의 아이디어 공모로 진행한다.(어떻게 해야 개인 오너를 더 끌어 들일 수 있는지, 매너 있는 유저를 위한 파격적인 아이디어 등)

<언제까지>

2018년 10월 - 기술개발 공모전 결과 발표 및 멘토 지원

2019년 4월 - 1차 개발 상황 보고

2019년 10월 - 2차 개발 상황 보고

2020년 1월 - 베타 테스트 진행

2020년 4월 - 앱 오픈

(* 상세 일정은 주도하게 될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의 플랜에 맞춘다)

성남시 구시가지(수정구, 중원구: 불법주정차가 제일 많음)에서 시작해서, 성남시 전역(분당구, 판교, 위례)으로, 경기도로, 서울로, 전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길 희망함.

〈소요예산〉

- 개발 인건비 포함하여 약 1억 원(공모전 상금+약 3년간의 인건비)
- 공영주차장 IoT 시설 확충(센서 도입로 여유 주차장 자동 확인 가능하게) 약 1억 원
- 판교 창업지원센터의 사무실 공간 마련 등의 지원 확보

제목 이야기가 있는 남동구

지역 인천광역시

인천에 거주하면서 이야기 거리가 풍부하고 볼거리가 풍부하나 그냥 지나치거나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인천의 남동구는 근현대사와 관련한 수인선, 소래포구와 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한 생태공원, 염전, 그리고 대공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볼거리, 이야기거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합하고 정비하여 즐길거리를 추가한다면 지역 관광과 지역 인프라 활성화, 지역 브랜드가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스탬프 북을 주고 각각의 위치에 스탬프를 비치, 도장을 찍는 재미와 그곳의 가치와 역사를 배우기도 합니다. 남동구도 위에서 열거했던 곳을 중심으로 설명할수있는 가이드를 배치하고 각 거점들을 연결한다면 지역이 더욱 활성화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조금만 정비한다면 많은 재원이 들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생태습지공원 초입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를 다시 개관해서 자전거로 각 지역을 다닐수 있도록 연결하고 가이드는 현재 노령인구중에서 할수있는 분들을 모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화하며, 생태공원에 체험활동으로(옛방식의 체험) 지역의 예전모습과 삶에 대해서 배우고,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을 사은품 또는 보상으로 준다면 특별한 재원은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의내용

부산가락/강동동 김해철산서부/부원/활천동 일대에 국가산단을 건립하여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1. 전국수출입물동량의 80%는 부산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서울~부산간 물류비용이 부산~LA간 물류비용보다 2배이상 많고 서울~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철도나 고속도로는 포화상태로 한계치에 이르고 있다.
2. 부산, 경남지방은 값싼물류비에다가 대기업 생산기지가 많아서 공장건설수요는 높지만 공단공급부족및 높은지가로 인해 공장부지난이 부산은 80년대초반, 경남은 90년대 후반 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공장부지난은 결국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기업이 유출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조선업등 중공업 불경기와 높은지가에도 불구하고 김해테크노산단, 김해일반산단, 부산미음산단, 부산화전산단등은 미분양없이 선분양으로 100%입주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김해나 양산등 부산근교 지역들은 공장난개발로 몸살을 앓고있다.
3. 부산의 경우 과거 80년대후반부터 경기부진으로 인구유출이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연 3만명 넘는 인구유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대도시들중에서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도시가 되었으며 2000년도 400만명이었던 부산인구는 2017년도에 350만명선을 붕괴되면서 17년사이에 12%넘는 인구감소가 이어졌다. 특히 경공업산업이 붕괴되면서 지역의 주력산업과 성장동력을 잃고 공장부지난으로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지역생산액에서 서비스업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도시가 되었으며 자영업중심 내수위주 경기체제를 갖고 있으나 중공업및 해운산업 불황으로 지역자본이 부동산 투기시장에 몰리면서 집값상승율이 전국대도시들중에서 가장 높고 이는 물가상승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유출 및 경기불황으로 이어지고있다. 또한 90년대 후반까지는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의 인구가 창원, 울산등 인근 공업도시로 떠나서 지방균형발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2000년대 이후 이들 공업도시들의 공장부지난으로 인한 기업유출 및 경기불황으로 부산의 청년들이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많이 이주하고 있으며 2008년이후 중공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울산, 창원등에서도 젊은이들 역시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외 부산경제위기및 인구감소에 관한 내용은 저의 블로그에 적어놓았으니 확인 바람 <https://m.blog.naver.com/979997/220961475172>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누군가가 적어놓은 (조방에서 벅스코까지-부산경제의과거 · 현재 · 미래) 글을 보면 부산의 경기침체 원인증 하나가 산업용지부족으로 나와있음 (네이버향토백과사전 : 조방에서벅스코까지부

산경제의 과거 · 현재 · 미래)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2827162&cid=55772&categoryId=55808>

4. 부산신항쪽 부산강서산단의 경우 비싼지가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아서 지역기업이나 타 지역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이 투자문의를 해도 산단용지가 부족해서 대만이나 일본쪽으로 투자를 옮기는 외국기업들이 꽤 있을정도로 산단부지난도 심함 실제로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중앙정부가 인천공항일대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따돌리고 외자유치를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중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두어 들고 있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284730>
5. 현재 산단 미분양은 충청,호남쪽에 국한된 이야기이며 부산,울산등은 높은지가에도 기업들이 산업용지가 없어서 못온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링크로 올림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31131900055&mobile>

■ 개선방안

제가 제안하는 부지 (부산가락동 및 김해서부철원동 일대 김해평야)는 김해공항 및 김해신공항으로 고도제한구역및 소음, 그린벨트로 땅값이 저평가 되어 있는데 이일대 공단을 세우면 김해신공항으로 인한 김해평야토지불용 문제라는 부산시민들의 불만을 해결할수 있고 선분양을 통해 김해신공항부근 원주민들의 이주비갈등을 해결할수 있으며 김해신공항 부근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김해신공항 건설반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 (미국마이애미,시카고, 터키이스탄불, 호주시드니의 관문공항역시 주변이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음)

부산신항이 10km안에 있어서 수도권기업들을 비롯 국내기업들의 물류비해소에 큰 기여를 하며 부산경남 공단부지난을 해결하고 기업유치로 부산경남지역 불경기를 해결하고 부산의 인구감소 및 유출 도심슬럼화를 막고 부산경남의 경기불황을 해결가능함.

또한 울산/창원/거제등으로 접근이 1시간이내 가능하여 대기업생산기지 하청업체들의 물류비 문제역시 해결가능. 또한 부산/김해/창원/양산 도심까지 30분안에 접근이 가능하여 중소기업 인력난해소 및 지방분권에 도움

위치가 부산,김해,창원,양산도심에서 30분안에 접근이 가능해서 인력난 발생이 적고 지가가 비싼만큼 녹지공간비율이나 거주기능은 없애고 공업용지로만 조성할수 있도록함

(김해신공항배후도시(에어시티)신도시/공단건설제안)

○ 연구의 필요성 (부산에 신도시 건설이 필요한 이유)

1. 부산은 작년 2016년에 인구가 2만명 넘게 순유출이 되었으나 공시지가는 9.17로 대도시들 중에서 가장 높고 수도권의 2배임

2. 수도권보다 낮은 임금/물가가 형성된 부산에서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집값은 오르면서 불만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음
3. 아는 지인에 의하면 10년전에 2억초반대였던 해운대 신도시 집값이 지금은 5억초반대가 되어서 2배이상 상승함
4. 이런 물가상승/저임금 현상은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데 가장 큰 원인이됨 또한 부산 시민들이 집값부담으로 양산/김해로 이주하면서 부산시는 세계 1위의 인구 순유출 도시가 됨
5. 부산시는 과거 산이 많아서 아파트공급이 제한적이었으며 시가지 확장도 80년대초반부터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거의 확장될 수가 없었음 바로 옆에 김해평야는 김해공항과 그린벨트로 부산시까지 확장에 제한을 주었음

(부산에 공단건설이 필요한 이유)

1. 국내 대부분의 수출입 물동량이 부산항을 통해서 이뤄지지만 교통망 부족으로 서울 ~ 부산 물류비가 부산 ~ 로스엔젤레스 물류비 보다 더 비쌌 과거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 추진하던 이유 중에 하나
2. 영남권 공업용지 부족으로인해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 김해/양산/경산/칠곡이 포화가 되면서 이제는 함안/창녕/영천/경주까지 공장들이 난개발로 건설중
3. 영남권 공업용지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충청/경기로 떠나가고 그로 인해 부산과 대구/창원의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 부산은 순유출 대도시 세계 1위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 것이 영남대도시 인구유출에 가장 큰 원인
4. 수도권보다 더 넓은 부산/창원/울산 더블 그린벨트 제한에 공업용지 부족으로 영남권 대기업들이 경기/충청으로 이전 창원에 있는 현대엘레베이터가 경기도 이천으로 공장을 확장하고 구미 LG 디스플레이 단지가 파주로 이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 주요연구내용

김해공항이나 향후 김해신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을 받는 곳은 그린벨트가 풀려도 고도제한으로 도시개발은 못하지만 공단개발이 가능함 그런곳을 김해신공항배후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지금 건설중인 엘코델타신도시나 과거 부산 허남늪시장당시 구상한 부산 강서신도시는 공항과 인접해도 활주로와 비스듬히 마주보고 있어서 고도제한이 없으므로 김해신공항 배후신도시로 개발(이미지 첨부파일을 보면 파란색테두리 있는곳이 김해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공단으로 제안하는 곳이고 오렌지색 테두리는 김해신공항배후신도시 모습)

○ 기대효과

부산의 인구감소 방지/ 김해 신공항으로 인한 부산시민들의 개발제한 우려를 해결하면서 김해신공항에 대한 부산시민 신뢰증가/ 김해신공항 배후신도시/ 배후공단 역할 가능

■ 건설방향

앞으로 4차산업 대비를 위해서 로봇/iot/메가트로닉스(전자+기계)/원자력/특구 지정 관련산업 이전 기업은 정부가 광주 광산업 정책처럼 특구로 지정하여 중앙정부에서 법인세 이전/ 관련 연구기관 이전시 우선지원/ 관련산업 부분 국책연구기관이전 및 그로 인해 개발된 신기술을 특구 안에 있는 기업에게 우선 지원등 구상

공단건설효과

1. 350만명 부산도심의 정주여건과 인프라 최대한 활용
2. 세계 대도시들중 순유출 인구감소가 가장 심한도시 부산의 해결책임
3. 영남권 먹거리 다각화로 중공업불황등 산업의 시대변화에 도태되는 영남지역경제 창건
4. 김해신공항/부산신항등 접근성 용이로 인하여 물류비 감소
5. 부산지역 10개가 넘는 대학과 산학협력/ 연구지원 가능 인재확보 쉬움
6. 부산시민들이 김해신공항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신공항 건설을 통한 김해평야 개발제한과 부산시가지 확장 제안인데 주거단지는 소음과 고도규제로 건설을 못해도 공단은 소음과 고도규제에도 건설가능 부산시민들의 김해신공항 신뢰증가
7. 인프라 구축으로 인하여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기업 유턴 형태의 재유치가능

제목	귀촌, 귀농 정책의 활성화와 안전한 시골 생활을 위한 우리 동네 CCTV설치를 제안합니다	지역	강원도
----	--	----	-----

바야흐로 도시민들의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은 현실로 급격히 다가와 있음을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가 귀촌, 귀농 지역으로서 인기 지역으로 급부상 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지난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 간접 자본의 극대화로 수도권과 이어지는 다양한 교통망으로 인하여 그 거리와 시간이 많이 가까워 졌음도 기억해야할 만한 일입니다. 때문에 강원도의 귀촌, 귀농 인구가 더욱 늘어나고 살기에 만족할 만한 지방이 되기 위해서 다양하고도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편리해진 교통망만큼이나 이제는 시골 동네에서의 보안상 안전한 시골 살이를 위한 생활 시설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저는 2016년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에 토지를 구입하고 작은 집을 지어 지금은 주말주택

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올해 8월 말이면 30년간 봉직해 온 교직에서 명예 퇴직을 하고 30여 년 간 학교에서 후학에 힘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 황성 둔내에서 남은 여생 동안 제2의 고향인 황성 둔내를 위하여, 나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 가려고 큰 맘을 먹고 귀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년 여 동안 둔내 두원리 동네 주민들과 호형 호제 하면서 친 형제들 보다 더욱 돈독하게 지내 왔음은 물론 동네 환경 보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말 주택을 이용하는 일은 차치해 놓고 라도 어쩌다 방학 기간 중 한 달여 이상 기거를 하는 동안에도 많이 느꼈던 것이 바로 동네 보안 문제입니다.

시골이란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농번기에는 저희 동네 뿐 아니라 다들 오전 오후, 농사 일에 전념을 하는 일로 가가호호 마다 집 현관 문(대부분의 농가 주택은 담장과 대문은 없는 상태임)을 열어 놓은 채로 농사 일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다행으로 나쁜 맘을 먹는 사람들이 없어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야말로 시골 집들은 보안상 그 헛점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지방 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 지시는 분들께서는 시골 동네에 취약 지점을 파악하시어 그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시골 웬만한 곳에는 모두 KT주관으로 전기선과 통신 케이블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되는 CCTV의 설치 비용은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골에는 연령대 구성 또한 상향 극대화로 치닫고 있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라도 길을 걷다가 실족이나 안전 사고를 당하는 고령자들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시골 동네 취약 지역의 CCTV설치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 동네 보안 문제와 시골 고령자들의 안전한 생활 지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방편으로 시골 우리 동네 CCTV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목 물왕저수지 개발

지역 경기도

□ 제안이유

시흥시 홈페이지에 가보면 물왕저수지가 시흥시에 명물 자랑입니다 근데 정작 물왕저수지가 안산시 소속인줄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시흥시 명물은 시흥시가 지킵시다.

▣ 제안사유

1. 시흥 자랑 물왕저수지 특화할수 있는게 많습니다. 특화를 해 타지역에서 많이 오면 지역 활성화도 되고..
2. 가까운 광명동굴도 버려진 탄광을 탈바꿈 시킨거고 의왕왕송저수지도 레일바일크 최근에 카라반 캠핑등 각자의 시에 특성을 살려 지역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3. 다들 저수지를 활성화 시키는데 저희 시흥시만 사업축소를 하는거 같습니다.
부디 물왕저수지를 활성화 해주세요.
예를 들어 트램으로 목감역에서 물왕저수지, 장현지구로 연결하면 자동차가 아닌 트램을 이용하고 출근하는 사람도 많이 이용 할꺼같습니다.
물왕저수지를 활성화하려면 목감역이 저수지에 가까이 나오는 출구가 있어야지 타지역에서 오기 편하고 저수지쪽에 대형 자동차 주차장도 만들어 져야될꺼같아요.
꼭 물왕저수지를 활성화해주세요

제목 4인가구 전용 군립 임대 아파트 건립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은 전형적인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노령화 지역이며 소멸 위험 지수가 경남도내에서도 최상위권인 지역입니다.

실제로 군내 공무원외에는 청년층이 거의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읍내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높아서 인근 도시지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군청 공무원의 경우에도 교육및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진주등 인근에 거주지를 옮기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유인하기 위한 혜택이 주어져야 이런 현상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군립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 지금까지의 행태의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기초수급자나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맞벌이가정 4인가정도 아파트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안정적인 주거를 할수있도록 30평대(방3개)의 군립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보급한다면 줄어드는 청년세대의 이탈을 막을 수 있고, 젊은 세대가 늘어나면서 교육및 문화적인 인프라도 확충한다면 소멸위기에서 벗어날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 단지에 군립(공립)보육시설, 학원 등을 갖추어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거주하는 창원시민입니다.

작년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창원에 스타필드가 입점 예정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타도시에서 10여년 전 창원으로 이사 온 뒤, 마땅히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는 답답한 도시라는 느낌을 주는 도시였는데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소식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가 없었습니다. 창원에 거주하는 제 주변의 지인 중 스타필드 창원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입점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앞에서 대다수 창원시민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반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현 창원시장은 이런 시민들의 분위기를 눈치챘는데 시장과 시청의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차기 시장에서 미루는 모습을 보여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제 정치적인 성향과 당을 떠나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후보를 뽑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편에 서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이케아, 스타필드 너무 부럽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몰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스타필드 너무 부럽습니다.

가까운 김해만 해도 아울렛을 비롯한 백화점, 유통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창원시만 왜 이렇게 낡고 구태연한 모습을 보이는지 암울합니다.

문화, 쇼핑, 여가, 놀거리, 볼거리 가득한 스타필드가 입점된다면 창원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줄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찾아오는 관광도시로도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에게 스타필드 입점이 공약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도촌동과 갈현동, 야탑3동, 매화마을, 산들마을..교통사각지대의 주민들은 타지역에 비해 지하철역 하나 없이...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교통사각지대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등 발전 및 균형적인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촌역 신설 꼭 필요합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진행중

인 수광선에 도촌역 신설 꼭 진행해야 하고, 민주당 예비후보이신 이현욱 후보님이 공약하신 8호선연장지선에 상대원역과 도촌역 신설 지극히 지당하고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섬말IC 도촌동 방면 출차로가 없어 불필요한 교통난 유발시키며 모란과 야탑으로 돌아와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매일 겪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에는 도촌동방면 출차로가 있었는데,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도촌사거리 교통난 증가를 우려해 반대해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램프 설치를 통한 입체 교차로를 통해 얼마든지 안전하고 원활한 출차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통증가가 우려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주민들의 편익과 불편함을 해소시켜야지 반대만 하고 아무 대책없이 손놓고 있는 중원경찰서와 성남시청 및 관계 기관에 도촌주민들과 그 일대 마을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램프 설치를 통한 입체교차로는 성남시 자체 예산과 자치권능으로 얼마든지 설치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시민들에게 돈 나누어 줄 생각 마시고...그런 돈으로 교통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고통 받으며 힘들게 살고 있는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 예산 편성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복지를 이루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촌역 신설과 섬말IC 도촌동 방면 출차로 하루라도 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부디 더불어 민주당 후보님들과 자유한국당 후보님들 및 모든 후보님들.. 모두 ...소외 받으며 힘들게 살고 있는 도촌 주민들을 위해 도촌역 신설과 섬말IC 도촌동 방면 출차도로 개설을 공약에 꼭 넣어 주셔서...도촌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역별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게 해 주세요

지역 강원도

■ 제안이유

평창군에 면적이 넓다보니 지역별로 거리가 상당히 멀고 예전에 비해 교통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평창읍을 나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평창군에서 정기적인 문화공연은 평창읍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봉평, 용평, 진부 등 북부권에서는 군에서 제공하는 정기적인 문화공연을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제안내용

인접지역간, 나아가서는 읍면당 문화체험을 위한 시설들(소규모 공연시설, 동아리방, 각종 체험공간을 위한 다목적 시설)이 생긴다면 지역간 균형있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평창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장평에 위치한 평창시네마의 경우 8개읍면 어디서나 쉽게 갈수 있는 곳에 지어 집에 따라 평소 영화관람을 못해본 주민들도 이제는 쉽게 최신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교육 · 환경 분야 유권자 희망공약



교육 · 환경 분야 유권자 희망공약

Part 3

제목 어린이 통학차량 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용(어린이집, 학원 등) 차량은 보통 다인승 봉고차량을 사용합니다. 이런 차량들이 노후 될 경우에도 여러 사유로 계속 사용을 하는데 주행 시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안전문제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신규(LPG 등)차량으로 바꿀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면 노후차량도 빨리 폐차를 할 것이고 환경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금 예시 : 차량 1대 교체시 30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제목 보육에 관한 제안

지역 경기도

안녕하세요. 19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요즘 맞벌이 다들 많이 하시고 저 역시 복직을 앞두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문제 때문이에요.

올 3월 복직을 해야 되서 아이가 태어나고 동네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했습니다.

사실 첫째라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사이트에 입소대기를 신청하는지도 몰랐고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쯤 지나서 신청했어요.

정보도 부족하고 첫째를 키우고 있던 엄마의 얘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입소대기 신청하고 입소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아직 대기 상태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보니 올해는 둘째인 아이들이 많아 첫째인 경우가 밀렸다고 하네요. 저는 맞벌이에 첫째 아이라 맞벌이에 둘째 아이 점수가 높은 가구에 밀려 올해 입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니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시립, 공립 어린이집도 아니고 아파트에 있는 사립 어린이집인데..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 상태에서 순번이 되지 않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미달난 곳은 멀리 멀리 버스를 타고 가서 맡기고 또 제가 출근하기가 쉽지않고 또 어린 아이도 매일버스를 타고 데려가고 데려오기도 안 될 거 같아 포기했습니다.

제 일도 이미 복직이 연장이 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만두는 결정을 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인데 아이가 우선이 되어하니깐요. 아이를 낳기 위한 출산, 육아 정책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출산 장려금이 문제가 아니네요.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걸 키우면서 느꼈습니다.

보육시설확충! 그 어느 해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대기 상태인 가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교육과 적응을 위해 또래친구들과 어울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보육시설 확충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약 꼭 제안하고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남구 무료 화장실 지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역 서울특별시

화장실이 급할 때 어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검색되었으면 좋겠어요.

1. 물론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는 곳에 혜택(세금 감면 또는 보조금 지급)을 주면 좋을 것 같네요.
2. 유료화장실로 이용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버스타면 화장실이 급할 경우 내렸을 때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꼭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30년 전 동네 목욕탕들은 대기 환경을 위해 굴뚝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당시 에너지원으로는 화목, 석탄, 병커유를 써야 만했었죠. 이제는 행정구역 시, 도 이상은 청정 연료로만 에너지원을 허락해 주기에 굴뚝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오래된 위험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민간 건설업자와 협의하면 시행되는데, 노후 대중탕은 건물 소유주가 해야만 됩니다.

문제는 노후 굴뚝을 소유한 대중탕은 업황 자체가 사양길입니다.

철거를 하자니 위치와 높이, 크기에 따라 철거 비용이 수천 만원이드니 엄두를 못내는 실정입니다. 불안한 가정을 한다면, 높이 25미터의 노후 굴뚝이 지진에 의해 쓰러졌다고 생각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노후 건물 건물소유주와 지자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50~70%만 지원한다면 신청자가 많을 것이고,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물주 : 지자체 예산 = 3 : 7 추천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에 거주하는 삼각초등학교 학생 학부모입니다.

상기 학교에 인접한 도로변에 고압선 첩탑이 세워져 있어요.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니 고압선을 지하에 매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하루 7시간 이상을 고압선 첩탑 옆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첩탑에서 학교 운동장과는 10미터 거리도 안되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앞까지는 고압선이 지하에 매설되었습니다.

사기업인 건설사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고압선 첩탑을 없애고 지하에 매설하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압선 지하 매설 요청에 예산을 핑계로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니 금년 상반기 중으로 무조건 지하매설을 공약을 내걸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도외시

한다면 출산 장려 정책은 현실성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므로 학교앞 고압선 지하매설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목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에 따른 불편사항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에서 태어나 58년간 서울을 한번도 떠나 본적이 없는 개봉동의 오랜 주민입니다. 1988년 구로구 개봉1동 소재 단독에 30여년간 살다가 4여년전에 재건축된 개봉 푸르지오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과 행복에 부풀어 입주할 때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불편함이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입주 후 아파트 입주전 단독에 살 때는 몰랐던 온갖 소음, 먼지등 공기 오염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공기 청정기도 사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처음 1988년 처음 이곳에 단독으로 이사왔을 때는 비행기 소음이 시끄럽고 여름이면 물난리에 온갖 어려움이 있었어도 지금처럼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 소음보다도 훨씬 큰 도로변 자동차 소리 때문에 TV시청은 거의 불가능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걸레질을 해도 발바닥이 새까맣게 되고 식탁에서 시커먼 도로 먼지 때문에 행주가 까맣게 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이런 먼지를 매일 마시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진행 중인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작업으로 우리 아파트는 더욱 도로에 가까워질 것 같아 도로 지화 화나 방음터널에 대하여 절실한 마음으로 구로구청에 건의하고 구에서도 오랜 시간을 갖고 도로 소음 측정 및 현장 방문을 하며 관심을 보이는 듯 하더니 작년에 구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기대를 갖고 나갔는데 예산 문제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새까만 도로 먼지가 나와 나의 가족의 폐를 위협하는 두려움과 날씨가 더워도 창문을 못 열고 실내환기 한번 편하게 못하는 상황을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간 시청에 건의도 하였지만 시청의 답변은 지역간 단절, 주민통행 불편 등을 해소 남부순환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 하는 이유에서 평탄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사업이 아닌 우리 동네를 지나는 강서,김포, 일산, 부천, 부평 주민을 위하여 우리가 중간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동네 주민을 생각하신다면 도로 평탄화를 위한 예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 번쯤 재고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시청에서 답변한 것처럼 주민의 최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

민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소음저감시설 설치 등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 보다는 실질적인 도로 지화화 나 방음터널 어떤 방법이든 지금보다 환경이 개선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학교에 진공청소기 설치

지역

서울특별시

작년부터 심해진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 공기청정기 설치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나 정치인들이 계신데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보면 공기청정기는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적습니다.

학교에서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세먼지가 일년 내내 심한 것도 아니구요. 차라리 청소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학교에 가보면 아직도 청소를 비로 쓰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제대로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미 비로 쓰는 청소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는 비자루를 사용한다는 것이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급학교에 HEPA필터가 있는 진공청소기를 보급하여 교실내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면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 옆 6층 주차타워 부지 지하화 및 공원화

지역

세종시

세종시 다정동(가온마을) H1 부지 지웰푸르지오 주상복합 아파트는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부지와 주차타워 부지가 완충녹지 없이 붙어 있습니다. 주차타워와 아파트 2개 동이 마주 보고 있어, 사생활 침해 및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첫마을 환승주차장 및 정부세종청사 공원형 지하주차장 4개소 건립 사례을 모범으로 삼아 같은 방식으로 건설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세종시는 첫마을 주차장 부지를 지하화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와 이러한 공원형 지하주차장 건립비용은 총사업비 355억원 (국비 71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84억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024089&memberNo=7595466>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7년 9월에 착공한 복합주차시설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변 3곳과 국세청 주변 1곳에 위치하며, 사업비 1068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만4524㎡, 주차면수 1242면의 규모로 건립하는 시설로서 2019년 7월 완공 예정으로 지하주차장 1개소당 건설예산은 대략 250억원 가량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4개소의 주차장은 복합문화시설과 결합된 다목적 주차공간으로서 복합문화시설은 교육부 인근에 사업비 489억원, 연면적 1만9735㎡ 규모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문화공연, 강좌, 유아교육, 동호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복합체육시설은 기획재정부, 환경부 인근 주차장에 사업비 1105억원, 연면적 3만7937㎡ 규모로 수영장, 다목적홀, 실내풋살장 등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체육시설로 건립됩니다. 따라서 세종시 2-1 생활권의 주거환경과 행복도시 내 타 주차장의 지하하와 및 지상공원화 사례를 감안하여 녹지공간이 태부족한 2-1 생활권 주차타워를 지하화 및 공원화하는 공약을 제안합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9_0000099559&cID=10818&pID=10800

제목

(시도 경계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대형/화물/특수차량 불법주차 근절 추진

지역

경기도

제안제목

(시도 경계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대형/화물/특수차량 불법주차 근절 추진

현황/문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형/화물/특수차량이 불법주차되어 통행불편 및 보행자(특히 어린이, 노약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시도 경계지역의 경우 단속이 허술한 틈을 타서 야간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차량이 방치되다시피 불법주차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 주택가 이면도로 대형/화물/특수차량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단속 및 캠페인을 추진함
- 대형/화물/특수차량의 차고지 및 주차장을 확보하고, 운전자들이 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수단을 협동조합 형태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여 불법주차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을 병행함.

- 특히, 시도 경계지역의 경우, 인근 지자체/의회와 협력하여 일을 추진한다면 효과적인 것임.

기대효과

교통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도시미관 개선, 준법질서 확립을 통한 밝고 신뢰로운 사회분위기 조성

제목

통학로 길 확장, 통학문 및 통학로 지원사업, 등산로 조성

지역

경기도

제안이유:

연원마을 초,중,고등학교가 언덕에 있어 학생들이 도보로 통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언덕길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으나, 이 언덕길은 경사도가 심해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경우에 위험하여 도저히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연원마을은 언덕에 아파트가 많아 주민들이 도보로 용구대로까지 통행하기 정말 힘이 듭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불편한 언덕길을 학생과 주민들은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노약자들은 차량 없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통학로와 보행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북초교~구성중·고교까지 이어진 통학로 500여m구간. 이 중 일부 구간은 인도폭이 1m도 채 안되고 아예 인도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이곳에서 '통행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고등학생들은 인도가 너무 좁아 아예 차도를 통학로로 이용하는 광경도 목격되는 등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이 곳 마북초와 구성중·고교 등 학생수는 모두 3000여명, 인접거리에만도 4000여 가구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가구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학교와 아파트 진출입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10여년 전부터 계속된 난개발 후유증으로 애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현장입니다.

주요내용

- 1) 등하교길에서 겪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
- 2) 용인시 정찬민 시장님! 지난 2017년 9월 21일 약속하신 구성중고 통학로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구성중고 통학로가 협소해서 등하교시 학생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왔고, 마북 근린공원 등을 이용하시는 입주민들이 좁은 인도로 인한 통행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용인시에서는 학생들의 안전

을 위해 총사업비 11억원(국비 7억원, 시비 4억원)을 확보해 인도를 확장하고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부지 약 900㎡(약272평)중 기존인도와의 경계부분인 벽산 아파트 소유 약132㎡(약39평)에 대해 용인시는 토지사용 보상절차를 조속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또한 구성중·고 통학로의 신속한 개설과 이를 위한 진행 계획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용인시민에게 공유하여 주십시오.

- 3) 정찬민 시장님을 포함한 다른 후보님들! 아파트 간 소통을 위해 소통문과 소통길을 추진할 경우,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 지원(비용, 토지주 협의 또는 매입)하여 주십시오.
- 4) 구성중학교 앞 산에 등산로를 조성하여 주십시오.
- 5) 위 사항은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에서 먼저 해야만 할 사항입니다. 15년 넘게 용인 시민들은 인도폭이 1m도 채 안되고 아예 인도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참으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렵습니다.
- 6) 통학로 길 확장, 통학문 및 통학로 지원사업, 등산로 조성에 대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검토하여 공약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조속히 실현시켜 주십시오.

참고사항 : 광주 일곡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마실길’ 기사

<http://cafe.daum.net/lovillageyeonwon/GWXp/1807>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02645.html#csidx0878f6f412432c89bb62bd0966bdba9>

참고사항 : 용인시보행로 개선방안

<http://cafe.daum.net/lovillageyeonwon/GDYG/271>

우리 용인시 소통의 길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아파트간 교류 활성화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 한마디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감도는 공동체로 변화시키자!

아파트 담장을 헐거나 통로를 내고, 텃밭을 가꾸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가르치고, 약수물도 나눠 먹고, 동네 축제도 열고, 체육활동도 같이 합시다!

- 김포신도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인프라 수준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형마트 혹은 문화시설이용이나 대형병원 등을 이용하려면 김포에서 일산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때마다 일산대교는 통행료가 발생함.
- 반대로 고양시민들이 일산대교를 건너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마곡단지에 대기업 연구소가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인프라가 갖춰진 일산으로 이사하였음. 자가용 출퇴근자기 마곡으로 가는 길은 일산대교를 거치거나 자유로를 타고 김포대교를 거쳐가는 등의 길로 나뉠 수 있는데 일산대교는 교통시간이 짧으나 통행료가 발생하고 김포대교 이용시는 통행료는 없으나 길이 막히는 현상이 있음.
-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김포-고양시를 통행하는 양쪽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됨(마곡단지 입주가 수년간 계속될 예정)
-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으나 어려울 경우 점진적으로 낮추다가 수년 후에 폐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일산대교를 관광지화 할 경우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함

남해군은 해마다 감소하고있는 인구의 유출을 막기위해 농어촌일자리 만들기에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년들과 아이들을 둔 젊은 부모들은 무관심으로 답변합니다.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바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타시군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고 청년들을 위한 창의적인 창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군청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말만 되면 젊은 청년들과 가족들은 아이들의 체험활동을 위해 타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찾아 남해를 잠시 떠나 주말을 다른곳에서 보냅니다. 이는 자연스레 읍내의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주어 주말이면 가장 한적한 시골마을로 바뀌게 됩니다.

하여 제안합니다.

교육복지에 가장 관심이 많은 오늘날의 젊은 부모들을 귀촌하게 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주세요.

아이들이 꿈을 찾고 미래를 그리며 청년이 내 자녀들과 오랫동안 살고싶은 남해를 만들어주

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진흥법에도 기록된 청소년 문화의집 하나도 없는 이 동네에 88프로의 국비와 프로그램 운영지원도 받을수 있는데 땅이 없고 돈이 없다는 무지한 말로 자꾸 주민들의 오래된 마음을 짓밟지 마시고 귀기울여주세요. 그래서 관광객만 힐링하는 도시가 아닌 살아가는 우리 주민과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달서구에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지역 대구광역시

안녕하세요.

달서구 유천동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달서구, 특히 상인동, 진천동, 유천동 근처에 중고등 학생 및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달서구에 몇몇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서구에는 성서, 본리, 두류 도서관이 있을 뿐, 상인동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기엔 거리가 있습니다.

달서구 송현로 (월촌역 근처)에 있는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학업을 하기 위한 청소년, 대학생에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인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는 남부 도서관이 있지만,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불편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약 40분 ~1시간 소요) 상인, 진천, 유천, 송현동 근처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제목 동구 광주천을 청계천처럼 예쁘게 꾸며주세요

지역 광주광역시

제가 살고 있는 학동쪽은 최근 개발로 인해 아파트등 주거단지는 엄청 늘어나고있는 반면 근처에 산책이나 런닝을 할만한 공간은 매우 부족합니다.

수도권을 보면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거의 공원이 같이 있어서 저녁에 산책하고 돌아다닐만한 공간이 많이 있는데, 아직 동구에는 그러한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산넘어 조대나 거주지와 먼 문화전당수준입니다. 사실 그곳도 공원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구요.

학동삼거리쪽 오래된 건물들을 싹 밀어버리고 공원을 만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광주천 도로를 좀 예쁘게 정비를 해서 산책할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광주천은 길만 있다뿐이지 평소에 가기는 좀 꺼려지는곳입니다.

그곳을 청계천을 본받아 예쁘고 꾸민다면 부족한 공원시설을 커버할수도 있고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함께 외부 지역 사람들에게도 남광주 밤기차야시장등과 연계하여 홍보한다면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쓰레기종량제 봉투 5ml 제작 및 판매요청

지역 강원도

강릉시장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가족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점차 초핵가족화로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일반쓰레기 봉투는 최소단위가 10ml 이다보니 환경을 생각한 알뜰한 분리수거를 제외한 일반쓰레기를 1인가구 생활자가 10ml를 채우려면 2~3주이상 걸리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악취와 주거공간의 비위생 등으로 봉투가 가득차지 않아도 버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낭비되는 쓰레기봉투비용은 물론이고 이 또한 다시 쓰레기가 되어 환경에도 나쁘고 또는 어차피 가득채우지 못할바엔 수고스럽게 분리수거 할 필요없이 그냥 쓰레기봉투에 모두 마구 함께 넣어 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환경에 대한 걱정과 여러가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인구변화의 추세에 맞게 5리터 또는 3리터 혹은 더 작은 단위의 쓰레기 봉투제작 및 판매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도 적용이 필요합니다.

최소 3리터도 1인가구가 뭐 그리 음식을 해먹는다고 3리터가 나오니까?

1리터단위로 봉투가 나오면 그날그날 바로버려 집안에 음식쓰레기 악취로 인한 고통에서 시민들이 벗어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곧 날씨가 더운 여름이 되면 더욱 빨리 부패되는 음식쓰레기 악취로 힘이 듭니다.

오죽하면 음식쓰레기를 냉동실에 얼려 모아서 버리는 비 위생적인 일이 생기겠습니까?

요약하면

1. 일반쓰레기 봉투 5ml리 혹은 더 작은 단위 봉투 제작 및 판매요구
2. 음식물쓰레기 1리터 단위 봉투제작 및 판매요구

진짜 필요한 현장의 작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 또한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던 무지한 엄마였지요. 하지만 아이가 입학을 하고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보이더군요.

보통의 경우 워킹 스쿨 정류장은 인도에 지지대를 이용한 표지판을 두어 그곳에서 아이들이 모여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의 정류장은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삼거리 도로 한쪽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하고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마저도 차들이 달리는 도로로 내몰리는 상황이라 구에 민원을 넣어 세이프 존(safe zone)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도로이다 보니 해줄 수 있는 것은 주차단속 밖에 없다는 말씀. 그리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말씀하셨지만 그건 역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여 워킹 스쿨버스에 대한 규정이나 보호법이 없나 찾아 해맸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껴 민원도 넣어보고 개선을 요청하다보니 너무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분들을 찾아가 호소하고 싶을 정도로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성북구에서 이를 처음 도입한 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5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안전생활 실천 시민 연합 등과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워킹 스쿨버스를 출범시켰고 현재는 워킹 스쿨버스 제도라 하여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성동구)를 비롯하여 많은 자치구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시면서 워킹 스쿨 제도를 도입 실시하시고 있는데요. 알아보다 보니 현재 있는 것이라고는 각 자치법규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뿐이더군요.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인데 너무도 허탈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 한 명의 아이가 등교를 위해 지나는 길이라면 당연히 통학로이며 등하교(통학)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면 그 또한 법을 만들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통학로로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류장을 다 안전한 인도에 설치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여건상 인도 없는 통학로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저희처럼 인도 없이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모여 출발할 수 있는 정류장의 세이프 존(safe zone)을 만들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워킹 스쿨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지자체마다 다른 표지판(워킹 스쿨버스 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지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홍보와 통일된 표지판 사용)
2. 워킹 정류장에는 기본적으로 셰이프존(safe zone) 설치 현행처럼 안전한 인도의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정류장의 수요 조사와 위치 선정에 있어 안전의 위험요소가 있다면 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현행도로법들이 있다 보니 이것저것 안되는 것만들이 있을뿐. 구청, 시청 아무리 찾아보고 법을 찾아보아도 가능한 보호시설물을 설치 할수 없더군요)
3. 정류장 부스 설치 : (일반 정류장 부스와 같은 공간이 생긴다면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고 다른 위험요소 들로부터 안전하게 모여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곳이 어떤 곳이며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효과와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4. 워킹이용시간대 늘리기 : (1~3학년까지 이용학년이니 하교 후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정규수업 후 방과 후 이용이 가능하게 이용시간대를 현실에 맞게 조절한다면 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없는 워킹맘들까지도 안전한 학교에서의 방과 후를 활용하고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이용하지 않을까요?)

제목 호매실 발전 제안

지역 경기도

- 첫 번째. 호매실 대중교통환경이 열악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먼저, 주민이 원하는 호매실-안양노선을 신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울권 뿐만아닌 수도권 직장인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며, 아시다시피 기업이전이 점차 많아 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호매실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입주량이 많아 지속적으로 입주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지방도 309호선은 하루교통량만 하더라도 10만대가 넘는 차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역, 화서역, 성대역등 환승하라고 할 뿐입니다. 부디 안양(범계, 평촌)을 오고가는 버스신설이 꼭 필요로 합니다.
- 두 번째. 호매실지역현황인 신분당선입니다. 5000억 분담금으로 낸 호매실주민들의 영원입니다. 부디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것이며, 꼭 해결해야할 사업입니다. 10~15년째 방치되어 있는 사업으로 현재 그거 믿고 분양받는 사람이 많으며, 호매실역예정부지로 상업시설이 즐비해 들어오고 있는데 호매실역이 여태껏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지역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부디 꼭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세 번째. 현재 무인대여자전거 시범운영한지 많이 지난 듯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호매실에는 깜깜무소식입니다. 단지내로 수변공원이 이루어져 있는 호매실에 무인대여자전거 설치를 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동가능토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넷째. 현재 호매실에 부족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칠보중, 호매실초, 중학교 리모델링(재건축) 하길 바랍니다. 현재 노후화된 환경에서의 불합리한 교육환경으로 아이들을 방치하기에 너무 보기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왔던 사항인거 같은데 요즘 들어 말이 없기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 다섯째. 1009번 노선 호매실경유 위에서 말했다시피 호매실 인구증가에 따라 판교, 잠실행 급행좌석버스가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잘아시겠지만 일자리가 많아 출퇴근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제안합니다.
- 여섯째. 호매실 택지 내 텃밭이 무분별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흉물처럼 보기 싫게 잡초가 무성하고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림에 따라 있어서는 안될 곳에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대규모 아파트주민들이 보는 앞에 텃밭으로 인한 비료냄새와 쓰레기 냄새로 더이상 지켜보기가 힘듭니다. 부디 텃밭을 옮겨주시고 원하는 민원인들 집앞에 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일곱째. 현재 호매실지구를 보면 마을버스 27-2번 버스 한대만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능실마을만 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호매실 칠보, 금벼슬(호매실 호반 더퍼스트, 홈플러스 서수원점)을 이용하고 싶어도 비싼 시내, 광역(좌석)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기에 마을버스신설이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여덟째. 호매실IC출, 입로가 좁아 교통정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IC출, 입로 확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입주민들이 늘고 차도 많아질텐데 아직까지 확장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 불편하고 힘이듭니다. IC출, 입로 확장이 꼭 필요합니다.
- 아홉째. 호매실 고속도로 방음벽 소음으로 인한 방음터널 시공을 하루빨리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주말이면 차량소음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방음터널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열번째. 호매실 학교부지 조속히 고등학교설립 가능토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다 호매실 행정타운 입체화공사로 인해 잠시 쓰고 있는데, 현재 호매실고등학교와 칠보고등학교로 신입생을 받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으며, 호매실에 사는 학생들은 저 멀리 화서, 정자동 복수원으로 올라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빈 나대지를 고등학교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1. 문제 제기

-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특히, 금전적인 부담보다는 시간(일정)이 안 맞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 아이의 등하교 시간, 돌봄 교실 끝나는 시각과 부모의 출퇴근 시각 불일치
-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휴교를 할 경우 마땅히 맡길 곳이 없습니다.

2. 정책 목표

- 부모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 "내 아이가 안전하게 등교를 하고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돌봐줄 믿을만한 사람"
- 가칭, 아이 돌봄 센터 조직 운영

3. 아이 돌봄 센터

- 운영자: 퇴직 (교육, 행정, 소방, 경찰 등)공무원, 공공기관 퇴직자 등
- 시설: 운영자의 가정 내
- 운영 규모: 5~6명 소그룹으로 운영
- 역할: 아이의 상황의 맞추어 탄력적으로 역할
- 도우미: 아이의 학부모가 운영자의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아이 돌봄 센터의 장점

- 운영자(퇴직자)는 아이를 보육하는 것이 아님, 출퇴근 시간이 안 맞는 부모를 위해 아이를 잠시 맡아주는 개념.
- 적절한 보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외동이 많은 가정끼리 형제애를 느낄 수 있고 이웃 간 왕래가 많아집니다.

5. 재원 조달

- 국비, 지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 초등학생의 경우 한 학급 당 하나의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여도 한 학년 당 5개 학급
* 6개 학년 = 30개 소그룹 소그룹 당 월 200만원 지급 시 월 6천만원 소요

6. 제안자 침언

예시 : 아빠 홍길동은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 아침 7시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첫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했지만, 오늘은 엄마에게 그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감기에 걸려 엄마도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빠는 아이 돌봄 운영자인 퇴직 공무원 김철수 씨에게 연락합니다.

"오늘 아침 아이 등교 좀 부탁드립니다." 아빠는 6시 40분 김철수 씨의 집앞에 아이를 내려 놓고 출근합니다. 아이 돌봄 운영자인 김철수 씨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1시간 정도 아이와 시간을 보낸 후 걸어서 10분 거리인 학교에 안전하게 아이를 등교 시킵니다. 낮 시간 동안 충분히 자기 볼일 본 김철수 씨는 오후 3시에 맞춰 초등학교 앞으로 갑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소그룹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아이들에게 TV나 책을 줍니다. 적극적인 김철수 씨는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3~4시간 정도 지나면 부모들이 와서 아이를 데려갑니다.

김철수 씨는 퇴직 후에 쓸쓸히 노년을 보낼줄 알았는데,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 홍길동의 입장에서 이 제도는 참 좋습니다. 남들처럼 학교에서 바로 이어지는 학원을 보내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학원보다는 또래 끼리 어울릴 수 있는 아이 돌봄 센터 선택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라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너그러이 받아주는 김철수 씨 덕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도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친하니, 자연스럽게 그 부모들과도 친해져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방안**

지역 **서울특별시**

□ 개요

현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는 첫째아이에 대해 유축기와 체온계, 둘째아이에 대해 보행기, 셋째아이에 대해 유모차, 유축기 또는 체온계를 무료대여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유축기를 대여하여 성공적으로 모유수유를 마쳤지만 여전히 필요한 유아용품(카시트, 장난감...)은 너무 많고 비용은 너무 비싸 아이를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직후에 필요한 물품도 많지만 아이가 커감에 더 많은 물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한파로 인해 각 가정생활도 어려워진 이때 아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인터넷에서 유아용품 대여해주는 곳은 많으나 실상 그 비용이 비싸 석달 정도 빌리면 새로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과 비슷해 중고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필요한물건과 파는 물건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에 제때 물건을 사기가 어려워 경제적 부담을 안고 새 물건을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아이가 물건을 사용하는 시기는 매우 짧아 그 후 처치곤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 개선방안

- 지역차원에서 유아용품유료대여사업을 실시하여 연회비2~3만원을 지불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대여할 때 일회로 지불하는 등의 방안을 연구하여 도민에게 제공합니다.
- 카시트처럼 장기간 대여시의 물건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받거나 추가비용을 더하여 대여합니다.
- 필요한 유아용품은 우선적으로 기증을 받거나 기증받는 조건으로 다른 물건을 대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시키며 부족한 용품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 준비(물품홍보의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기증을 받거나 할인받아 구입)를 합니다.

■ 기대효과

-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유아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됩니다.
- 단기간 사용 후 버리는 유아용품을 재활용할 수 있어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유아용품대여사업실시를 기반으로 더 많은 육아정책을 넘으로써 아이낳기좋은 도시! 아이기르기좋은 도시를 홍보함으로 이미지를 좋게합니다.

제목 금연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에 살고 있습니다.

정관은 전국에서 손꼽을 만큼 아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정관 거주자의 평균연령이 32세인만큼 앞으로의 출산도 많고 자녀가 셋이 가구도 많죠.

임신했을때도 잠시 산책을 나가면 아파트 입구부터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대니 피해서 다른 골목으로 가도 담배 저쪽으로 가도 담배 산부인과를 가기까지도 얼마나 돌아서 돌아서 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유모차를 끌고 나가는데 마찬가지로입니다.

특히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 사람있으면 한참을 후에 다시 출발합니다 횡단보도앞,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는담배, 아직 어린 아기에게 담배냄새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는것이 엄마마음이죠. 저출산이라고 출산정책 많이 내어놓는데 태어난 아이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곳만이라도 금연거리를 지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관 홈플러스 옆으로 걸으면 광장도 나오는데 여름엔 분수대도 운영해서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놀고 뛰어다닙니다.

홈플러스앞 횡단보도부터 그 광장을지나 cgv옆 육교까지 직선거리라도 금연거리 지정해주시고 좌광천으로 연결되는 거리 특히 어린이도서관과 장미공원까지 금연거리로 지정해주셨음 합니다. 비흡연자도 숨쉬고 걸어다닐 길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양공동체 중앙공원 조성추진

지역

충청남도

1. 귀 기관 및 선거후보자의 정책추진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지역에 필요한 공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니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여건 및 필요성
 - 지천변 및 청양읍 주변에 공원이 있으나 시내중심부에 녹지공간 부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로 인구정착 여건 미흡합니다.
 - 시내중심지 및 중앙상가에 공원조성으로 지역명소를 만들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휴식공간 및 상징공원 조성합니다.
 - 나. 사업개요
 -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시내 중앙지역(고림섬들)일원 - 총사업비 : 약 200억원
 - 사업규모 : 대규모 숲공원 약 100,000평방미터(30,000평) - 사업기간 : 2018 ~ 2022(5년간)
 - 다. 추진계획
 - 시설내용 : 공원안에 나무, 꽃, 예술품 등으로 꾸미고 고추, 구기자 등 특산물 등으로 공원을 조성합니다.
 - 이용추진 :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예술활동, 체험, 휴식의 명소를 만들고 관광객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 라. 기대효과 :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명소로 경제활성화 도모 및 휴식공간 확충으로 지역공동체 쉼터 제공합니다.
- 공약을 잘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 지리적 특성상 인천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타 지역보다 높다. 인천시민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기위해 생활공간의 개선을 요구한다.

2.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인가?

-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3. 정책을 실현하기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는?

- 타시도의 사례로 보아 구/시 조례 혹은 예산 지정시 바로 가능

▣ 제안내용

미세먼지 피해가 큰 인천시에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1. 인천시내 유,초,중,고 2016년 기준 921개, 어린이집 2018년 기준 약 2,000개에 공기정화장치 또는 공기청정기, 계측기지급으로 실내공기질관리 아이들이 장시간 지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공기질 관리가 되지 않아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이 문제된다.
(경남교육청은 모든 교사에 공기청정필터 배정, 소규모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2. 미세먼지 고농도인날 이용가능하도록 인천시 박물관, 도서관 공기정화장치 설치. 맑은 공기에서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인천시민에게 보장해달라!

▣ 주요내용

- “다음세대를 위한 대구의 미래유산” 이란 근현대 대구를 배경으로 다수의 대구시민이 기억하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을 바탕으로 다음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대구의 미래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정책사업을 말합니다.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자산이 되는 “대구의 미래유산” 을 선정한다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다음 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들어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대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근·현대 대구의 모습이 담긴 문화유산이 점점 사라지거나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미래유산은 가치평가가 불완전하고, 현재에도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전에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대구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현실은 대구 지역 내 현대화, 도시화, 산업화 과정 속에서 대구만의 자연, 역사, 전통, 건축물, 정서 등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세대에 비해 지역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있는 '대구미래유산'의 가치와 희소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대구미래유산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문화유산의 보전과 발굴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구시민들과 함께 다음세대에 전달할 잠재적 가치를 지닌 지역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해당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개선방안

- “다음세대를 위한 대구의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대구를 배경으로 다수의 대구시민이 기억하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을 바탕으로 다음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대구의 미래유산을 말합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유산 중 국가·대구시 지정·등록문화재로 등재되지 않은 유·무형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장소나 대구시민에게 잘 알려진 특색 있는 장소, 기념물을 비롯해 대구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총망라하게 됩니다. 서적, 건물, 예술품, 시장, 골목 등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기술, 음악, 경관 등 무형 자산도 선정 대상입니다.
- 예를 들어 대구 중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 측량원점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 때 설정한 대구의 첫 토지측량원점입니다. 구암원점으로 불리는 이 곳은 1909년도부터는 이름 없는 땅, 주인 없는 토지가 되어버렸지만 마침내 2013년 1월22일 104년만에 대구시교육청 소유로 등기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암원점이란 구한말 대구지역의 토지측량을 위한 최초기준점을 의미합니다. 이 부지로부터 우리나라 근대 토지제도가 수립되고 완성되었으며 이후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으로 확대되었으니, 이 지점이 바로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래 구암원점은 대구제일중학교의 일부 지점이라는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으나 2013년 1월22일 대구시

교육청 등기가 되어 104년만에 주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작은 돌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측량원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대구의 미래유산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5세기에 편찬된 ‘경상도 지리지’에는 거북바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랜 옛날 대구에는 큰 불이 자주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는데 연구산에 거북 모양의 바위를 가져다 놓은 후에는 불(火)기운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거북바위 방향은 대구의 명산인 비슬산 쪽으로 향해 대구의 불(火)기운을 줄이는 역할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방향이 돌려지는 바람에 대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사고(1995년)와 대구지하철 화재참사(2003년) 같은 대형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대구 지역 문화계 인사들은 ‘달구벌 얼 찾는 모임’을 만들어 2003년 11월 거북바위의 방향을 비슬산 쪽으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구의 역사와 전설을 간직한 채 오늘날까지 그 모습을 전함으로써 후손에게 옛 조상의 정서와 숨결을 느끼게 하는 귀중한 대구의 미래유산입니다.
- “대구미래유산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미래유산 발굴 및 제안은 대구시 홈페이지, 대구시 SNS, 대구시 마을공동체 사업 등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구시민, 자치구, 전문가와 더불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미래유산 후보를 신청하게 되면 대구시가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미래유산위원회가 후보를 심사하고 적합한 것을 대구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유산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대구의 미래유산으로 최종 선정되고 유산 소유자는 인증서와 동판 형태의 표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구미래유산”의 추진배경과 개념 등을 홍보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대구미래유산 선정을 위한 시민제안을 1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시민들에 의해 제안된 미래유산은 현황조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예비목록에 등록된 후 ‘다음세대를 위한 대구의 미래유산’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됩니다. 제안할 미래유산의 유형으로는 대구시의 특징이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건축물·물건·예술작품 등의 인공물, 시장·마을·골목과 같은 장소, 생활 의식·풍습·오래 이어져온 기술 등 유·무형의 유산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대구의 미래유산 사업을 통해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대구만의 역사성을 담은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시민들 스스로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의 이야기가 담긴 가치 있는 문화유산들이 발굴되고 보존되어 갈 것입니다.

■ 기대효과

- “다음세대를 위한 대구의 미래유산”을 통해 앞으로의 세대가 이어나가고 지켜나가야

할 대구의 미래유산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만약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대구 지역만의 미래 유산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생겨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구시민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대구미래유산의 가치와 희소성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알릴 수 있으며 대구시의 브랜드가치 상승과 함께 대구시민들의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구미래유산’이 함께할 것이며 지역문화의 상생을 이루어낼 것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대구만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대구미래유산”이라는 문화역사 발굴프로젝트로 대중매체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입소문으로 이어지면서 대구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미래유산의 홍보효과는 두 배 세 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대구의 미래유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상징사업으로써 새롭게 도약할 것이고, 대구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은 물론 주민을 잇는 관계망에서 대구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유산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목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미세먼지 솔루션

지역

대구광역시

■ 주요내용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미세먼지 솔루션!”이란 일단 사물인터넷은 데이터를 측정하는 기술인데 간단하게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구시 전역에 설치된 스마트폰 무선기지국에 미세먼지를 감지하는 사물인터넷 센서들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인하며 미세먼지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시스템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대구광역시 전역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소 간 간격이 최소15km이상 떨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측정값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가까운 예로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 행정동이 38개나 되지만 미세먼지 측정기는 진천동에 1대, 호림동에 1대, 달랑 두 대를 가지고 달서구 전체의 미세먼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미세먼지를 시단위로 구단위로 크게 나뉘어 측정값을 정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예보결과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 또한 지난해 5월에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가운데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하는 등 대기질 측정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역시 65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대가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하였습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환경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부터 4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2014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목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 드론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구시민의 지속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미세먼지 솔루션”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개선방안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미세먼지 솔루션”이란 사물인터넷은 데이터를 측정하는 기술인데 간단하게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를 감지하는 센서들을 대구시 전역에 설치된 스마트폰 무선기지국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인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시스템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 먼저 스마트폰 무선기지국에 미세먼지 센서들을 설치하자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관측소가 없는 지역은 많지만 스마트폰 무선기지국이 없는 지역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2m이상~10m이하를 기준으로 스마트폰 무선기지국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 다음 미세먼지의 농도나 수치를 파악하고 LTE망을 통해 가까운 대구기상청이나 대구환경공단으로 데이터를 넘긴다면 빠르고 정확하며 효율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물인터넷이 전송하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동네만의 “미세먼지 생활지도”를 제작할 수 있으며 내가 자주 가는 지하철역, 학교, 쇼핑몰, 공원 등 장소별로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생활환경정보 소셜네트워크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시 단위로 구 단위로 미세먼지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미세먼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지고 이 작업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면 미세먼지 관측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비용과 인력운영의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무엇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미세먼지와 관련된 수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무선기지국은 대구시 전역에 어딜가나 설치되어 있고 구마다 동마다 촘촘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무선기지국에 미세

먼지 센서를 부착한다면,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정확하게 미세먼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같은 교육기관 등 미세먼지의 취약한 어린 아이나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모든 환경에서의 미세먼지 수치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장비설치 및 현장조사 등 간접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나 지역재생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실행방안

- 일단 시범적으로 ‘미세먼지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스마트폰 무선기지국에 미세먼지 감지센서를 부착하고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미세먼지 수치와 정보를 가까운 대구기상청이나 대구환경공단 클라우드와 스마트폰 어플로 전송하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에는 GPS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정보와 해당장소의 미세먼지 수치, 미세먼지 등급, 시간대별 미세먼지 그래프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외출 시 예방대책이나 준수사항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수집된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생활환경지도”의 영역을 제작해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 이런 결과를 토대로 대구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지역과 주요 발생장소로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세먼지와 연관된 생활환경개선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지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수집한 미세먼지 발생지역과 발생비율을 통계적으로 환산하고 그 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우드소싱 미세먼지 지도나 스마트폰 어플로 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신호등 색깔로 미세먼지 위험도를 확인하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구청, 기차역, 지하철역 등 차량 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미세먼지 상태를 수치로 알려주는 것보다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신호등 색깔로 알려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등 색깔만 봐도 미세먼지 위험도를 알 수 있으며 설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미세먼지 측정소의 미세먼지((PM10, PM2.5)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80\mu\text{g}/\text{m}^3$ 이하면 초록색, $81\sim 150\mu\text{g}/\text{m}^3$ 는 노란색, $151\mu\text{g}/\text{m}^3$ 이상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지센서들이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기의 질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반응과 댓글을 적을 수 있으며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OS)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스마트폰 어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기반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측정해 스마트폰 어플로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지하철역, 학교, 쇼핑몰, 공원 등 장소별로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생활환경정보 소셜네트워크를 만들어 나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미세먼지 정보와 수치를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스마트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우리 대구지역만의 생활환경지도를 만들어간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미세먼지 솔루션”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 기대효과

-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내 주변 환경의 미세먼지 환경지도를 제작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호기심을 넘어서 대구시민의 공공데이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250만 대구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을 사전에 줄일 수 있고 미세먼지 생활환경지도를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미세먼지 예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또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미세먼지 환경지도” 제작을 통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절대 다수가 일반 서민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서민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감소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 증진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는 웰빙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에코아이디어입니다.
- 무엇보다 대구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미세먼지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 생활지도를 만들 수 있어서 대구시 전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세먼지 예방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대구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속가능한 미세먼지 예방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의 센서 하나로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에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목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분리수거 시스템 전반 개선

지역

경기도

1.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분리수거시스템 전반 개선

- 현재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종일 식으로 이루어지는 분리수거를 좀 더 세밀화 (일본의 경우 페트병과 뚜껑을 따로 수거함)
- 기업의 각종 유리 및 플라스틱 용기 재질 규격화 유도: 다른 용기들과 섞여 수거되어도 재활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 호환성 높은 원료로 만들어진 용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의 혜택 제공.

- 가정에서 재활용품 배출시 깨끗하게 세척해 철저히 분리할 수 있도록 유도-덴마크와 같이 대형 마트 어디서든 구매처와 상관 없이 각종 플라스틱과 병류 수거함을 비치하고 깨끗하게 세척된 용기 상태를 스캔하여 확인하고 용기별 환급금을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음식점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반찬(접시)별 요금제 도입, 먹고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도록 유도, 남은 음식 담아갈 그릇을 가져올 경우 음식값 할인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고 손님들도 자신이 남긴 음식 싸가지고 가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임.

제목

BMW(bike, metro, walk) 친화형 깨끗한구리 만들기

지역

경기도

○ BMW의 의미

B: Bike & Bus

M: Metro

W: Walk

○ 대중교통 이용률 상승 정책 추진

- 지하철 역 및 주요 버스 정거장에 공공 자전거 대여 및 반납 시설 확대. 서울시, 남양주시와 연계하여 구리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서울 또는 남양주에서 반납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보관 및 자전거 반환상의 문제 때문에, 타 교통수단 환승시의 불편함 때문에 자전거 이용을 꺼려하지 않도록
- 연말 정산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대폭 확대(60~70%까지)
- 구리 둘레길에서 동네 구석구석까지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걷기 좋은 거리 조성

○ 대안 에너지 사용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공기관의 옥상 및 주차장 등에 태양광 등 대안적 에너지 발전 설비 의무화
- 공공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단위의 태양광 설비시 지자체 지원 확대
-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등 민간의 자생적 대안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주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확대를 위한 세금 감면 및 충전소 운영주체 지원 확대

○ 세금감면 및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고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가 필연적으로 따라오지만 버스 한대면 승용차 2-30대, 전철 차량 1개면 50~100대의 승용차를 대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매년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교통혼잡비용, 건강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지출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임.

제목 용인중앙시장 아뜰리에를 아이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

지역

경기도

용인중앙시장 체험공방 공간인 아뜰리에 현수막과 청한상가 입구에 작은 간판을 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활성화 된 가게들도 있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 문을 닫아 천막을 쳐놓은 가게들도 몇개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좋았지만, 들어가는 입구도 찾기 어렵고 어수선 합니다.

이공간을 경기도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꿈의학교를 하는 아이들의 모임이나 작은소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용인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여 아이들도 시장을 쉽게 접할 수있고 꿈의 학교를 하며 모일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거나 어려웠는데.. 여러 학교들이 모여 서로 협동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흥구, 수지구 쪽은 여러 방향으로 배우는 공간이나 체험이 많은데 반면 처인구 쪽은 아이들이 모임 건전하게 모이는 공간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건전하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자유롭게 끼와 소질을 발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지역

서울특별시

지역발전을 위해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지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한예종이 이전위치를 확정 지은 것은 아니지만, 석관동을 떠나기로 한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있다.

한예종 부지를 성북구가 지역활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수 있을지가 광견 인것같다. 한예종 부지옆 의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공간이 되어버렸다.

릉의 회손을 막기위함 이긴 하지만.. 가족들이 나들이용으로서는 부적합 하다고 생각한다. 돛자리도 펼칠수 없이! 단지 릉만 한 바퀴 돌고 나올수 있는 형태로 제지 해 놓았다.

그러해 깨끗함과 룡을 보존 할수 는 있지만 주민들의 원성도 가득하다.
 거기에 한예종 마저 이전을 하고 나면, 주변 상권과 주택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부지를 사용할수만 있다면!

1. 가족들이 함께할수 있는 물놀이장

예를 들어 주변 동대문구나, 중랑구, 동대문구 같은 경우 중랑천을 중심으로 수영장이 있다.
 중랑천을 끼고 있는 성북구 주변 타 구들은 워터파크 야외수영장이 존재한다.
 (노원구 -각심물놀이장, 동대문구-동대문구야외수영장, 중랑구- 신내근린공원 물놀이장)
 사람들은 그런 곳을 찾아 다른 구 들에 위치한 시설을 찾아 돌아다닌다.
 그러나 성북구는 그러한 공간이 너무 없다.
 그러함이 성북구에 사는 주민으로써 자부심도 잃게 만든다.
 가족이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 놀이터가 조성된다면, 관광객들도 오고 주변 상권도
 자동적으로 좋아 질것이라 생각 된다.

2. 공원 or 텃밭 or 도서관(문화공간)

석관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강북구의 '북서울꿈의숲' 있다.
 의릉의 부지가 그냥 공원 숲만 된다면 이곳과 차별이 되지 않는다.
 식구들, 다양한 연령층이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행
 사를 할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듯 하다.
 주민센터에서 조그마한 텃밭이나 식물을 간혹 제공해 주기는 한다.
 하지만, 어차피 세계문화유산 주변이어서 불가능한 시설들이 많다면, 친환경을 유도할수
 있도록 일부 부지를 주민들에게 추천을 통해 텃밭으로 제공되어도 좋을 듯하다.

3. 공영주차장

주차할 곳이 부족한 탓에 공영주차장 타워도 괜찮다고 본다.
 성북구가! 석관동이! 지금보다 더~ 아이들과 함께 살기좋은곳,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문화
 공간이나 스포츠 공간 이 되면 어떨지..

제목 환한 동네, 안전한 동네 **지역** 대구광역시

대구 서구의 경우, 대구 지역 내에서도 낙후된 동네로 손꼽힌다.
 요즘 대구지역 재개발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많은 동네들이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
 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경우 타 구에 비해 지역 개발 및 도시 재생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보다는 아이들의 안전, 노약자들의 안전 분야에 대

해서는 더이상 늦춰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번째, 낙후된 동네인 만큼 정리되지 않은 좁은 골목들이 많다. 이러한 골목에 LED가로등을 설치해 조금더 밝은 골목들이 되었으면 한다. 요즘 차에는 블랙박스가 대부분 달려있다. 골목에 환한 LED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목화로 인해 범죄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자의적으로는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제한 폭 이하의 도로에 불법주차 금지에 대한 규제가 있었으면 한다. 불법주차의 경우 우리 지역 뿐 아니라 타지역에도 문제가 도니다고 생각한다, 불법주차로 인한 골목 내 차량 통행 불편 및 노약자들의 통행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타지역에 비해 월등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역 내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의 2가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워 주셨으면 한다.

제목 담배연기 없는 거리 시범도시 운영

지역 부산광역시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공약에 의견으로나마 참여하게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표제와 같이 담배연기 없는 거리(도시)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서구는 명지신도시로 인해 부산에서 신혼부부(임산부)와 어린 아이가 가장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들에게 해로운 담배연기가 노출되는 것이 무척이나 우려스럽습니다.

담배연기없는 도시를 운영하려면 흡연자들의 권리도 잘 충족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되, 흡연장소(부스)를 잘 마련해주고 운영한다면 큰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흡연부스는 버스정류장과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이 잘 다듬어져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 바다 해안가 주변 쓰레기 문제 정책제안

지역 인천광역시

인천 바다 해안가 주변 쓰레기 문제 정책제안

정책제안 주제 : 바다 해안가 주변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

■ 제안이유

곧 다가올 행락철을 맞아 바다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해안가를 따라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근 카페 등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커피용기나 페트병 뿐만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포장용기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해안가에 밀려온 폐어구나 플라스틱 쓰레기같은 해양 쓰레기로 인해 바다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제안내용 및 자원조달방안

- 1) 해안가 주변에 '쓰레기투기 금지안내판' 및 '양심거울'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도모하면 좋겠습니다.
- 2) 해당 지역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해 깨끗한 해양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면 좋겠습니다.
- 3)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팸플릿 자료 배포를 통해 '관광객 스스로가 먼저 쓰레기 안버리기',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면 좋겠습니다.

■ 소요예산

안내판 및 거울 설치비 500만원

팸플릿 제작비 : 50만원

캠페인 추진비 : 1000만원~

제목 발산빗물저류지 개선을 조속히 진행해 주세요

지역 서울특별시

발산근린공원내에 2008년 발산지구의 빗물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빗물저류조가 있습니다. 이후 인근 마곡지구개발이 어느정도 완료가 됨에따라 발산빗물저류조는 기능이 축소되고 있으나 개방된채로 악취발생과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우범우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곡엠밸리 14단지 2동, 12동, 13동 주민들은 거실방향이 저류지 방향이라 경관은 둘째치고 창을 열고 생활 할 수 없을 정도의 악취를 맡으며 관찮아 지겠지 하며 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2017년 발산빗물저류지 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이뤄지긴했지만 강서구청 재원부족으로 복개에 대해 엄두를 못 내고 있는듯 합니다.

공원 또한 인구유입에 따라 공원이용면적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근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마땅히 외부 활동할만한 시설이 부족하여 발산근린공원을 이용하나 일시적으로 다수 어린이집 활동이 집중될 경우 되돌아가는 경우도 왕왕 있을만큼 이용자에 비해 협소함도 있습니다.

악취해결, 도시미관 개선, 공원의 확충을 위해서라도 발산빗물저류지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언제까지 미뤄야 할까요?

부분복개로 악취 해결과 저류지 기능을 하며 일부분 비용이 저렴한 데크 시공이라던지 수변공원, 도시 텃밭조성등, 조금의 관심만 있다면 얼마던지 큰 예산없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강서구 발산빗물저류지 개선사업 유권자로서 적극 제안해봅니다.

제목 시내 대형 공기청정시설 설치 제안

지역 서울특별시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 맞먹는 미세먼지 수치를 보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방안

최근 중국서부 지역에서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3cGdad9ygY>) 확인해보니 여의도 전체면적보다 큰 지역의 공기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시설내 온실효과를 이용해 공기를 흡수 배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동력원도 필요없고 소음 문제 또한 모터를 이용한 공기청정에 비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상기한 대형 공기청정시설을 시내 곳곳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의도 이상의 면적을 커버 가능하만큼 많은 설치가 필요하진 않을 것이며 우선적으로 1~2개소를 설치해 효과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위치는 제안자가 살고 있는 노원구의 경우 이전될 예정인 창동차량기지 부지 혹은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산(山)에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조달의 경우 이는 대한민국 공기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의 시범적이고 시발적 사업이기에 중앙정부 예산 또는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 기대효과

도심지 공기질 향상으로 인한 국민건강 증진.

안녕하세요, 25살 지적장애 2급이 있는 남동생을 둔 사람입니다.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까지 부족했지만 그래도 간간이 교육부나 시에서 도움을 받아 성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졸업 후에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동생에게 성교육을 제공하려 노력했지만,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사회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들을 위한 자료조차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알게 된 국립법무병원에서 성범죄자 교화를 담당하는 이장규 임상심리사를 통해 우리나라 성범죄자들 중에 발달장애인들의 비중도 꽤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 부재로 인한 잘못된 성적 가치관과 부족한 성적 의사 소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들은 발달장애인들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성인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전문기관이 전국에서도 몇군데 없고, 있다하더라도 대부분 6명 이상의 단체교육만 진행하고 맞춤형개인지도는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 실정. 꼭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마냥 어린아이 같다면 발달장애인들의 성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는 현 우리 사회. 사실 이런 지적 능력 때문이라도 성교육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동네 공약제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전문적인 성교육을 꾸준히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신청해봅니다.

발달장애인과 성범죄관련 기사: <http://www.sedaily.cNewsVi10NPBP7VCW>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 제안 공약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은 한강대교 남단 노들로상에 위치한, 동작구 노량진동-흑석동을 잇는 노들고가차도를 철거하자는 것입니다.

▣ 배경

해당 고가차도는 현재 왕복 4차로로 개설되어 있으나, 교통 흐름에 기여하는 바가 적고 그에 비해 고가차도 하단에는 적재물이 방치되는 등 도시 미관을 해쳐 그 철거가 동작구의 일종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향후 노들꿈섬 조성과 노들로를 친환경도로로 조성하려는 계획과 연계하여 노들고가차도를 철거하기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https://opengov.seoul.go.kr/mediahub/9660798>). 이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인 친환경적, 보행자 친화적 도시 조성 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계획이 2016년에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이 된 현재까지 해당 고가차도를 철거하려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동네 희망공약"으로서, 노들고가차도의 조속한 철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기대되는 효과

- 가. 노들로 - 한강대교 - 노들꿈섬으로 이어지는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가능
- 나. 노들고가차도 및 하단 적재물들을 제거하여 도시 미관 개선
- 다. 양녕로 및 노량진로에서 한강대교 방향 진행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노들로 여의도 방면으로 진입 가능
- 라. 노들로상 양 방향 진행 차량이 유턴 가능
- 마. 위 다, 라항으로 인해 한강대교 중단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하는 불편함 개선(노들꿈섬 조성 시 한강대교에서의 유턴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

▣ 부작용 유무

위와 같은 효과에 비해 노들고가차도를 철거했을 때의 교통 불편은 거의 없고 오히려 차량 통행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노들로상에는 흑석역 인근부터 동쪽 국립현충원 방면으로 계속해서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노들고가차도의 교통 흐름 개선 효과가 미미(좁은 고가차도 위에서 상습적으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음)
- 나. 노들고가차도를 철거할 경우 해당 부분의 노폭이 넓어져 최소 편도 5차선, 왕복 10차선의 도로를 조성할 수 있음
- 다. 신호체계 개선으로 인해 한강대교에서 상도터널 방향으로 진행(직진)하는 차량과 노들로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진행(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 간 사고 발생 위험이 감소
- 라. 과거 바로 옆 노량진로 상에 위치하던 노량진고가차도를 철거한 바 있으나, 적절한 신호체계 완비와 노폭 증가로 인해 교통 흐름에 악영향이 거의 없었던 사례 존재

❑ 재원 조달 방안 등 현실성

노들고가차도는 이미 서울시가 ‘고가차도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교통운영개선방안 수립 및 관리기본계획용역’을 통해 철거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다수의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서울역 고가차도를 보행로로 전환하며, 종로에 자전거 전용차선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행자 중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이 존치에 따른 이득이 거의 없는 노들고가차도를 철거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사업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결어

그렇지 않아도 주변 녹지가 부족한 인근 주민들은 생활 속의 휴식 공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노들고가차도의 철거는 노들꿈섬 조성과 연계되어 동작구에 숨통을 트이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환경'과 '교통 흐름'은 상충하는 가치로 여겨지나, 이 경우 단순히 노들고가차도를 철거하는 것만으로도 드물게 두 가지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존재 의의를 다 한 노들고가차도를 하루 빨리 철거하는 것이야말로 동작구에, 나아가 서울시에 희망을 주는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철곡 중앙초등학교 앞에 신호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주세요

지역

경상북도

❑ 제안이유

학교 앞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고 아침에는 녹색어머니회와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아저씨들이 교통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가슴이 철렁내려앉습니다. 아이들 하교시간에는 교통단속하는 아저씨들이 잠깐 단속해주시고 퇴근하시기 때문에 방과후 활동이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됩니다. 휴일에는 학교가 쉬는 날이라고 신호무시하는 차들이 더욱 많습니다.

❑ 주요내용

스쿨존은 교통위반 과태료가 2배라고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달면 과태료가 무서워서라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중앙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초등학교도 위험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방법용 cctv대신 신호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로 교체해서 달면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유지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설치하기 전에 민

원이 발생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지해 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제목

아름마을 주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주변 공간의 활용

지역

경기도

제가 아름마을에서 거주하면서 느낀 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 아름마을 삼호아파트와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우아파트 앞 출퇴근시간 상습정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운중천과 이매2동주민센터 사이에 있는 도로를 판교 쪽 도로와 연결하는 안입니다. 분당수서간도로를 통과하는 구간은 운중천 옆 소나무 숲 공간을 운중천의 뚝 역할을 하도록 하고, 도로는 현재 공원화 공사하는 곳을 지하도로 만들어 판교 쪽 도로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분당수서간도로 건너편 판교 쪽에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연결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20년 전 삼호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그 당시보다 버스노선 몇 개가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서울에 가는 버스 9407, 성남시내버스 55, 55-1, 116, 마을버스 3-1 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이어지면 삼호아파트와 풍림아파트 주민들은 판교역이나 아트센터 쪽의 여러 노선버스와 지하철 신분당선, 분당선, 경강선 이용이 훨씬 수월해 집니다. 그리고 분당과 판교를 오고가는 교통량이 분산되어 출퇴근 시간에 대우아파트 앞 도로의 상습적인 정체도 해소되어 대우아파트, 건영아파트, 태영아파트, 한성아파트 주민들도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걱정이고, 서울에 나갈 일이 있으면 버스를 타고 야탑이나 판교에 가서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을 합니다. 지금은 판교에 갈려면 55번 버스를 타고 탄천을 건너갔다 다시 건너와서,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합니다.
- 휴먼시아어울림 9단지과 운중천 사이에 있는 공간 활용이 아쉽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중공원으로 꾸며졌다는데 이용하는 주민도 없고,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여름에는 벌레들의 서식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넓은 공간이 아름마을 주민들과 판교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합니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아니면 현재 분당수서간도로 공원화하는 곳과 연결시켜 소공원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해운대 마린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린시티는 부산을 대표하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면 마천루가 밀집해 있는 부산의 레전드입니다. 또한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천만 관객이상을 흥행작을 거리에 부착시켜 해운대하면 해운대해수욕장과 더불어 영화의 거리로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마린시티 입구 방파제에 낚시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행위로 인한 주변 경관 및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많은 상춘객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 많은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로 인한 주변 환경이 많이 파손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의 거리를 보기 위하여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고 있는 반면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더불어 많이 몰려 늦은밤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지렁이 등과 같이 냄새가 많이 나는 생물 등으로 인하여 심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해운대하면 시원한 바다와 맑은 하늘을 연상시키는 방문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낚시행위를 다른 장소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중국 청도에 가보니 낚시로 인한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낚시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 우리 부산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상으로 어려우면 지정된 장소와 인원을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방문객의 좋은 인상은 해운대를 두번 세번 여러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 깨끗한 환경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1. 외적 동기

- 장흥군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기감 증대
- 예전부터 문림의향으로 불리우며 대한민국 최초로 문학관광특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을 유입할 만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
-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극대화하고 예산낭비를 줄이면서 지역을 되살릴 사업의 필요성 대두
- 백광홍, 위백규, 문재구, 이청준, 한승원(한강 작가의 부친), 송기숙, 이승우, 위선환,

이성관, 김영남, 이대흠, 김녹춘, 이봉준 등 수백명의 저명한 문화예술인을 배출했음에도 이를 기념하거나 계승할 방안의 부족

- 우리 근현대문학의 보고이자 산실로서의 장흥 이미지 제고 및 홍보 절실
- 귀농인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등이 문화, 교육, 스포츠, 레저 등을 즐기거나 배우고, 공동체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
- 예산의 상당부분이 도로확대 등 토목공사 중심의 외형적 성장 위주로 집행 됨에 따라 지역토착업체와 결탁 등의 부정의 우려가 있어 지자체 구성원의 인식전환 필요
- 인위적인 관광객 유치보다는 천관산, 제암산 등 장흥 유명산 등반객들이나 장흥물축제 등에 방문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며칠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내적 동기

오래전 고향을 방문했다가 하나뿐인 편의점에서 마주친 청소년들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 친구들은 이 외진 곳에서 주로 무엇을 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까! 벗들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혹시 졸업 후 바로 대도시로 가려나' 하는 생각 등 상념에 젖었다. 물론 나름 잘지내겠지만 생각하면서도, 아쉬움이 남아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사업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몇년전 고향 관산읍내를 방문했을 때 관산고에 우연히 들렀다가 잡초가 우거지고 거친 자갈밭 같은 학교 운동장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 그래 내가 고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앞으로 귀향할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내실있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존속을 바라며, 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출향민이나 도시인 중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내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사업을 제안함

■ 주요내용

1. '지속가능한장흥' 명칭의 단체, 공동체 또는 연구소 설립

- 사단법인,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설립하고 지속가능한 장흥을 위한 전체적 사업기획 및 관리, 운영 등을 주관
-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시스템 및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도 구축
- 장흥의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역사 등의 콘텐츠 발굴 및 보급 수행
- 책마을 및 장흥문화예술역사타운 조성 등의 추진을 위해 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구축
- 관산책마을 조성 주도 및 장흥문화예술역사타운 등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영국 책마을, 중국 나뭇가지도서관, 일본 홋카이도의 히가시가와 마을, 독일 프라이부르그의 보봉마을 등 외국의 우수 사례 수집 및 분석, 대안 제시

- 법조인, 건축인,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등 전문가 위주의 자문단 구성
(*지속가능장흥.COM 등 관련 도메인 확보)

2. 핵심사업

1) 관산책마을 조성

- 장흥출신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점을 토대로 군의 중앙인 관산읍내에 빈 상가나 건물 등을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여, 문화예술인들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의 목적으로 문화예술인의 존함을 도서관이나 서점 등에 명명
- 장흥문학인전문도서관, 이청준기념(서편제)도서관, 한승원한강도서관, 송기숙녹두장군도서관, 김녹촌어린이도서관, 이대흠시문학도서관, 김영남동백꽃도서관, 디지털(전자책) 도서관, 세계여행전문도서관, 외국도서전문도서관, 만화북카페, 중고도서서점, 일반서점 등 책테마의 거리 조성 (*사전에 관련 문화예술인들의 존함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음) (*본인 소유의 수천권의 책을 우선 기증하고, 점진적으로 기부와 구입 등을 통해 수십만권의 각종 도서를 구비할 예정)
- 다문화 가정 어린이, 어머니를 위한 다양한 외국어 서적 구비 및 장애우를 위한 점자책 등도 비치
- 읍내 거리 곳곳에 문화예술인 조각상이나 작품을 나열한 조형물이나 벽화 등 조성·설치
- 폐교 등을 활용한 장흥문학인학교를 개교하여 문학창작교육과 숙식 제공
- 장흥출신 문화예술인을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문학창작교육 시행
- '책마을.COM', '책마을.닷컴' 등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 홍보시스템 구축
- 1년이나 2년에 한번 '책마을축제'를 개최하여 독서의 중요성을 알림
(*책마을 관련 한글도메인주소 이미 확보)

2) 소규모 미술관과 전시관, 박물관 등 문화, 예술, 역사 관련 시설 개관

- 장흥출신 예술가들을 기념한 마동욱장흥사랑갤러리, 장흥출신서예인전시관, 김천두·김선두·김선일미술관, 위용환미술관, 전범수조각전시실 등
- 관서별곡의 백광홍, 실학자 존재 위백규 등의 기념관 건립도 중장기적으로 고려

3) 유명 문화예술인의 생가를 고증을 거쳐 완벽 복원하고, 안내 및 설명자료를 내실화함과 동시에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 도모

3. 부대사업

1) 공부방 내지 학원, 소극장 개원

-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내지 수학전문학원 등 개원, 영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회화 교육(다문화가정 어머니 등을 활용) 실시

- 대학진학 청소년들을 위해 서울 유명학원과 제휴하여 온라인 입시 교육 추진
 - 진학 및 취직 상담업무도 병행
 - 영화나 다큐,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소극장 건립
- 2) 관산고 등 군내 미포장 학교운동장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 추진
- 3) 이순신장군 회군길, 문학인의 길, 동학농민운동기념길 등 조성
- 회진의 회령진성까지 이순신장군의 조선수군 재건길을 역사적 고증을 거친 후 도보길로 재정비하고 회령진성을 완벽 복원하여 역사적 유적지로 지정
 - 장흥읍 석대들의 동학농민운동기념관 등 유적지와 동학군의 최후 격전지인 관산의 고읍천 주변을 연계한 기념물이나 기념길 조성
 - 문화예술인 관련 지역을 연결하는 산책길 내지 자전거도로 조성
 - 제주의 오름 등에 설치된 야자수매트를 구입하여 산책로 등을 고급화함
- 4) 천관산동백림 접근성 개선 및 관광자원화
-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천관산동백림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관산읍내에서 동백림이 있는 부평리 신평마을까지의 칠관로에 동백나무길을 조성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도로 조성
 - 신평마을, 부평리, 농안리 등 주변마을까지 동백숲 확대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동백을 활용한 다양한 영리사업 추진
 - 동백숲 보호를 위해 탐방로에 야자수매트 설치 검토
- 5) 장흥의 문화자원 및 역사자원, 맛집, 명소들을 소개하고 합리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팸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6)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장흥읍내에 친환경렌트카업체를 만들어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구입하여 대여형태(유료)로 여행자 등에게 제공
- 7) 용산 마실장 및 지역특산품 유통 활성화
- 귀농인들이 한달에 한두번 열던 용산면의 마실장을 좀더 활성화하고, 귀농인이나 군민들의 제조, 재배, 생산한 것을 도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 개설 (*장흥의 특산품인 장흥한우, 키조개, 표고버섯, 청태전, 우전차, 매생이, 무산김, 귀족호두 등 지역 특산품이나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지원)
 - 용산 마실장의 주변환경 개선 및 무료주차장 확보 추진
 - 장흥에서 생산되는 감귤 및 한라봉 등 만감류 등을 서울에서 청과법인을 운영하는 지인들을 통해 이마트, 신세계, 롯데 백화점 등에 납품 추진 (*마실장, 닷컴 등 도메인 이미 확보)
- 8) 군내 읍면 소재지에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당구장, 탁구장, 야구연습장, 트램폴린 등을 설치하고 무료로 이용하게 함

- 9) 군내 읍면 소재지에 유아나 어린이를 위해 구매하거나 기증받은 물품을 이용한 무료 장난감대여점이나 다양한 놀이공간 등을 조성
- 10) '아름다운 가게' 등을 유치하여 기증물품 등을 지역 소외계층에 염가로 판매 또는 무상 제공
- 11) 천관산동백림 주변에 대나무를 활용한 대나무도서관 및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여행자를 유치하고, 도서나 기타 물품을 기증한 분들에게는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거나 장흥산 특산품으로 답례할 예정
(*중국의 쇠락한 마을을 살린 나뭇가지도서관을 벤치마킹)
- 12) 장흥이나 관산행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에 각종 책을 비치하여 장시간 여행하는 분들에게 편의 제공(금호고속 등과 협의)

4. 중장기 목표

-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풍부한 문화, 관광, 역사 자원을 연계한 장흥문화예술역사타운을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문학관광특구로 거듭남
- 국립한국어학교나 국립문학인학교를 유치하여 국내외의 유학생 등 유치
- 사인정, 동백정 등 탐진강 주변의 정자들을 새단장하고 진입로 정비
- 관산읍 방촌리 일대 선사유적지와 고택 등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대책 마련
- 회진면 선학동 유채밭의 확대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종합적 사업계획 수립
- 영화계 거장 임권택감독 작품의 촬영지인 남포나 선학동 주막세트장 등을 보존하며 드라마 '신의' 촬영지 등도 재정비하고 향후 영화나 다큐, CF, 드라마 촬영 등을 유치하기 위해 미디어/SNS 홍보방안 수립 및 수행
- 천관산동백림 보호를 위해 지자체 또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 내지 보호구역으로 지정(국립 or 도립 동백림으로 격상 추진)
- 군내 수많은 저수지의 경사면이나 수면 등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탄소제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났으면 함(독일의 친환경수도인 프라이부르크나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브라질의 쿠리찌바 등을 벤치마킹 하고자 함)

5. 기대효과

- 우리 근현대 문학의 태동과 계승, 발전의 과정에서 장흥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것이며, 어머니의 품같은 고향이라는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
- 전시성, 선심성 또는 토목공사 위주의 지자체 사업과 정책 방향을 질적 또는 콘텐츠 중심의 선진적 사고로 의식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책을 좋아하거나 역사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힐링이나 충전이 필요한 분들이 부담없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 믿으며, 콘텐츠를 충분히 구축·확보하여 전국의 국문학도, 역사학도 등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문학 및 예술, 역사 유적의 명소

가 될 것이라 기대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인력은 지역학교 출신을 공개채용하여 청장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그리고 출향민이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간절히 가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함

■ 소요예산

- 빈 건물이나 점포를 활용하고 가족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됨
- 필요물품의 상당부분을 개인, 향우회, 종교단체 등을 통해 기증받을 계획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입할 방안을 강구 중임
- 건물 내부수리, 조형물설치, 물품구입, 도서구입, 건물신축, 도로정비 비용 등을 대략적으로 추산한 바 30~50억 소요 추정

■ 재원조달방안

- 사업추진을 위해 돈과 자료, 장비 등을 모으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장흥출신 출향민(각지역 장흥군 향우회, 기업인, 유력인사 등)이나 지인들, 기업, 종교단체 등이나 본인과 관련이 있던 기관이나 기업 등을 통해 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이 시작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함
- 전남도청, 장흥군청, 문체부 등에 관련 사업예산 배정 요청 및 정부발주 공공사업 등에 적극 지원하여 소요예산 확보
- 지속가능장흥 후원회 or 관산책마을후원사업회 등을 만들어, 5,000원 이상 기부하는 CMS 후원회원 모집 등 고려(기부금 영수증 발급)

■ 맺음말

지금은 계획 단계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영국 웨일즈의 헤이 온 와이 책마을이나 전북의 삼례책마을, 파주 헤이리문화예술마을 보다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문화예술역사 마을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청소년 문화의 집/터티 설치
 - 청소년 활동법으로 제정되어 있음에도 광주는 한군데도 없음.
(인근 지역엔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진행중)
2. 가정형 Wee센터, 외곽지역에 청소년상담센터 추가 설치
 -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열악한 현실
3. 중고교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방안 마련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
4. 광주시 학생 통학 차량 지원 (학생수송차량 셔틀버스 운행)
 - 자가용, 학원차량, 대중교통으로 등하교를 해야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덜고 교통체증 유발 사유 해소
5. 청소년들이 상시 공연 가능한 (야외)공연장 설치, 체육시설 확충
 - 건전한 문화생활 놀이공간 부족

▣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수준.

서울시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으나 대중교통비를 하루, 이틀 무료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고해서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던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일은 거의없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목적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도보로 한참 걸어야 하는 비역세권이기거나 대중교통 이용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것이 육체적으로 편하기 때문. 5호선 2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4개의 지하철 노선이 만나는 대중교통의 요충지 왕십리! 종로, 동대문, 명동, 강남, 서울역 등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는 과정에서 왕십리를 거쳐가는 시민이 많음. 엄청난 크기의 역사크기, 교통약자 및 시민이 이용하기에 너무 많은 계단과 이동거리. 그러나 6번출구와 같은 일부 출구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있고 다른 지하철역이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역사내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에 비해 왕십리역사는 이동편의시설 부족. 이제는 봄철 뿐 아니라 4계절 내내 한반도에 미세먼지는 1년 내내 WTO 기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음.

환경오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겨울철은 한파,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점점 더 육체적으로 힘들어짐. 환승이 많은 지하철 구간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환승이동경로 등에 냉난방을 더 신경써야함. 자가용에서 에어컨 틀고 시원하고 편하게 출퇴근 할 수 있는데 엄청난 인구가 봄비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출퇴근을 꺼리게 됨.

□ 주요내용

왕십리역 뿐 아니라 서울시내 지하철 환승 등 이동인구가 많은 왕십리역, 여의도역, 종로3가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당역, 강남역, 신도림역, 당산역 등에 지하철 역사내 냉난방 시설 점검 및 설치, 운영. 환승구간 및 이동인원이 많은 지하철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 소요예산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예산 예측이 어려움.

□ 재원조달방안

서울시내 환승이 없거나 이동인원(밀집도, 내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 역도 있음)가 적은지하철역 역사를 운영하는 예산을 환승이나, 기업체, 대학교, 관광지 등의 이유로 이동인원(밀집도)가 많은 지하철역에 지원.

제목 **개봉2,3동 지역에 도서관건립을 제안 합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 제안이유

개봉동지역에 도서관 전무 구로구는 대표적인 서민 거주지로 인구는 많은 반면 도서관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립 고척도서관이 인근에 있지만 거리와 달리 교통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실제 개봉1동지역과 고척동지역의 거주민이 위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개봉2,3동 지역은 도서관이 전무하여 부근 12개의 학교재학중인 청소년 학령인구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평생교육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도서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로구와 비슷한 인구의 다른구와 비교해봅니다

-(행정구/인구/도서관수)-

구로구(41만/3개) 서초구(39만/8개) 강남구(56만/9개)

□ 주요내용

1. 아름다운 도서관.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껴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선진국에서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도 국가나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도서관을 가진곳이 많더군요 우리 개봉동 지역에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울 수준의 아름다운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교육 복지 향상은 물론 서울과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수있는 도서관 건립을 제안 합니다.

2. 도서관 인프라

열람실은 물론 회의실 음악감상과 그림감상등이 가능한 공간과 예술교약 교육동 할수있는 자료를 많이 구축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의 요구도 충족 시킬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3. 도서관프로그램

주제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계획하여 커뮤니티안에서 평생교육을 누릴수있는 도서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4. 도서관건립재원

- 선심성 복지나 포퓰리즘 복지 지양하여 재원마련
- 연말 보도블럭 공사등 지양하여 재원마련
- 기업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가로 기업 홍보 기회 제공등
-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아이디어등 도움을 구함시다

5. 특히 청소년기에는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재능개발도 할 수있는 좋은 교육 환경을 우리지역의 자녀들도 향유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만들어 줍시다. 꼭 공약으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며 채택후 공약실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의도에 책 대출이 가능하고 열람실이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지역

서울특별시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주민입니다.

여의도에 학생들, 그리고 성인들이 자유롭게 책을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지어주세요.

여의도에는 국회도서관이 있지만, 대출이 불가합니다.ㅠㅠ 그래서 여의도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성인들, 출퇴근 하면서 독서하고 싶은 직장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여의도 주민들 커뮤니티에 그럼 불편함을 토로하는 글이 많습니다.

또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없어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독서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의도 독서실은 하루 이용료가 1만 5천원으로 무척 비쌉니다. 경기도의 신도시들은 동마다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국가 기관이나 연구 기관으로서 더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주민들이 책을 자유롭게 읽고, 부담 없이 개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주신다면, 독서율이 낮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독서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을 꼭 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도서관의 내실화 및 사서교사의 확충을 제안합니다

지역

대전광역시

지식기반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보의 접근과 그 이용의 중요성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의 기능도 점차 확장되어 단순히 물리적 형태의 정보자료를 단순 수집, 조직 및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평생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위하여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및 전문인력의 확충, 지역단위의 지원체계 확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실행 제안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확대를 제안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시와 함께 학생의 창의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은 대한민국 교육의 제일의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교과지식을 넘어 자기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고, 탐색하며,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길러야 합니다. 이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구현'의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구현은 정보 정보자료 및 정보활용교육의 종합적인 장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청 수준에서 단위학교 내 정보활용교육 및 정보활용능력에 기반한 통합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합니다. 둘째,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내실화를 위해 전문 직원 확충을 제안합니다. 2017년 기준 학교도서관 1관당 직원 수는 0.50명으로 학교도서관 진흥법에서 제시한 학생 수 당 사서교사 배치에 비해 턱 없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는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기준' 및 IFLA/UNESCO가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단위학교 당 사서교사 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교육환경 상 교과분장을 통한 학교도서관 운영은 교과업무 및 행정업무의 과다로 인해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운영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정보센터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도서관경영 및 정보활용교

육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서교사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 방안으로 1학교 1사서교사 배치를 제안합니다. 이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2018.02.21 개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필수 사항이며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제목 우리동네 공영주차장을 늘려 주세요

지역

경기도

안녕하세요 !

세류동에 거주하고 권선동에서 출퇴근하는 수원 시민 입니다.

평소에 수원을 사랑하고 수원에서 문화생활을 자주 즐기는 편인데요.

자차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늘 주차고민부터 하고 목적지주변 주차장부터 검색하게 됩니다. 목적지가 대형 쇼핑몰이 아니고서는 골목마다 즐비하게 세워져있는 불법주차 차량 피하랴, 가까운 위치의 주차장 찾으랴 이십분 이상은 늘 빙빙 도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출근시간 직장 근처에는 눈에 띄는 공영주차장도 없고 유료주차장은 비싸고, 회사 주차장은 일찍 가도 늘 만차. 길에는 지정주차석 내지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안되네요. 출근시간에도 한참 빙빙 돌다가 허겁지겁 출근합니다. 최근 회사근처에 공원을 새로 단장하는 모습을 보는데 속이 답답하더군요. ‘공원도 공원이지만 길에 늘어서 있는 차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과 도보 안전을 해칠 수 있을것 같으니 차라리 타워형 공영주차장을 세워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원망어린 마음도 들었습니다.

주차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야기되어왔지만 다들 주정차 단속에만 힘을 쏟지, 원인인 주차구역을 늘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 편의를 위해 서라면 사소해 보이지만 시민들이 겪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보여주시는 후보자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공영주차장을 늘려주세요!!

제목 용산구 보광동에 주차 타워를 건설 해주세요

지역

서울특별시

근 20년 째 보광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가 살아오면서 느낀 보광동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교통 문제’ 입니다. 이 교통 문제는 저가 어렸을 때도, 심지어 현재도 개선되는 점은 없이,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교통체증의 가

장 큰 원인으로, 보광동을 가로지르는 가장 큰 두 개의 길인 ‘보광로’와 ‘장문로’가 인구나 교통량에 비해 상당히 좁다는 점과, 그 좁은 길이 길의 역할보다 ‘주차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길이 좁은 것은 길을 물리적으로 확장할 수가 없고, 설사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해서 길을 넓히려 해도, 그 재정적 한계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의 역할을 하는 길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봅니다. 보광동은 예전부터 공용주차장은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등록된 차’의 수만 증가해 왔습니다. 현재도 구청에서 지정해주는 주차 공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주차 공간은 그 수가 많지가 않을뿐더러, 한 주차 공간에 대기하는 인원 역시 많아 제대로 된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져, 많은 주민들께서 불가피하게 ‘갓길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갓길 주차’의 영향으로 좁은 길이 상대적으로 더욱이 좁아졌고, 모두가 바쁜 출퇴근시간에는 버스나 차들이 통행을 못해 출근을 제대로 못하며, 화재나 범죄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도 신속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보광동 주민으로 과거부터 현재를 바라봤을 때, 이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주차 문제 해결’을 들 수 있고, 그 해결책을 위해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 바로 ‘고층의 주차타워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차타워를 건설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건설비용’으로 크게 토지의 매입비용과, 주차타워를 건설할 때 드는 건설비용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토지 매입비용입니다. 우선 주차타워가 들어설 부지의 평수는 평균적으로 400평 (1,322.31 m²) 정도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아마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쓰일 전용면적의 경우에만 400평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건설 시에 필요한 평수는 관련 시설들을 포함해 약 500-600평 (1,652.89-1,983.47 m²)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사용할 토지를 최대치로 예상해 계산을 할 경우, 순수 토지매입비용으로만 ₩6,000,000 * 600평 = (₩ 3,600,000,000) 정도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2018년 공시지가 기준, 보광동 평균 주택가를 반올림해 평당 600만원으로 측정했음)

두 번째로, 주차타워 건설비용입니다. 일반 철골조 주차장의 경우 평당 건축비가 150만원-2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7년 기준) 1,2층에 근린상가 시설을 넣은 일종의 수상복합 형태의 주차장의 경우, 평당 건축비가 4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를 따져보았을 때 현재 보광동엔 다양한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근린상가 시설을 넣은 주차장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철골조 주차장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일반 철골조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위에 나온 건축비에서 조금 더 잡아 300만원으로 가정함)

₩3,000,000 * 600 = (₩ 1,800,000,000) 정도로 예상됩니다. 토지 매입비용과 건설비용을

합쳐 보았을 때, 대략 ₩ 5,400,000,0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자동차 1대를 주차할 경우 약 11.5 m²의 공간이 필요하며, 위에서 언급한 400평대의 주차장의 경우 한 층에 6-7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상과 지하를 합쳐 8층 높이로 계산할 경우 480-560대, 많게는 600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600대 정도를 주차한다고 해서 보광동의 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주차 공간 수요를 예측해보았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실제 ‘수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대략적인 보광동의 인구수는 2017년 1월말 기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인용) 15,802명이고 세대수는 대략 8천 세대 정도로, 세대 당 1.97 명 정도로 핵가족 혹은 1인 가구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특이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70세 인구수가 비율로 따져보았을 경우 가장 많은 10,908명으로 만약 4명 당 자동차 1대를 기준 잡을 경우 2500대 정도의 자동차 수와 그에 상응하는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용산구청 인구통계 기준) 하지만 이 2500대라는 예측치도, 가족인 경우와, 자가용이 없는 경우,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차장이 완비된 집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차공간의 수는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우선 확실하게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와 맨션에 거주하는 세대들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광동에 있는 아파트는 대표적으로 신동아아파트 226세대, 리버빌아파트 242세대, 주미아파트 54세대, 양지맨션 60세대 등으로 대략 600세대 정도는 확실하게 전용 주차장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900세대 중 대략 3/5 정도가 평범한 주택, 2/5 가량은 주차장이 있는 다세대 빌라에 거주 중이며 이들 중 가족인 경우와, 1-2인 세대인 경우 자동차를 안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까지 고려해 실제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은 대략 ‘1900세대 * 0.5 = 950대’ 정도로 추정 가능하고, 이 950대 중 약 63%인 600대 정도를 8층짜리 주차타워에 수용하면 보광동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봅니다.

(실제 자동차수는 실제 세대수의 50%로 계산 또한 가족 구성원 수나 기타 등등의 통계에는 안 나오는 요인들 때문에 아마 이보다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면, 갓길 주차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좁은 골목에 무질서하게 주차가 된 것이나, 이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생기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또한 생각합니다.

(갓길이나 좁은 골목 등지에 배정 받은 주차공간을 모두 주차타워로 옮긴 것, 기존에 양호한 주차공간은 계속해 이용하게 할 것) 마지막으로 재원조달 방법과, 주차타워 이용에 따른 수익 구조를 설명하러 합니다. 2018년 상반기 현재, 용산구의 세입은 대략 42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중 안전건설교통국에 약 430억 정도로 상당히 큰 예산이 할당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54억 원의 총 사업 예산을 이 예산에서 다 가져다 쓰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70% 정도를 대고, 나머지 30% 정도를 기업이나 주민들에게서 일부 받거나 기금을 운용한다면 지자체에도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차 타워의 이용 금액은 현재 구청에서 가구당 지정해주는 주차공간에 대한 비용 (6-10만원) 정도로만 그 비용을 받는다면 동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받을 경우, 순수하게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만 4,800-5,600만 원 정도의 수입 발생할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낮 시간대에 보광동에 사업 혹은 다양한 일로 방문하는 유동인구들도 거기다 주차를 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 역시 발생할 거라 보아 최소 6000만 원 정도의 월수입이 발생할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되면 계산 상 1년 이면 7억 2천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나고, 최소 10년이면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비용을 다 받아낼 수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보광동에 ‘주차 타워’ 를 건설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목 학교의 미세먼지 예방 대책

지역 서울특별시

□ 제안이유

미세먼지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책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미세먼지 나쁨이상 수준시 학교 실외활동 금지 대책

- 학생들의 경우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에도 불구하고 아침일찍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등의 실외활동을 하고 있어 건강상의 치명적인 위험이 따르고 있으나 전혀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부모들이 반대해도 사춘기 청소년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 오히려 선생님들이 동아리활동 수준의 축구부임에도 수업전 아침 일찍 축구를 하도록 소집하고 방치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학교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 이상 도달시 운동장 개방 금지 등의 강제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 미세먼지의 예방을 위한 교실별 공기청정기 가동 또는 건물내 전열 교환기 설치 의무화
 -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에도 수업시간에 교실에서는 창문을 개방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 국가자금이 부족하여 공기청정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학부모들이 회비를 모아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교실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학부모들 중 희망자에 한해 인당 만원씩만 회비를 내도 교실당 공기청정기 한 개 정도는 쉽게 비치가 가능함에도 학교에서는 별도의 자금을 지원받아 비치를 하는것은 불법이라며 거부만 하고 있으며 아무런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 나라에서 해줄 수 없다면 학부모들이 대신 원해서 해주는 것도 안되면... 우리 아이들의 몸속은 중금속이 점점 쌓여만 갈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불행을 초래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없다면 희망하는 학부모들에 한해서 회비를 모아 공기청정기라도 가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교실 평수를 커버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는 학부모들이 만원씩만 모아도 사고도 남으며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3. 종합
 - 1)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야외활동 금지(운동장 등 사용금지, 폐쇄 조치)
 - 2) 교실별 공기청정기 또는 전열교환기 설치
 - 국가 자금 부족으로 불가할 경우 희망하는 학부모들에 한하여 해당 교실에 공기청정기 구입 및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
 - 3) 기타 : 학교 선생님들의 인식 개선 필요(미세먼지 교육을 해야할 선생님들 대부분이 오히려 방관하고 있는 실정임.)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정치 · 행정 분야 유권자 희망공약



정치·행정 분야 유권자 희망공약

Part 4

제목 예쁜 우리 동네이름 되찾기

지역

경기도

2017년, 한 프로그램(tvN/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을 보다가 지금의 각 행정구역 이름이 일제시대 한자식으로 많이 변경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동네이름이 일본식 한자로 많이 바뀌고 여전히 그 잔해가 행정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하철을 타고가면서 지명을 딴 지하철역 이름을 보면서도 한자지명의 어원을 생각해보거나 찾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말 동네이름을 되찾으면 안될까요?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말이 외국인에게 어렵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인을 많이 접하는 학문을 전공하고 관련 업무를 하는 직장인으로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우리의 전통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의 문화와는 다른 것을 찾아 한국을 방문하고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말을 접해보고 신기해하며 궁금증을 가집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려주면 아름다운 우리말의 조합에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시민이라 소요예산과 재원 등을 짐작키는 어렵네요.

그것은 제안을 받아들여 공약을 만드는 후보들과 그 캠프 멤버들의 일이 아닐까 조심스레 이야기해 봅니다.

예쁜 우리말 동네이름을 되찾아 우리말과 우리 동네에 대한 또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현재 따릉이는 구입 이용권 별로 1시간, 2시간의 기본시간을 제공하고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거리 이동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운동용으로 사용하거나 장거리 이동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싼 추가요금으로 인해 대중교통 요금보다 높은 추가요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예: 노원구에서 한강까지 왕복하는 경우 2시간이 초과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시민들의 따릉이 이용에 저해요소가 되며 시내 곳곳에 따릉이를 설치한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따릉이 기본 이용시간을 현재에 대비해 1~2시간 정도 연장하여 시민들의 사용률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제안이유

아산시 풍기동 주은아파트 북측 철도옆 (풍기동 211-5 답, 211-4 답)과 부티크패션타운 제이동 삼동 서측(풍기동 433 구, 211-13 답)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소방) 도로를 2018년내에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주은아파트 북측 후면 장항선 철도를 횡단하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국도21호선 까지 소방도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으나 부티크패션타운 상가 제이동과 삼동 서측 도로는 인도만 설치되어 동신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및 주민 통행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옆으로 모종풍기도시개발지구 소방도로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있으나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먼 길을 우회하여편의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부티크패션타운 차량진출입,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애로에 따른 초동대처불가등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지정 된지 10여년이 지나도록 시행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최근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2차선으로 개설된 이마트 아산점 후면도로와 연결도로 개설이 시급하니 2018년 중 반드시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소요예산(추정) : 1,308백만원(토지보상비 공시지가 309,200원*1.5*1,930m2=895백만원, 아스콘포장 250,000원*1,500m2*1.1=413백만원) 끝.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기타 분야 유권자 희망공약



기타 분야 유권자 희망공약

Part 5

제목 흡연 구역 설치 부탁드립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지하철역 10m 내외로 흡연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 강남, 종로 같은 변화가 주변 지하철역 입구를 걷다 보면 흡연자들이 지하철 입구 앞에서 흡연하고 있는 것이 자주 목격됩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흡연하는 것을 막아도 효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하철역 인근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이 피해가가지 않게 흡연부스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창원대학교 앞 시내버스 환승센터 확장

지역 경상남도

창원대학교 앞 시내버스 환승센터가 좁고 노후되고 낙후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명품 창원시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비좁고 건물이 낡아 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도 많이나 사용하는 학생, 시민, 관광객, 시내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많은 불평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창원대학교 앞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현대식으로 확장하고 시설도 최신시설로 만들어 국립대학교 앞 미관도 고려하여 건물도 멋지고 아름답게 신축하여야합니다. 특히 창원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전세계에 알려진 명품도시로 그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지어야합니다. 소요예산은 20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재원조달은 국비와 도비, 시비로 나누어 조달하면 좋겠습니다.

DMZ평화누리길이 대명항에서부터 애기봉을 경유 전류리 까지 이어져 있다.

그런데 포내리, 성동리, 동막, 보구곶리, 용강리를 잇는 철책선을 따라 문수산 둘레길은 조성 되어 있지 않아 이곳 원주민으로서 아쉬움이 크다.

이곳에는 임진강과 유도가 있고 예전 개성을 오가던 강령포구 조강나루가 있던 곳이다.

또한 북쪽으로는 개풍군 들녘이 보이는 미래의 평화일번지가 될 지역이다. 현재 이산가족들이 파주 임진각을 많이 찾고 있으나 이곳에 문수산 둘레길이 해안선 철책을 따라 만들어 지고 평화누리 길이 완성된다면 이곳이 이산가족들이 찾는 평화의 전당이 될것이다.

단 사유지와 국유지 분포로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겠지만 김포신도시개발로 신도시로 집중해 있는 모든 관심사들을 이곳 월곶면과 하성면 농촌 지역 안배에 힘을 써 준다면 해결 될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 한가지 이곳은 오랜세월 비무장 지대로서 오염이 안된 곳이기에 환경보호단체의 영향평가나 타당성 검토도 필요하리라 생각되기에 먼저 전문가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다.

이모든것이 해결되어 문수산 둘레길이 평화누리길과 만나 완성된 김포시의 평화누리길이 조성 된다면 세계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세계이목이 집중될 것이며 김포시 월곶면은 미래의 평화시대의 문을 여는 "평화 누리길" 문수산 둘레길"이 될 것이다.

농지소유와 관계없이 실제농사는 (1000㎡) 이상 소유한 경작인에게 직불금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기존 전(밭) ㎡당 50원, 답(논) ㎡당 100원 씩 지급은 지급하는것으로 지자체마다 조금은 다르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작물이 농사가 더힘들고 어려운반면 답은 농사 기가 용이한 편입니다. 쌀도 많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논농사를 줄이고 다른작물로 대체심기를 권장하는 당국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제도를 형편상에 어긋나지 않게 논,밭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세밀히 검토하여 차후 반영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제안이유

반려동물 1천만 시대 라는 말은 이미 몇년전부터 현실이 되었고 관련 산업과 더불어 반려동물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부족과 생명존중 경시 풍조로 인해 유기동물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동물보호법은 이와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렇다할 대응책 없이 말 못하는 생명들만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그 나라의 선진정도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마하트마 간디)고 합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춘천시 동물복지 정책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춘천시장과 춘천시의원 후보자에게 춘천시도 ‘강동구’ 와 같은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주요내용

- 춘천유기동물보호소 재정비(신개축으로 열악한 환경개선 및 인력증원)
 - 담당부서 정비(‘강동구’ 와 같은 동물복지팀 신설, 인력증원 등 조직개편)
 - 연계병원 마련(담당부서와 연계병원의 유기적 관계 유지)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지역 홍보(수도권 지자체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음)
 -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포획-수술-후처치까지 안전한 중성화 추진)
 - 춘천시 동물복지 정책 시행계획 및 관련 지침 마련
 - 춘천시 동물복지 정책 홍보
 - 타 시도 및 선진 동물복지정책 벤치마킹 등
- 위 정책에 대해 금번 임기 내 중장기플랜을 수립하고 최소한 30~40%까지는 시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을 제안하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를 간과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통령 개헌안은 동물보호의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 예산을 할애하여 춘천시가 한발 앞서 책임감 있는 정책을 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제언

춘천시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플랜을 보았습니다. 보육선도 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아이들이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인성이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도, 동물도 잘 살수 있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 그런 춘천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하며 당선자를 응원하겠습니다.

□ 기타 참고자료

- 강동구, 동물복지팀 신설

<https://blog.naver.com/petlabs/220767687077>(2016.7.21.자 자료)

-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의 다음 단계는? 동물복지 열린토론회

<https://blog.naver.com/leehsik/220718783127>(2016.5.25.자 자료)

제목

트램설치를 통한대중교통 시설확대와 관광효과

지역

울산광역시

울산은 지반이 약하기도하고, 인구 밀집 지역의 대부분은 중화학단지나 현대차, 중공업 시설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버스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가 묻는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버스의 배차 간격이 길고, 각 구나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버스들은 먼 길을 돌아야만 합니다. 승용차를 이용하면 30분이면 되는 거리도 1시간 이상 환승을 해서 가야만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산과학대학교, UNIST, 울산역(통도사)의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편입니다. 특히, 울산역의 경우 주변에 아무것도 찾아보기 힘든 황무지입니다.(점차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KTX가 연결된지 8년째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허허벌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울산의 지반 상 지하철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를 더 늘리기에는 관리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큼니다.

그렇기에, 트램 설치를 제안합니다. 각 구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몇개의 라인만 설치해도 교통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중공업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지금, 광역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다른 사업에도 투자를 해야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낫선 시설인 트램은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동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교통 문제의 해결과 관광산업의 기초 다지자는 이유로 울산시에 트램 설치를 공약으로 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광주광역시의 첨단 09번 버스를 아시나요??

첨단 09번은 인구가 밀집된 동네(첨단, 신창, 신가, 동림동 등)를 지나며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충장로, 남광주(조선대)를 지나는 광주의 척추같은 버스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광산구의 동네들을 지나며 출,퇴근시간에 버스 안은 말그대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신창, 신가동의 버스 이용객은 이미 첨단에서부터 만차가 된 09번에 탑승하면 앉아서 가기는 커녕 몇 십분동안 서서 목적지로 향해야하고, 심할 때는 사람이 워낙 많아 승차를 못 할 정도가 됩니다. 이어서, 동림동을 지날 때는 앞서 말 한 상황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이건 절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봐왔던 날만 세어보아도 족히 4년은 됩니다. 따라서, 저는 버스 부노선 추가 또는 쌍둥이버스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전에, 정책의 목표를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예방'이 우선 순위이고 그 다음이 '대중교통이용의 질 향상'입니다.

'버스 부노선 추가'에 대한 설명은 첨단 종점에서 출발하는 09번을 출,퇴근 시간에만 신창동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는 부노선을 추가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수완03번의 종점지에 09번 버스를 투입(가칭 '첨단09-a')하고, '신창중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운행했으면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마치 '2량열차'처럼 버스2대를 한 번에 운행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쌍둥이 버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산구만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교통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완성 기한은 부노선의 경우 여러 달이 소요되겠지만, 쌍둥이 버스의 경우엔 몇번의 시범 운행만 통과하면 바로 실현할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제가 정확한 재원은 저보다는 당선자분과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수렴해 계산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전북 김제 에서 전북 완주 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오고 나서 제가 처음 느꼈던게 살기 너무 불편하다였습니다.

첫번째로 제가 사는 삼례라는곳은 전주와 익산 바로 옆이다보니 시내버스로 이동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주셔서 운행하는 버스는 많았지만 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해보니 시설, 안내문구 특히 버스 탈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는 버스를 타는게 아닌 사람이 직접 버스를 찾아서 타야할정도의 모습이였습니다 사람이 걷는데도 옆으로 획 지나가는 아찔한 버스터미널 시설 낙후는 고쳐서 사용할수 있지만 그외는 폐허수준같았습니다 좀더 밝고 안전한 터미널의 변화된 모습 보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이곳에 살면서 전주와 익산 가는 분들은 괜찮지만 마을 택시를 이용하려면 터무니 없는 가격 이라고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터미널에서 역까지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금액을 받습니다 택시 그짧은 거리 기본요금이면 될것을 콜비는 그렇다치더라도 미터기 당연히 안하고 ..정말 택시 몇번 이용하고나서 이용을 하지않고 걸어다니게 되었는데 길가다 지나가는 택시 보고 어느분께서 편하게 이용할수가 없어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는 대중들이 한가할때 이용하는 수단이 아닌 항상 발이 되어줄수 있도록 좀더 마을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변화 되어진 이용하기 쉬운 모습 보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저는 병원에서 몇년동안 치료를 받고 지금은 약만 복용하는 환자입니다 하루종일 일은 힘들더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하고싶어 공공근로라던가 일자리알아보면서 자리가 참 많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들 더 일할수 있도록 공공근로 , 여러 일자리 마련되어졌으면 합니다.

요즘 도, 시 , 군 SNS 활동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이곳은 시가 아니고 군입니다 얼마전 SNS 상에 올라온 글 전체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시"를 향한 첫걸음 이라는 글이 생각나서 마지막 제안보다는 당부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이 먼저인 행복한 복지행정으로 살고 싶은 완주 꼭 부탁드립니다.

■ 현황 및 문제점

경의중앙선 연착 및 배차문제에 관해서 보도한 언론보도 링크를 올려놓으니 링크를 클릭하여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3736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37&aid=000017692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585438>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266472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266679

현재 남양주의 경우 9000가구 가까운 세대의 다산신도시가 입주하고 그외 구리/남양주에서만 올해 2만가구 넘게 입주되는 반면 4/8호선 연장사업은 공사가 계속 늦추어져서 교통대란이 예상되며 반대편 고양/파주/김포등 경의중앙선 이용을 하여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일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항공대/연세대/서강대/홍익대/한양대/서울시립대/경희대/외대/국방대등 대학통근생들의 경의중앙선의 배차 및 연착문제에 관해 분노가 커지고있고 이에관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신설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되었습니다.

■ 개선방안

경의중앙선 구리역 바로 코옆에 1만3천평 가까이유 수지와 공원(구리광장)이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는 구리롯데백화점/돌다리전통시장/한양대구리병원등 엄청난 변화가 임니다 또한 현재 8호선 별내선 연장공사가 진행중인데 경의중앙선 구리역과 환승되는 환승센터역시 공사중인데 8호선 구리역을 통해 5호선(천호역)/2호선(잠실역)/9호선(석촌역)/3호선(가락시장역)/4호선(별내북부역)/경춘선(별내역)/분당선(북정역)과 쉽게 30분안에 환승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중인 6호선 구리연장이 실현화되면 8호선을 통해 구리농수산물시장 역에서 6호선 환승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좋습니다.

구리역 바로 코 옆에 1만3천평의 빈 국유지를 활용하여 선로와 승강장을 증가시켜 민자역사 형태로 개발시키고 중앙선/경강선/영동선/동해선등 여객열차의 종점을 구리역 까지 종점화시키고 구리~용산 선로 22KM구간은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의 전용선로로만 활용시켜서 경

의중양선 배차 및 연착문제를 해결하고 중랑구에서 제안하는 분당선/1호선 망우역 연장은 선로포화로 인해 반려하는 대신 망우터미널 이전사업을 동대구역 민자역사 버스 환승센터 형태로 구리역 민자역사에 이전시켜서 중랑구 역시 지역숙원이었던 망우터미널부지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는게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경춘선을 용산까지 연장하는 대신 경춘선 itx 는 경춘선 금곡역에서 남양주시 일패동 중앙선 선로까지 3km를 단선으로 건설하여 구리역으로 종점화하고 향후 속초까지 경춘선 여객열차를 연장하는 동서고속철 완공시 속초~구리 구간 여객열차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춘선 금곡역에서 남양주시 일패동 중앙선 선로까지 3km 구간에 선로를 놓음과 동시에 성북역(광운대역)의 시멘트공장을 비롯한 화물열차 산업기지를 금곡~일패 선로 일대에 이전하여 화물열차의 망우~용산 선로 진입을 막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사업비는 성북화물기지나 망우역 빈 선로부지 땅을 매각한 이후 보금자리지구등 건설개발로 인한 수익 차익으로 충분히 건설할수 있습니다.

그외 왕십리역~용산역 구간 화물열차는 향후 개통되는 경강선/판교월곶선을 통해 우회시켜서 수도권 동~서를 횡단하는 화물열차들을 우회시키는 방법과 현재 고양~의정부간 교외선을 남양주 경의중앙선 양정역이나 도농역까지 단선으로 연장시켜서 화물열차들이 서울도심 진입대신 교외선 우회를 통해 교외선~대곡소사선~수인선/경인선으로 우회하여 경의중앙선 망우~용산~수색선로를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의 전용선로로만 활용시켜서 경의중앙선 배차 및 연착문제를 해결하고 경춘선 용산연장 해달라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경의중앙선 여객열차의 종점을 구리역 까지 종점화하고 시키고 경춘선 여객열차역시 경춘선 금곡역에서 남양주시 일패동 중앙선 선로까지 3km를 단선연결 시켜서 구리역으로 종점화하고 이곳에 성북(광운대)역으로 향하는 화물기지들을 이전시키고 그외 화물열차들은 경강선/월곶판교선/교외선연장등으로 우회시켜서 구리~수색 구간 경의중앙선 선로를 경의중앙선 열차전용선로로 지정시키고 경춘선을 용산까지 연장하는방안을 제안합니다.

■ 기대효과

경의중앙선 배차 및 연착문제 해결로 구리/남양주/파주/고양/춘천/가평/양평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 및 서울지역 대학 통학생들 불편함해결이 예상됩니다.

중앙선 망우~용산 선로포화문제 해결

중랑구 지역민의 숙원이었던 망우터미널 이전 및 재개발 문제와 남양주시 춘천시의 숙원문제였던 경춘선 용산연장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현재 신세계에서 인근 갈매와 하남에 1조원 규모의 물류센터 신축을 시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물류센터 건립이 어려운데 이곳을 물류센터와 마트/백화점등 쇼핑몰/ 오피스텔/업무지구 환승터미널등이 결합된 민자역사 건설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아님 이곳이 현재 짓고있는 8호선 구리역과 가깝고 경의중앙선을 통해 신촌/용산/회기등 도심 대학가나 중심 상업지구를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신혼부부등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건설하여 민자역사와 함께 개발시키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롯데백화점 구리점이 근처에 있으므로 롯데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안과 인근 다산신도시에 쇼핑몰 건립을 하려고 땅을 구입한 현대아울렛(현대백화점)측에도 민자역사 사업제안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등포역 앞 차량, 도보 환경 개선

지역 서울특별시

1. 제안 내용 : 영등포역 앞 포장마차 위치 이동.
2. 제안 상세 : 영등포의 현실적 환경과 이미지 개선 목적. 영등포 내 차량과 인구 이동의 허브 지역인 영등포역 앞 포장마차를 포장마차 주요 상권으로 이동함. 영등포시장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동 지원하고 문화컨텐츠 및 주요 지역내 이벤트와 접목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포장마차 수익 증진에 기여함.
3. 소요 예산 : 지역내 주요 유휴 공간 활용, 이동 지원 및 컨텐츠 제휴에 비용을 할당을 전제로 약 2억 소요 예상.
4. 시행 기간 : 약 1.5년 (유휴 공간 확보 또는 공간 계약, 문화컨텐츠 공모, 이동 및 시행)

제목 부산시는 왜 제2의 김해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가 & 부산시 도시철도 순환선 제안

지역 부산광역시

김해경전철이나 북정선경전철을 공사한다고 했을때 가장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왜 충분히 버스로 커버가 가능한 지역들을 경전철로 건설하는것일까 이였다 또한 김해같은 경우는 부산지하철2호선이 양산으로 연장하였듯이 부산3호선 대저종점에서 김해시내로 연장하면 공사비는 줄이고 사업성은 높일수 있는데 굳이 민자로 할까하는 생각이 들였다.

참고로 부산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수도권지역들인 경기/인천보다 높지만 부산의 전국도로

표준속도는 전국에서 제일 낮다. 즉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도 부산의 경우는 전국에서 도로가 가장 많이 막히는 동네이다. 왜 이렇게 막히는 것이며 도로는 막히는데 경전철 사업마다 적자를 보는 것일까? 그 이유는 김해 경전철을 보면 알 수 있다

김해경전철은 부산-김해간 남해고속도로의 심각한 정체로 전국에서 먼저 경전철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김해에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인구보다 부산에서 김해 외곽근교의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남해고속도로나 만덕터널/동서고가로의 정체가 심해진 것이며 외곽근교에 있는 공장들은 말그대로 외곽에 있어서 자가용을 타고 출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서울과 비슷한 문제로 생각하였고 경전철을 건설하다가 큰 낭패를 본 것이다.

버스전용차로도 마찬가지다.

해운대에서 동래에 이르는 충렬대로의 정체이유는 바로 김해에서 부산으로 오는 사람들 때문이 아닌 부산에서 김해외곽근교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정체인데 이를 서울과 비슷하게 여겨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였다가 지금 어쩔수없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김해외곽근교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부산시는 민원폭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3월 22일자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부산시의 5개 경전철 노선들이 또 국토부의 심의를 받는다는 것이다. 신정선과 정관선은 정관신도시 입주민을 위한것인데 노선상 직선거리가 아니라서 사람들은 급행버스를 이용할 것이며 급행버스 역시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텅텅 비어서 다닌다. 강서선역시 강서지역 개발이 아직 제대로 계획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되는 것이라 의문이 많다.

씨베이파크선은 북항재개발을 목표로 만든것인데 북항재개발은 이제 기초공사를 마치기 시작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기존 4호선을 연장하는 기장선은 찬성이다. 실제 한 네티즌들이 직접만든 백과사전 같은 커뮤니티를 보면 부산의 분할적인 도시철도 계획정책은 충분히 중전철 직선화로 해소가 가능하며 부산시가 사업을 쪼개서 도시철도를 계획하는 이유는 예산 타기식 사업이 아니냐는 글이 적혀져 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산시는 서울과 달리 도시철도 음영지역이 많고 나는 이러한 음영지역 해소를위해서 부산 도시철도 음영지역들을 직선으로 그려서 엄궁하단선을 부산시내 전체를 서울2호선처럼 순환해서 구상한 부산시내순환철도를 부산시에 제안하였다.

특히 부산시의 지역세금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 버스환승요금지원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철도 음영지역 해소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안다 하지만 사업을 쪼개어서 각자 추진하는 것은 사업비를 높이고 사업성은 줄인다 하지만 부산시는 나의 이런 제안에 이미 한번 결정한 도시철도계획은 바꿀수 없다며 거부를 하였다 그럼 내가 제안하는 부산시내순환철도를 한번에 안하고 용호선/송도선/초읍선/엄궁선/씨베이파크선/ 각자 5개 지역철도를 따로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높이고 사업성을 줄인다는 말인가???

내가 제안하는 부산시 교통대책은 부산의 본질적인 도로정체는 도로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만큼 도로에 사업을 집중하고 내가 제안하는 부산 순환선으로 도시철도 계획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부산~창원간 시외버스가 광역교통 부제로 시내버스 배차처럼 다니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부분만큼은 수도권처럼 광역철도 사업에 집중하여서 경전선광광역철도는 진주까지 동해선 광역철도는 포항까지 연장해서 부산내부보다는 광역철도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 부산순환선 제안

부산시내 도심구간은 노선직선화를 통한 노선으로 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야함. 사상하단선/송도선/씨베이파크선/용호선/초읍선을 통합한 부산시내순환철도 제안 부산의 지하철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순환철도 구상

○ 노선도

현재 공사 구간 : 하단~사상

가상 노선구간 : 하단역-장림동-송도해수욕장 - 부산공동어시장 - 남포동 - 부산북항재개발 - 좌천 - 자성대 - 문현역 - 우암동 - 감만동 - 용당동 - 동명대 - 용호동 - 메트로시티 - 남천역 - 광안리해수욕장 - 민락동 - 센텀시티역 - 센텀역 - 재송동-반여동 - 연산9동 - 경상대 - 연산동홈플러스 - 교대역 - 종합운동장 - 부산광역시의료원 - 부산어린이대공원 - 초읍시장 - 부산시민공원 - 동해선부전역 - 서면역 - 부암역 - 부산진구청 - 부암동 - 당감동 - 개금동 - 부산보훈병원 - 백양대로 - (사상역 ~ 하단역)

부산시는 시내 도시철도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철도 계획 노선들을 영도선/엄궁선/송도선등 쪼개어서 노선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러한 도시철도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철도 노선들을 순환노선으로 통합해서 한번에 처리하고 다른 시내철도 노선과의 연계기능 강화 가능

○ 개발효과

사실상 영도지역을 제외한 부산시내 모든 곳이 서울시내처럼 도시철도로 연결 가능 부산 시민공원을 비롯 관광지 연계가능 상습시내도로 정체구간 해결가능. 어린이대공원 송도해수욕장 등 관광지 연계가능. 부울/부마 복선전철과 연계기능 강화 부산시내 도시철도 음영지역 용호/송도/감만/초읍등 도시철도 소외지역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및 도시혼잡 해소 등

■ 현황

수성구 범물동 용지네거리 범물근린공원 지하에 도시철도 환승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불편과 환승수요가 없어 활용도가 지극히 낮음.

범물동 내에 도시철도역이 2개 있어서 동민들은 도보로 이용하며 고산지역주민들은 2호선을 이용하고 파동지역주민들은 수성못역, 지산역을 이용하여 환승용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임

■ 문제점

입출구가 각1개 있으나 이용이 불편하여 이용주민이 극히 적어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며 반면 범안로 건너편 범물2동주민센터 옆 2차선도로 (범물2동 주민센터및 범물시장주변~ 삼주어린이공원 ~ 배수지)는 양측면에 불법주차 차량이 빈틈없이 주차되어 도로가 주차장화되어 교행은 아예 불가능 하고 맞은편에서 오는차량을 대피해줄 공간도 없는 실정이어서 화재발생 시 긴급차량 통행지연, 접촉사고 발생등 불편이 극심하여 주차난 해소가 절실한 상태임.

■ 개선방안

현재 지하주차장 입출구가 각 1개씩 있으나 위치상 이용이 불편하므로 범안로를 횡단하여 지하도를 개설하여 범물2동주민센터(청아타운)쪽에 차량 입출구를 각 1개소씩 신설하여 범물2동주민센터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면 활용도도 높이고 주차난도 해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기대됨. 전국적으로 주택가나 상가주변 주차난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신설을 통한 주차난 해소가 절실한 실정이며 대부분 부지확보를 못해서 설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무상으로 부지확보가 가능하므로 설치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하통로를 확장할 경우 주차면수도 증설가능할것임.

옛날부터 만안구 일부지역은 강남권으로 수익성과 경쟁성을 이우로 한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 전철이 필수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버스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석수동지역 아파트 건축으로 잠재적 수요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미 많은 석수동 주민들이 강남 접근성 제고에 대해 M5333번의 염곡도매시장 추가 정차를 요구한 바가 있으며 이 점은 시청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원을 넣으면 전철을 타 환승하거나 수서역에서 갈아타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돌아와 실질적으로 강남행 버스노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후보님! M5333과 마찬가지로 M버스의 신설은 시에서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되면 서울시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더 살기좋은 안양을 위해 [박달사거리-안양역-대동문고-안양대교-석수역(-)강남] 으로 운행하는 M버스의 신설을 진중히 고려하여 공약으로 내주십시오.

